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도덕교육적 함의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고 동 욱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도덕교육적 함의

지도교수 정 창 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고 동 욱

고동욱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8월

위 원 장 김 병 환 (인)

부위원장 정 창 우 (인)

위 원 김 형 렬 (인)

국문초록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도덕교육적 함의 연구

고 동 욱

본 연구는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 논의가 도덕과교육과 도덕교육, 그리고 교육 전반에 갖는 함의를 도출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은 배려 실천의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려 개념을 재구조화하고 배려가 인간 삶의 보편적이고 중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은 배려를 인간 존재의 취약성과 의존성으로부터 파생된 배려 필요를 충족하려는 인간적인 실천으로 재구조화했다.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은 정의와 배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배려에 정의를 결합하거나 정의에 배려를 융합하려 했다.

그러는가 하면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이론가들은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배려의 보편성과 중심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비판적 관점 아래에서 자유주의적 세계관의 변혁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그에 따른 대안을 제안했다. 짧게 부연하면,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은 인간의 취약성과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배려 필요와 그러한 배려 필요에 응답하는 상호의존적인 배려 책임과 배려 실천의 연결망으로 자유주의적 관념 아래에서 설계된 자율과 평등, 권리와 의무 개념을 비판했다.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은 인간 의존의 사실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차이를 들어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대표하는 Rawls 정의론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가정을 전제로 세워짐에 따라 차별과 배제를 배태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

했다.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은 모든 인간이자 시민들이 연대와 신뢰 속에서 함께 배려하는 배려 민주주의라는 이상에 비추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낮은 계층 혹은 낮은 계급에 속해왔던 자들에게 배려 책임을 떠넘겨 온 사회 구조를 드러냈다.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은 모든 시민에 의한 윤리적 책임의 실천이자 국가에 의한 윤리적 책임의 실현 기준이 되어야 할 배려를 시장의 재화로 여기거나 순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신자유주의를 재앙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은 자유주의가 구축한 인간, 시민, 사회, 국가, 전 지구 공동체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모든 인간이자 시민이 서로 다른 수준의 취약성, 의존성을 배태하고 있음을 자각하여 배려 필요를 감지하고, 배려 책임을 수용하여, 배려 실천에 함께할 수 있는 인간이자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 배려 실천에 기꺼이 함께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온전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촘촘한 배려 제도와 정책으로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높은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다른 국가의 돌봄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멈춤으로써 함께 배려하는 지구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 의한 비판과 그에 따른 대안이 도덕과교육과 도덕교육, 그리고 교육 전반에 있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과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에는, 포용성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실천으로서의 배려를 충분히 고려한 서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 상호의존성으로 도덕적 인간상의 외연을 확장할 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핵심 가치들 중 하나인 배려의 층위를 고려한 서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 관계적이고 협력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한 서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도덕과 교육내용을 설계할 때에는, 배려를 비롯한 성실, 정의, 책임이라는 핵심 가치가 각각의 내용 영역에 한정된 가치가 아님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 배려가 타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음을 반영한 서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 봉사 관련 내용 요소와 그에 따른 성취기준은 돌봄을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는 것, 자유주의적 시민관, 사회관, 국가관, 정의관에의 반성과 성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끝으로 셋째는, 교육은 돌봄의 일환이므로 교육과 교사는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을 잘 돌보는 데에도 그 책무가 있다는 것, 교사를 양성해야 할 교사교육은 예비교사들이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예비교사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주요어 : 배려윤리,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 자유주의 비판과 그에 따른 대안, 신자유주의 비판과 그에 따른 대안, 도덕교육
학 번 : 2021-25194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3

Ⅱ. 배려윤리의 태동과 발전 ····· 7
1. 배려윤리에 대한 여성적 접근과 그에 대한 비판 ··· 7
1) Gilligan의 배려윤리와 그에 대한 비판 ····· 7
2) Noddings의 배려윤리와 그에 대한 비판 ····· 15
2.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 ····· 23
1) Tronto의 배려윤리 ····· 23
2) Engster의 배려윤리 ····· 31
3. 정의와 배려의 관계 ····· 39
1) 여성적 접근에서의 관계 ····· 39
2) 일반적 접근에서의 관계 ····· 46

Ⅲ.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비판과 대안 ····· 53
1.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대한 비판 ····· 53
1) 자유주의 담론에의 도전 ····· 53
2) Rawls 이론에의 도전 ····· 61
2.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비판 ····· 68
1)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불평등에의 도전 ····· 68
2)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제도 및 정책에의 도전 ··· 76

3. 함께 배려하는 공동체를 향한 대안 ····· 84
1) 함께 배려하는 시민과 사회 ····· 84
2) 함께 배려하는 국가와 지구 공동체 ····· 90

Ⅳ.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 논의의 도덕교육적 함의 ····· 96
1. 도덕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함의 ····· 96
1) 도덕과 교육과정의 '설계의 개요' 개선 ····· 96
2)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 개선 ····· 104
2. 도덕과 교육내용 개선을 위한 함의 ····· 109
1)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와 '핵심 아이디어' 개선 109
2)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개선 ····· 118
3. 교사와 교사교육의 책무에의 함의 ····· 122
1) 돌봄·교육·보육의 관계와 교사의 책무에의 함의 ····· 122
2) 돌봄으로서의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책무에의 함의 126

Ⅴ. 결론 ····· 128

참고문헌 ····· 136
Abstract ····· 152

표 목 차

[표 2-1] Kohlberg의 정의의 도덕성과 Gilligan의 배려의 도덕성 비교 9
[표 2-2] Kohlberg와 Gilligan의 도덕성 발달 단계 11
[표 4-1]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표 개선안 110
[표 4-2] '봉사' 관련 내용 요소 재구조화 방안 114
[표 4-3] [6도02-01] 재구조화에 따른 교육내용 설계 방안 115
[표 4-4] 시민관, 사회관, 국가관, 정의관에 관한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129

그 림 목 차

[그림 2-1] Tronto 배려의 5단계 27
[그림 4-1] 돌봄과 교육, 그리고 보육의 관계 123

제 Ⅰ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배려[1]윤리와 관련된 도덕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2]들은 Gilligan과 Noddings의 배려윤리에 집중해왔다. 이는 전통 윤리학이 여성의 도덕적 경험과 직관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되물음으로써 비판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여성적(feminine) 배려윤리(Sherwin, 1992: 42-49), 배려를 성별, 젠더와 연관 지으면서 전개한 1세대 배려윤리(Hankivsky, 2004: 11-26)에 천착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적 배려윤리, 1세대

---

1) 배려는 'Care'를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학계는 'Care'를 배려로, 철학계와 여성학계는 'Care'를 보살핌으로, 공공정책과 사회복지학계는 'Care'를 돌봄으로 번역하여 쓰고 있다. 따라서 배려, 보살핌, 돌봄이 서로 같은 의미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고, 맥락에 따라서는 혼용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학계에서 'Care'를 번역할 때 서로 다른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Care'를 통해 강조하고자 한 것은 'Care'에 내재된 인간의 관계적 특성, 그리고 그것의 윤리적인 규범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김희강·임현 편, 신창호, 허라금 저, 2018: 9-11, 15, 73-74). 이에, 본 논문에서는 'Care'를 번역할 때, 교육학계에서 채택한 '배려'를 주로 쓰되, 맥락에 따라 철학계·여성학계에서 채택한 '보살핌', 공공정책과 사회복지학계에서 채택한 '돌봄' 또한 적절히 혼용하고자 한다.

2) Gilligan, Noddings의 배려윤리 이론에 기반한 도덕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그러한 연구에는 고미숙(2004; 2007), 권의섭(2017), 김민영(2019; 2020) 김수동(2002a; 2002b; 2003; 2004a; 2004b, 2008), 김완순(2008), 김하연(2021) 노상우·이혜은(2009), 박병춘(1998; 1999; 2005; 2010), 박보람·신중섭(2020), 박혜준·김윤경(2010), 서강식(2022), 오기성(2006), 이나현(1999; 2008a; 2008b; 2008c), 이미식(2001; 2003; 2012), 조성민(2010; 2013a; 2013b), 이미식·최용성(1999; 2001), 조현규(2007), 진미숙(2004), 차우규(2006), 한일조(2016), 한혜정(2004), 황지영·강기수(2021)가 있다. 이 연구들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대안윤리로서 배려윤리, 배려교육을 제안한 경향이 있다.

배려윤리는 주류 도덕발달심리학과 윤리학이 남성 편향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는 유용했지만, 성(性)편향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한계를 노정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여성적 배려윤리, 1세대 배려윤리가 여성의 배려 실천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자유와 평등을 희생케 한 것(Kymlicka, 장동진 역, 2005: 649)에 따른 비판은 타개하기 어려운 비판 중 하나다. 다시 말해 여성적 배려윤리, 1세대 배려윤리는 여성이 배려를 실천해야 한다는 무한의 책임을 짊어지게 했지만, 그것이 제공되고 보상받는 조건들을 정함에 있어서는 여성에게 어떠한 권한도 갖지 못하게 했다(Sevenhuijsen, 1998: 84).

이와 같은 비판과 함께 배려윤리는 여성에 대한 지배와 압제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여성주의적 배려윤리(Sherwin, 1992: 49-57), 여성만이 아닌 모든 인간 삶에서 보편적이고 중심적인 경험으로서의 배려를 바탕으로 한 2세대 배려윤리(Hankivsky, 2004: 27-40), 여성주의에 따르지 않는 비(非)-여성주의적 배려윤리(Collins, 2015: 6)에로 변모해 가고 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최근에는 Tronto의 배려윤리에 기반한 도덕교육에 관한 연구[3]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Gilligan, Noddings의 이론에 기반한 도덕교육에 관한 연구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하여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 진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배려가 '여성'에 국한된 어떤 태도나 성향이 아니라, 배려를 '모든 인간'이 이미 주고받았거나 앞으로 주고받게 될 행위와 실천으로 보고, 배려를 기반으로 정치철학과 경제체제를 재구조화하고, 시민과 사회, 국가와 지구 공동체의 변혁을 요청하는 관점을 모두 포괄하여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으로 명명하는 것을 연구의 시작점으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명명의 이유는, Tronto가 모든 인간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만큼은 배려를 필요로 하기에 배려는 보편적(universal)이라

3) 그러한 연구에는, 이숙정(2008), 박미랑(2013), 고미숙(2015; 2022), 김은정(2018), 김혜진(2020), 노희정·홍기대(2021), 김민영(2022)의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들은 직전의 각주에 열거한 연구들에 비해 배려윤리의 정치·사회적 의의를 강조하면서 도덕교육적 함의를 도출해내는 경향이 있다.

논한 지점(Tronto, 1996: 149), Engster가 Tronto의 배려 개념 정의를 Noddings, Held, Ruddick의 모성적 배려 개념 정의에 대비되는 포괄적(generic) 개념 정의라 규정(Engster, 2007: 24)한 지점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이 자유주의 정치철학,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한 면면을 살피고, 그것들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추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명료화하자면,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이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의 성격 및 목표,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과 교사, 교사 교육의 역할과 책무에 있어서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에 관한 답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의 연구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연구 질문 중 첫 번째는, 배려란 무엇이며 배려를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이고, 두 번째는, 배려윤리가 제기한 비판과 그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가이고, 세 번째는, 그러한 비판과 그에 따른 대안이 도덕과교육, 도덕교육, 교육의 맥락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가이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앞서 제시한 연구 문제와 세부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를 활용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 자료를 검토하는 연구하는 방법으로, 이때 문헌은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는 단행본, 논문, 정부문서, 정책자료, 발표자료 등을 포괄한다. 이에, 문헌연구는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광범위한 문헌들을 선택, 분류,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 주제의 본질에 대하여 논하고, 그것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 방법(Hart, 1998: 27)이다. 또한,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 중 통합적 방법(integrative method)을 채택하려 한다. 통합적 방법은 연구에 관한 연구로, 특별한 발견이나 결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를 분석, 요약, 평가한 결과를 통합하는 방법(장택수, 2004: 48-50)이다.

이를 통해, ‘An Ethic of Care’라는 이름 아래에 산재되어 있는 논점을 교육에 관한 수렴적 논의로 재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성을 개괄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논의의 기초인 Gilligan, Noddings를 위시한 배려윤리에 대한 여성적 접근, Tronto, Engster를 위시한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기반을 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1절에서는 Gilligan의 초기 연구에 근거한 배려윤리 즉, 배려 개념의 기원과 도덕성 발달론을 살피면서 배려 담론 형성의 초기 국면을 집약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배려윤리에 대한 여성적 접근을 대표하는 Nodddings의 배려윤리 즉, 배려 개념 정의와 도덕교육론을 살피며 배려윤리에 대한 여성적 접근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Tronto의 배려윤리를 우선하여 조망할 것이다. Tronto는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을 선도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Tronto가 제안한 배려 개념 정의와 배려의 5단계의 전개 양상을 살핌으로써 배려윤리에 대한 여성적 접근이 노정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다음으로는 Engster의 배려윤리를 살펴볼 것인데, 그는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 그 중에서도 비-여성주의적 접근에 속하는 이론가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이에, 그의 배려 개념 정의와 배려의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배려윤리가 보편윤리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3절에서는 정의와 배려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또한 배려윤리에 대한 여성적 접근과 일반적 접근으로 구분해 각 접근에 속한 이론가들이 정의와 배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먼저, 배려윤리에 대한 여성적 접근에 있는 Gilligan, Noddings, Ruddick, Held의 주장을 다룬 뒤,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 있는 Kittay, Tronto, Engster, Robinson의 주장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배려 이론가들이 어떤 맥락에서 자신들의 배려윤리를 모든 인간이자 시민의 삶에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장은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이 제기한 논의들 중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려 한 것을 중심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다만 이 때에는 배려윤리, 배려 담론의 쟁점들 중에서 도덕과 교육과정의 형식과 내용, 교육과 교사, 교사교육의 책무에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대해 비판을 가한 지점을 논하려 한다.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이론가들이 자유주의 사상 아래에 구축된 자율, 평등, 권리, 의무 개념을 취약성과 의존성, 책임 개념을 들어 비판한 지점을 논할 것이다. 또한, Rawls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가 보편적, 이상적 가정들에 기반하고 있어 구체적 차이가 실존하는 사실과 현실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기본적 가치의 목록만으로는 인간 의존의 사실을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을 비판한 지점을 논할 것이다. 나아가 2절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대해 비판을 가한 지점들을 논하려 한다. 낮은 계층 혹은 낮은 계급에 속한 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배려 책임을 다하고 있어 발생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져 나타나게 된 회귀적 악순환의 굴레를 비판한 지점을 논할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따르려는 제도 및 정책이 시민의 삶에 있어 미치는 악영향을 짚으면서 배려 제도 및 정책의 수립과 운영이 국가의 윤리적 책임이자 의무라고 비판한 지점을 논할 것이다. 3절에서는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이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비판함에 따라 제안한 대안적 세상의 면모를 논할 것이다. 배려시민성과 함께 배려하는 시민, 시민권의 재고와 함께 배려하는 사회, 배려 제도 및 정책과 함께 배려하는 국가,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제고와 함께 배려하는 지구 공동체가 그것이다.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논의가 도덕과 교육, 도덕교육, 교육 전반에 갖는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교과를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덕과 교육과정 또한 공통교육과정에 '도덕' 교과를,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현대사회와

윤리',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윤리문제 탐구' 교과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 또한 도덕과교육 및 도덕교육에 관한 함의를 도출함에 있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구분과 도덕과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을 최대한 따르고자 한다. 1절에서는 도덕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각각의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성격 및 목표를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도덕과 교육내용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각각의 내용체계와 내용요소에 따른 성취기준을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공통 교육과정은 대안으로 삼은 내용요소에 따른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재구성한 교육내용을 제시할 것이며,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내용적 접목 가능성을 탐색한 결과 고안된 질문을 제시할 것이다. 3절에서는 교육과 교사, 교사 교육의 책무에의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관점에서 돌봄, 교육, 보육의 적절한 관계를 모색하여 교육과 보육이 돌봄의 일환임을 보일 것이며, 교육과 교사의 책무에 대한 관점은 그에 따른 전환이 필요함을 논할 것이다. 또한, 돌봄으로서의 교육을 이끌 교사를 양성하는 교사교육 역시, 예비교사가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아동·청소년의 삶을 접함으로써 서로 다른 양상의 배려 필요에 따라 배려의 책임을 수용하고 배려를 실천할 충분한 기회, 예비교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배려할 충분한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구성에 따른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가 가능한 한 모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배려, 보살핌, 돌봄의 주체가 됨으로써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타인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치, 경제, 국가, 지구공동체에 만연한 부정의를 변혁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되는 길에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 Ⅱ 장 배려윤리의 태동과 발전

본 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여성적 접근에서 배려윤리를 논한 Gilligan과 Noddings의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Gilligan, Noddings의 배려윤리가 지닌 의의와 한계점을 짚고,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간 삶의 중심적인 나아가 보편적인 경험으로서 배려를 강조하는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서 배려윤리 전개하고 있는 Tronto, Engster의 배려윤리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려 이론가들이 어떤 맥락에서 자신들의 이론을 공적 담론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인지의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배려 이론가들이 정의-배려, 혹은 정의윤리-배려윤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논할 것이다.

제 1 절 배려윤리에 대한 여성적 접근과 그에 대한 비판

이 절에서는 Gilligan 배려윤리에서 배려가 대두된 배경과 Gilligan이 제안한 배려 도덕성 발달론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Gilligan 배려윤리를 계승한 Noddings 배려윤리에서의 배려 개념, 도덕교육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 이론 각각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논함으로써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이 대두되고 있는 배경을 살피고자 한다.

1. Gilligan의 배려윤리와 그에 대한 비판

1) 배려 개념의 기원

Gilligan의 배려윤리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청소년기 이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 저서인 『다른 목소리로』를 중심으로 한 초기 연구이다. 두 번째 부류는 청소년기와 그 이전의 소녀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출간된 저서인 『교차로에서의 만남』 이후의 후속 연구이다(박병춘,

2002: 96-97). Gilligan의 초기 연구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성의 윤리로서 비이기적, 자기희생적 행동을 요구하는 여성적 배려윤리(feminine ethic of care)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후속 연구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계를 포기하는 것에 저항하는 여성주의적 배려윤리(feminist ethic of care)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Gilligan이 자신을 위한 배려는 이기적인 것이며, 비이기적이고 자기희생적인 것만을 배려로 간주하면서, 배려를 위해서라면 관계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성적 배려윤리의 입장만을 취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Gilligan의 배려윤리는 진정한 관계와 인간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가부장적 사회구조 안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목소리와 관계를 회복해야 하며, 여성의 연대와 유대를 강화해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변혁해 나가야 한다는 여성주의적 배려윤리에로 선회하고 있다(박병춘, 2002: 111-112). 따라서 Gilligan의 연구를 여성적 배려윤리로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Gilligan의 이론을 섣부른 성차 논쟁을 촉발한 이론으로서만 간단히 평가하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일이며, Gilligan의 이론은 전통 도덕 철학 및 도덕심리학에 대한 도전을 가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이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추병완, 2007: 117).

그러나 다수의 국외 연구자들[4]은 남성과 여성의 자아, 도덕성에 대한 개념, 도덕성 발달 경로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관점, 남성은 개별화의 특성이 강하지만 여성은 친밀함의 특성이 강하다고 보는 관점, 남성은 자율성에 기반하여 정의, 공정성, 규칙, 권리의 도덕을 말하지만 여성은 친밀성에 기반하여 소망, 필요, 관심, 열망의 도덕을 말한다는 관점(노희정·홍기대, 2021: 261)으로 성별에 따라 도덕성에 대한 관점을 이원화하려는

---

4) Stack은 Gilligan의 연구가 여성의 도덕 발달 모델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Kerber는 Gilligan이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사고와 행동의 차이를 강조한 결과, 여성의 배려가 남성의 그것보다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고 좋은 것이라는 결론에 닿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Greeno&Maccoby는 Gilligan이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목소리로 도덕을 표현하는 것이 경험적 사실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 주장은 틀린 주장이라 비판하고 있다(Tronto, 1987a: 645).

시도가 Gilligan의 초기 연구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레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Tronto, 1987b: 88)고 보고 있다. 이에, 배려윤리에 대한 여성적 접근, 일반적 접근 사이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보려한다는 구실을 덧붙여 Gilligan의 초기 연구 관점인 여성적 배려윤리의 입장에서의 배려 개념의 기원을 살펴보겠다.

Gilligan은 기존 심리학이 인간 발달을 직선적인 서열화로 설명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독립이 곧 성장이라는 등식을 수용하면서, 인간 삶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독립과 애착이라는 두 개념의 대립이 심리학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다(Gilligan, 허란주 역, 1997: 269)고 말한다. Gilligan은 인간 발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여성의 발달을 배제하여 상호의존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관계 발달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Gilligan은 이러한 연구에 토대를 둔 성인 발달관은 여성의 삶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며, 여성들이 인간관계의 덫에 빠진 것으로 묘사되거나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한 존재로 비추어질 수 있음(Gillgan, 허란주 역, 1997: 276)을 우려한다. 이에 Gillgan은 인간발달을 이해함에 있어 여성의 경험을 포함한다면 인간관계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 얻어질 수 있다고 보고, 무엇이 성인다운 것인가, 무엇이 도덕적으로 성숙한 것인가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졌다는 것(Gilligan, 허란주 역, 1997: 302)을 가정한 뒤에, 청소년기 이후 여성과의 면접을 통해서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해보려고 했다. 그 결과 Gilligan은 초기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를 중심으로 한 남성의 도덕성과 다르게, 여성의 도덕성은 배려와 책임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특히 Gilligan은 Kohlberg의 도덕성 발달론에 대해 직접적인 반박을 시도했는데, 그 대립 구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권리와 정의의 도덕성(Kohlberg)	배려와 책임의 도덕성(Gilligan)
근본적인 도덕적 명령	정의	비폭력 / 따뜻한 배려

도덕성의 요소들	자아와 타인에 대한 권리들, 개별성에 대한 신성함, 공정성, 존경, 호혜성, 규칙/법칙	자아와 타인들에 대한 책임감, 관계들, 따뜻한 배려, 동정심, 조화, 이기심/자기희생
도덕적 딜레마의 본질	갈등을 일으키는 원리들	조화와 관계성에 대한 위협
도덕적 의무의 결정요인	원리들	관계들
딜레마 해결의 인지적 과정	형식적, 연역논리적 사고	귀납적 사고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자아관	분리된, 개별적 자아	연관된, 부수적 자아
정서의 역할	구성요소가 아님	따뜻한 배려와 동정심을 동기화시켜 줌
철학적 지향	합리적, 보편적 정의의 원리	현상학적, 상황적 상대주의

[표 2-1] Kohlberg의 정의의 도덕성과 Gilligan의 배려의 도덕성 비교 (Brabeck, 1983: 274-291)

도표를 통해 미루어 볼 수 있듯 Gilligan은 청소년기 이후 여성들과의 면접을 통해 남성과 달리 여성은 사회적 현실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연결로서 경험함을 발견했다. 또한, 여성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적 삶은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남성과 달리 여성은 상호의존성 및 배려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성숙, 비폭력적인 삶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고 보았다(Gilligan, 허란주 역, 1997: 301). 여성들은 자신들의 정체감을 묘사하는 데에 있어 인간관계의 맥락 속에서 규정하고자 하며, 자신들의 정체감을 배려와 책임의 척도를 통해 측정하려는 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여성에게 자기 평가의 기반이 되는 도덕 기준은 인간관계, 책임, 그리고 배려의 윤리가 되는 것이다 (Gilligan, 허란주 역, 1997: 281-282). 이에, Gilligan은 도덕 발달에 관한 주류 관점이 내포한 남성우월적인 편향성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배려 도덕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 때문에 Gilligan의 초기

연구 관점을 따라 배려 개념의 기원을 좇아보면, 남성과 여성은 정의와 배려로 대표되는 서로 다른 도덕 이데올로기에 따라 도덕 발달의 경로를 거치며 성숙을 향해 간다는 이분법적인 결론에 닿게 된다.

2) 배려와 책임의 도덕성 발달론

앞서도 살펴 보았듯 여성을 위한 배려의 도덕성을 제안한 Gilligan은 Kohlberg의 정의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에 대항하는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인 3수준 2과도기 이론을 내놓는다.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Kohlberg 정의 도덕성 발달 단계			Gilligan 배려 도덕성 발달 단계	
인습이전수준	1단계	벌과 복종 정향	제1수준	개인적 생존 단계
		처벌을 피하고 권력이나 힘을 따르는 도덕성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한 자기중심적 도덕성
	2단계	도구적·상대주의적 정향	첫번째 과도기	이기심에서 책임감으로
		자기 이익과 호혜성에 따르는 도덕성		자기 중심적 이기심을 고려하면서 타인과의 연결을 검토
인습수준	3단계	착한 소년·소녀 정향	제2수준	책임과 자기희생 단계
		타인의 요구와 인정을 따르는 도덕성		사회적 순응과 자기희생의 모성적 도덕성
	4단계	법과 사회 질서 유지 정향		
		규칙, 법, 권위의 체계를 따르는 도덕성	두번째 과도기	선함에서 진리로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책임감을 검토
인습이후수준	5단계	사회 계약적 정향	제3수준	비폭력의 도덕성
		상호 동의와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도덕성		상호의존적 관계의 배려적 도덕성
	6단계	보편적 도덕 원리 정향		
		보편적 도덕 원리를 따르는 도덕성		

[표 2-2] Kohlberg와 Gilligan의 도덕성 발달 단계
(Brabeck, 1993: 34-37)

Gilligan은 Chodorow의 대상 관계 이론에 근거하여 남아는 어머니로부터 분리와 개체화의 경험에 따라서 발달하기에 분리된 자아 이미지를 갖게 되는 반면에, 여아는 어머니와의 유대와 동일시의 경험에 따라서 발달하기 때문에 관계적 자아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조주영, 2008: 110). 따라서 Gilligan은 발달 경로가 남아와는 완전히 다른 여아의 도덕성 발달을 가늠하려 할 때, 남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집대성된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만 여아의 그것을 비추어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단계 중 5단계와 6단계에 도달한 인간은 대부분 남성인 반면, 여성은 대부분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단계 중 3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Gilligan은 여성의 도덕성 발달을 가늠할 수 있는 배려 도덕성 발달론을 제안한 것이다. 이는 여성이 성장함에 따라,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했던 것에서부터 점차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 점차 자신 그리고 타인 모두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게 되고, 결국 상호의존하고 있는 모든 인간 사이의 비폭력적 관계의 구축을 향해 나아가게 됨을 시사한다. Gilligan에 따르면 여성은 자율적, 독립적 개별 주체로서의 삶이 아닌 상호의존적 관계 주체로서의 삶을 지향한다.

이와 같은 Gilligan의 이론은 도덕 이론에서 여성의 삶과 경험을 배제하고 왜곡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한 가지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Gilligan은 모든 사람들의 이해에 대한 평등한 고려로서 불편부당한 이성만이 강조되는 도덕 이론의 풍토 속에서 타인을 위한 정서와 성향, 태도로서의 배려가 여성의 도덕적 관점이며, 남성과 구분되는 변별적 면모임을 경험적으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도덕적 지각, 가치관 그리고 행위성과 책임에 대한 이해를 공감적으로 온전히 대변해줌으로써 남성 편향적인 도덕 이론에 유용한 교정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즉, Gilligan의 저술은 배려윤리, 모성적이고 우정적 패러다임의 도덕적 관계, 상호의존성, 취약성, 신뢰의 상황에서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매우 풍부하고 창조적인 저술들의 출발점(Jaggar&Young, 한국여성철학회 역, 2005: 61, 99)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Gilligan의 도덕성 발달론은 연구방법과 연구결과 모두에 있어 중차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Gilligan의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비판은 Gilligan이 주장한 것처럼 성별에 따라 다른 도덕적 목소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일반화하기에는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서 출발한다(Hekman, 1995: 1). 실제로 Walker는 도덕성의 성차를 연구하기 위해 광범위한 문헌연구를 수행했고, 연구 결과 Gilligan의 주장이 경험적으로 지지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정창우, 2013: 188). Friedman과 그의 동료들 역시도 Kohlberg나 Gilligan의 도덕적 추론 양식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음을 보고하고 있다(박병기, 추병완, 2017: 360). 게다가 Broughton은 Gilligan이 수행한 인터뷰 자료 일부를 검토한 다음에 Gilligan이 자료를 자의적으로 골라낸 증거를 찾아냈고, Gilligan의 연구가 객관성을 상실했음을 폭로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Gilligan의 주장은 그녀가 수집한 경험적 증거들에 비해 과장되어있다는 일반적 합의가 있으며, Gilligan의 쉽고 잘 쓰인 저서들의 상식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은 표본을 일반화하고 반박 증거를 무시했다는 혐의가 덧씌워져 있다(Vozzola, 정창우 역, 2018: 100). 가장 심각한 것은 Gilligan 도덕발달론이 제기된 맥락을 살펴 보았을 때, Gilligan의 연구방법론이 그 자체로 모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다. Gilligan은 Kohlberg의 도덕발달론이 남성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지점을 두고 남성편향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지만, Gilligan의 도덕발달론 또한 중산층 백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이론화 한 지점에서 같은 이유를 들어 계급 편향적, 인종 편향적, 여성 편향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Robinson, 1999: 15-20).

물론 이와 같은 방식의 연구 설계는 Gilligan이 연구에 착수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차에 집중한 탓에 교육적, 경제적 격차와 인종, 민족의 차이가 도덕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Tronto, 1993: 12, 77-91). 그러나 Kohlberg와 마찬가지로 Gilligan은 중산층 백인 여성에 한정하여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그 결과 여성의 도덕성 발달 모델로 제법 설득력 있는

배려의 도덕발달론을 제안할 수 있었지만, 배려의 도덕발달론은 경험적으로 지지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편향과 모순에 사로잡혀 있는 주장일 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Gilligan은 여성의 도덕성 발달 경로는 남성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Gilligan의 방식은 배려를 여성적 성향으로 정의함으로써 여성과 배려를 지나치게 짝짓는 것으로, 도덕적, 정치적, 인식론적 측면에서, 또한 여성 해방의 측면에서 현명한 대응일 수 없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여성이 배려 성향과 태도로 다른 인간이나 대상에 일관할 경우, 여성은 스스로 자아의식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실재에 대한 자신의 시각과 진리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의심하게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Bartky, 1990: 104-109). 이러한 여성에 대한 타인의 지배, 사물의 지배 상황은 여성에 대한 억압과 여성의 희생을 더욱 공고히 할 우려가 있고, 가부장적인 억압 구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연민, 공감, 동정, 양육, 배려와 같은 가치들이 여성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여겨지면서 여성의 희생과 억압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미랑, 2010: 63; 한일조, 2016: 182). 여성의 도덕과 남성의 도덕으로 도덕을 나누어 보려는 시도는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이미 확립되어있는 질서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끝으로 Gilligan은 배려를 단지 일종의 태도나 성향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같은 경향을 비판한 까닭은 배려 주체와 배려 대상을 배려의 실질적, 실천적 관계 속에서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배려 주체의 역할만을 논하는 데에 있다. 배려를 태도나 성향으로서만 간주한다면 배려자의 배려적 성향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의 태도만 중시하게 되어 배려의 상호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Gilligan과 같이 태도와 성향으로서 배려를 바라보는 관점은 실천적, 집단적 관심에 이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단지 지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비판(Tronto, 김희강·나상원 역, 2021: 114)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2. Noddings의 배려윤리[5]와 그에 대한 비판

1) Caring-for와 Caring-about

Noddings는 서구의 전통 윤리학을 남성 중심 윤리학이라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적 윤리학으로서 배려윤리와 배려윤리에 기반한 도덕교육론을 제안했다(Noddings, 1986: 222-223). 따라서 Noddings가 주장하는 배려의 본질은 여성적 경험과 덕성, 특히 모성성, 모성성에서 비롯되어지는 모자녀 관계 안에서 찾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Noddings는 배려를 'Caring-for(친밀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Caring-about(낯선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배려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이다.

그 중 첫 번째, Caring-for는 면대면의 직접적 상호작용 아래에 이루어지는 배려라 할 수 있다(Noddings, 2010: 50). Caring-for는 배려자가 피배려자를 배려해주고, 피배려자는 자신이 배려자로부터 배려받고 있음을 수용함을 뜻한다. 배려하는 동안 배려자의 의식 상태는 전념, 동기적 전치의 특징을 갖게 되며, 피배려자의 의식상태는 배려자의 배려를 수용하고 배려에 반응하는 특징을 갖게 된다(Noddings, 2002: 19). 이와 함께 Noddings는 피배려자가 배려자의 배려를 수용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

---

5) Gilligan과 마찬가지로 Noddings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윤리학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수용한다. 곧, Noddings는 이성, 규칙, 원리, 추상적 사고는 남성적인 것으로, 직관, 감정, 공감, 맥락적 사고는 여성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Noddings는 법과 원칙처럼 남성적 특성을 지배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원칙의 윤리, 그리고 수용성, 관계성, 응답성, 모성성처럼 여성적 특성을 지배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배려의 윤리로 윤리학을 구분하고 있다(Noddings, 1986: 1-3). 한편 Gilligan과 Noddings 사이의 차이점이 있다면, Gilligan은 배려윤리를 경험적으로 연구하면서 주로 심리학적 관점에 초점을 두었다면, Noddings는 이론적인 연구에 초점을 두면서 철학적, 교육학적 관점에서 배려윤리의 정립을 도모한 데 있다(박병춘, 2005: 247).

는 것을 배려자가 주의를 기울여서 파악할 수 있을 때 배려관계가 완성되며, 배려자와 피배려자 중 어느 한쪽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배려관계로 볼 수 없다(Noddings, 추병완· 박병춘·황인표 역, 2002: 157)고 주장한다.

반면, 두 번째 Caring-about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위험에 노출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에 대한 염려로써 이루어지는 배려이다(Noddings, 2010: 50). Caring-about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게는 면대면으로 직접 배려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그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표하거나, 자원을 보존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여 간접적으로 배려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Noddings는 Caring-about에 관한 문제적인 발언을 내놓는다.

"나는 캄보디아의 굶주린 어린이를 배려할 수 있다.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의 굶주림을 덜어주기 위해 5달러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배려하면 어느정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기부한 돈이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를 위한 식량 구입에 사용되었는지, 혹은 어느 정치가를 위한 무기, 캐딜락 구입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를 위한 5달러 기부는 단지 가난한 먼 친척을 배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care about"은 언제나 은근한 무시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정도의 관심, 그런 정도의 열심에는 동의한다. 5달러를 기부하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다른 일들에 매진할 것이다(Noddings, 1986: 112)."

Noddings는 Caring-about을 논하면서 Caring-about의 경우에는 Caring-for와 같이 배려자와 피배려자 사이의 관계를 통해 배려의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어린이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배려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Noddings는 Caring-about을 할 경우 수반될 수 있는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추상적인 지식이나 죽은 지식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 원거리에서 배려할 수 있는 권력과 욕구를 갖고 있을 때 피배려자를 가르치고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Noddings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위한 배려인 Caring-about이 모자녀 관계에서와 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배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 것일 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그의 표현을 완곡히 하고 있다(Noddings, 추병완·박병춘·황인표 역, 2002: 190-199).

Caring-about에 대한 문제적 발언과 그에 대한 변론 과정과 더불어, Noddings는 Caring-about이 지닌 가치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도 하다. Caring-about이 정의와 배려 사이에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인데, Caring-for 한 다음에 Caring-about으로 점차 확장해감으로써 Caring-about이 정의감의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Caring-about은 면대면의 직접 상호작용 아래에 이루어지는 Caring-for 보다 더 넓은 공적 영역에서의 배려의 가능성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론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aring-about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책을 구상할 때 배려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묻고, 배려 관계가 번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의 구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Noddings, 2002: 22-24, Noddings, 2010: 50-51).

정리해보면 Noddings에게 있어 보다 바람직한 배려는 Caring-for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가 아이를 배려하는 것과 같은 Caring-for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에게 기부하는 것과 같은 Caring-about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Noddings에게 있어 Caring-about은 공적 영역에서 배려를 제도화하여 사적 영역에서 Caring-for가 유지될 수 있도록, 확고히 될 수 있도록,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정의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Noddings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Gilligan 초기 연구가 그러했던 것처럼 Noddings의 배려 개념과 그에 따른 배려윤리는 여성의 전통적인 성 역할을 굳건하게 하는 '희생자의 윤리', '노예의 윤리'라는 비판,

예종과 초과 의무 행위를 요구하는 '위험한 윤리학'이라는 비판(심성보, 2014: 174)을 받았다. Noddings가 배려에 대한 여성적 접근으로 자신의 배려윤리를 명명한 것은 여성의 배려하는 삶에 대한 축하와 정당화에 지나지 않는다(Tronto, 1989: 112)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비판을 미루어 보았을 때 Noddings의 배려 개념, 배려윤리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Noddings가 모자녀 관계에 근거하여 배려 개념을 정의하고 배려윤리를 전개한 데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Noddings는 우리가 우리의 아이를 배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아이를 너머 배려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때 보다 윤리적인 행동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직접적인 배려가 닿을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대상에게만 진정 어린 배려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보다 넓은 영역에로 배려의 책임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다.

한편 Noddings가 모자녀 관계를 원형으로 하는 배려 개념을 중심으로 배려윤리를 전개한 위험은 비단 배려를 공적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 사회적 배려 제도나 정책을 수립해야 할 공적 책임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배려자의 일방적인 배려로 인해 발생한 배려자와 피배려자 사이의 권력 불균형으로 불거진 불평등 관계는 배려자와 피배려자 모두에게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Hoagland, 1990: 109-114; 박미랑, 2013: 63). 또한, 모자녀 관계를 원형으로 하는 배려 개념은 배려를 낭만화하며, 배려를 주변화하려는 권력에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마경희, 2010: 326). 이는 Noddings가 어떤 경우든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곧 도덕적 퇴보로 간주하고 있는 모습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Noddings는 자신과 자녀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남편을 죽인 부인을 두고 윤리적 이상을 퇴보, 쇠퇴하게 한 관계의 파괴자로 묘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Hoagland는 Noddings의 주장에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일격을 가한다.

"나는 어떤 관계가 학대적이고 억압적이라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관계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관계를 철회한다고 해도 나는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것이고, 더욱 성장할 것이며, 관계를 철회함으로써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관계에서 나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나는 관계로부터 분리를 선택할 것이다. 나는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나의 윤리적 자아는 결코 쇠퇴하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윤리적 자아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Hoagland, 1988: 73)."

Noddings의 주장을 따르게 되면, 배려의 실천 과정에서 배려하는 자에게 권력이 쥐어져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불평등 문제를 외면하게 됨에 따라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간과하게 된다. 배려자와 피배려자 간의 관계가 배타성과 폭력으로 인해서 억압적 관계로 점철될 수 있지만, Noddings는 배려관계를 모자녀 관계와 같은 관계로 이상화했기 때문에 배려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적 모순과 갈등, 좌절을 애써 회피(Tronto, 1996: 143)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Noddings의 모자녀 관계에 근거한 배려와 그에 기반한 배려윤리는 지나치게 협소하기 때문에 일반적 도덕·정치이론의 초석으로 삼기에는 무리라는 비판이 있다. 모성을 중심으로 한 배려는 부모 역할과 좋은 삶의 특징에 대해 특정 집단, 문화,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Noddings는 개방적, 관용적인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만 호소력이 있는 배려 개념을 내세운 것이 된다(Engster, 김희강·나상원 역, 2017: 54-55). 이와 같은 비판은 Gilligan의 초기 연구 관점이 받아온 비판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Noddings는 모자녀 관계에 근거한 배려, 다시 말해 친밀한 사적 관계에 보다 적합한 배려 개념을 바탕으로 교육적인 관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Noddings의 배려 개념 정의에 따라 제안된 배려의 도덕교육론의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사론에 대한 논의를 살피고자 한다.

2) 배려의 도덕 교육론

배려의 도덕교육론의 교육 목적은 윤리적 이상을 고양시키는 데 있다. 즉, 능력을 갖춘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를 양육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는 지적 능력의 고양보다는 배려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윤리적 이상을 고양시키는 데에 우선성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박병춘, 2010: 118). Noddings는 윤리적,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일에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Noddings는 학교 교육과정이 배려하는 방법 즉,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방법, 친밀한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 낯선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 다른 사람의 배려에 적절히 반응하며 배려를 받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주장했다(Noddings, 추병완·박병춘·황인표 역, 2002: 8). 배려하는 방법, 배려받는 방법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교육내용을 설계하고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Noddings는 윤리적 이상을 고양하기 위한 네 가지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했는데, 모델링, 대화, 실천, 확증이 그것이다(Noddings, 한평수 역, 2007: 251-294, Noddings, 2013: 182). Noddings는 배려하는 능력이 자신들이 배려를 받았던 경험, 자신이 배려했던 경험에 의존하여 발달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Noddings는 모델링을 도덕교육 방법의 유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올려놓는다(박병춘, 2002: 148-149). 학교 도덕교육에서 모델링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모델링은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가리키게 된다. 다시 말해 교사는 학생과의 만남 관계 속에서 자녀를 대하는 어머니와 같은 배려자가 되어야 하고, 배려자로서의 교사는 배려관계를 유지하고 발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교사는 훌륭한 배려자 모델을 생활 속에서 찾아 학생들이 훌륭한 배려자 모델과 자주 접촉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배려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박병춘, 1998: 391-392; 박병춘, 2005: 250, 박병춘, 2010: 119).

Noddings는 대화를 형식적 대화, 영원한 대화, 일상적 대화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도덕교육에 있어서 일상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Noddings가 말하는 형식적 대화는 담론 윤리학과 같은 철학 분야, 혹은 고도로 정제된 논리를 요구하는 분야에서 쓰는 이상화된 대화를 뜻한다. Noddings는 형식적 대화와 일상생활에서의 대화에는 유사점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형식적 대화는 논증을 할 때나 유효한 대화라고 평가한다 (Noddings, 고미숙 역, 2018: 201-207, 224-230). 이와 같은 평가는 학교 교육이 형식적 대화의 효용을 과대평가함에 따라, 도덕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형식적 대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Noddings는 영원한 대화, 전통에의 참여로서의 대화, 쉽게 말해서 참된 삶의 진리, 종교적, 학문적 진리에 닿기 위한 대화를 검토한다. Noddings는 영원한 대화, 전통에의 참여로서의 대화가 갖는 효용을 긍정하면서도 영원한 대화가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을 짚는다. 이에 Noddings는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대화를 통해서 학생의 일상적 필요를 파악할 수 있으며, 보다 두터운 배려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Noddings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학생들이 배려를 실천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정규 교과목을 학습하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Noddings는 학생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할 때 그들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곳들에만 배치하는 것보다 그들의 재능과 적성에 맞지 않은 곳에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교육적인 배려 실천의 경험이 될 수도 있음을 제안한다. 교육적인 환경 안에서 학생들에게 익숙하고 손쉬운 상황이 아니라 낯설고 어려운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타인이 처한 처지와 입장에 다가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이유, 학생이 낯설고 어려운 또 다른 환경 안에서 배려를 실천할 봉사활동 기회를 가짐으로써 배려가

단지 나의 유능함을 강조하는 시혜적 태도나 성향, 실천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확증은 교사가 학생과 형성한 두터운 배려관계를 통해 얻어낸 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식에 기반하여 학생에게 시의적절한 격려를 해줌으로써 학생의 동기를 북돋우는 일을 가리킨다. 즉, 교사가 학생이 가진 능력과 잠재력에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확증이다.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구체적인 교육 방법은 사실 교사가 학생의 삶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학생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학생에게 유의미한 배려 모델이 되고, 학생과 유익한 일상적 대화를 나누며, 학생이 적합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이 동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확증을 해주기 위해서라면, 결국 누구보다 교사가 학생의 삶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든 교육적 실천이 가능하기 위해서 Noddings는 교사가 배려자가 되어야 하며, 학교 제도가 배려 제도로 재조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Noddings는 학교 안에서의 교사의 역할과 책무를 가정 안에서의 어머니의 역할과 책무에 빗대어 설명한다. Noddings는 어머니의 역할과 책무를 먼저 설명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역할과 책무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 있는 음식을 적절하게 제공해주고, 자녀의 옷을 입혀주고, 자녀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아이가 우유를 마실 때마다 우유를 쏟아서 얼굴을 씻겨주어야 하고 옷을 갈아 입혀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더이상 우유를 주지 않는다면 어머니는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있는 것(Noddings, 1986: 179)이며, 어머니는 배려에 실패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Noddings는 교사의 역할과 책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어머니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야 함을 요청하고 있다.

제 2 절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

이 절에서는 인간 삶의 보편적이면서 중심적인 경험으로서의 배려를 강조하며 배려윤리를 공적 담론으로 전환하고 있는 또 다른 연구 양상,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Hankivsky에 따르면 2세대 배려윤리, Sherwin에 따르면 여성주의적 배려윤리 이론을 선도하는 Tronto의 배려윤리를 논할 것이다. 그리고 Collins에 따르면 비(非)-여성주의적 배려윤리에 속하는 Engster의 배려윤리를 논할 것이다.

1. Tronto의 배려윤리

1) 재구조화 된 배려 개념

Tronto는 Noddings의 배려윤리가 정의윤리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윤리라는 대립적 관점에서 논해졌지만, 여성에게 억압적일 수 있는 자연적 배려 개념을 중시했기 때문에 유사 페미니스트적 기제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세부적으로 살피면 Tronto는 Noddings의 여성적 배려윤리가 성차에 천착함에 따라 배려를 여성의 본질적 특성으로 간주하면서 본질주의의 한계에 빠져 여성에게 억압적인 사회적 양식을 강화한다는 문제, 배려의 특수성을 강조함에 따라 상대주의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비판한다. 또한, Noddings의 여성적 배려윤리는 배려가 이뤄지는 범위를 사실상 자신과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친밀한 소수의 사람들로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 배려관계 아래에 촉발된 권력의 불평등 문제와 배려에 필요한 물적 자원의 할당과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실천적 차원에서 배려를 논하지 못했다는 문제(Tronto&Fisher, 1990: 37, Tronto, 김희강·나상원 역, 2014: 86-87)가 있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Tronto는 Gilligan의 초기 연구 관점, Noddings의 여성적 배려윤리가

노정한 한계를 과감히 비판하고 있다.

이에 Tronto는 배려윤리를 성차에 천착한 여성적 배려윤리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여성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취약한 집단, 영유아와 노인, 병약자, 장애인 등과도 함께할 수 있는 여성주의적 배려윤리에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Tronto는 남성과 여성, 정의와 배려, 공(公)과 사(私)를 양극화하지 않는 통합적이고 일반적인 배려윤리,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배려윤리를 제안(노희정·홍기대, 2021: 262-264)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배려 개념을 정의한다.

Tronto는 자신의 배려 개념이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 손을 뻗는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의 배려 개념이 단순히 지나가는 관심이나 상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부담이나 책임을 수용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음을 밝힌다(Tronto, 1989: 102; Tronto, 1993: 102-103). 이는 Tronto가 배려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자신의 배려 개념이 '손을 뻗는다, 책임을 수용한다, 행동 및 실천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배려 개념이 단지 성향이나 태도의 차원뿐만 아니라 실천의 차원도 포괄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Tronto가 실천으로서의 배려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배려윤리가 단지 개인적인 태도나 성향을 이끄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배려윤리가 정치·사회적 세계의 변혁을 이끄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담겨 있다. 다시 말해 배려윤리가 사적 인간 관계에 국한된 윤리로 기능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되고, 부정의한 사회 구조를 변혁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박미랑, 2013: 64-65). Tronto는 결국 도덕적 가치가 실현되면 정치적 이상 또한 실현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환상으로부터 벗어나, 배려의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배려를 권리, 법, 제도와 상보적인 결합 관계에 위치지움으로써(이숙정, 2008: 154) 배려의 제도화, 정책화를 추구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Tronto는 그의 동료 Fisher와 함께 배려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장 일반적 수준에서, 배려는 우리가 가능한 한 이 세상에서 잘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을 바로 잡고, 지속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종(種)적 활동이다. 이 세상이라 함은 우리의 몸, 자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포함하며, 생명 유지의 그물망 안에 복합적으로 엮인 모든 것을 포함한다(Tronto&Fisher, 1990: 40, Tronto, 1993: 103, Tronto, 김희강·나상원 역, 2014: 67)."

이와 같은 개념 정의와 함께 Tronto와 그의 동료 Fisher는 자신들의 배려 개념이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고 있음을 말한다. 첫째, 삶을 바로 잡고, 지속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배려는 여성보다 남성이 이 세상을 지탱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으며, 배려하는 것보다 집을 짓는 것이 지구상에서의 삶을 바로 잡고, 지속시키고, 유지시키는 데에 보다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둘째, 인간의 배려 필요는 역사, 문화, 계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삶을 바로 잡고, 지속시키고, 유지시키는 데에 필요한 것에 관한 보편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셋째, 역사, 문화, 계급의 차이가 배려의 내용, 정의, 분배, 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배려의 과정이 우아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충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Tronto&Fisher, 1990: 40)이다.

Tronto와 그의 동료 Fisher의 배려 개념이 가진 의의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살피면, 첫째, 타인과 면대면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해야만 배려라는 협소한 개념 정의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 즉, 제도 및 정책에 의한 배려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는 Noddings가 모자녀 관계에 근거하여 Caring-for와 Caring-about을 구분하고, Caring-for가 배려의 원형이라면서 Caring-about의 가치를 주변화한 것과 구분된다. 둘째, 배려가 모자녀 관계에 근거하여 이원적 관계 혹은 개인적 관계 아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즉, 배려를 모성주의적 접근에 근거해 정의함으로써 배려가 정치·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다. 셋째, 배려를 사회·문화적으로 서로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함으로써 배려가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때에는 배려가 사회나 문화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겠지만 배려가 인간 삶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요소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넷째, 배려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성향이자 실천이다. 즉, 배려는 단순한 지적 관심사나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살아있는 적극적 인간의 실천적인 도덕적 고려로 설명될 수 있다(Tronto, 1993: 103-110). 이와 같은 방식으로 Tronto는 배려 개념을 여성적인 것도 남성적인 것도 아니며, 인간적인 것으로 재구조화하려 한 것(Tronto, 2005a: 142)이며, 배려가 모든 인간의 삶에서 일반적, 보편적 요소로 자리매김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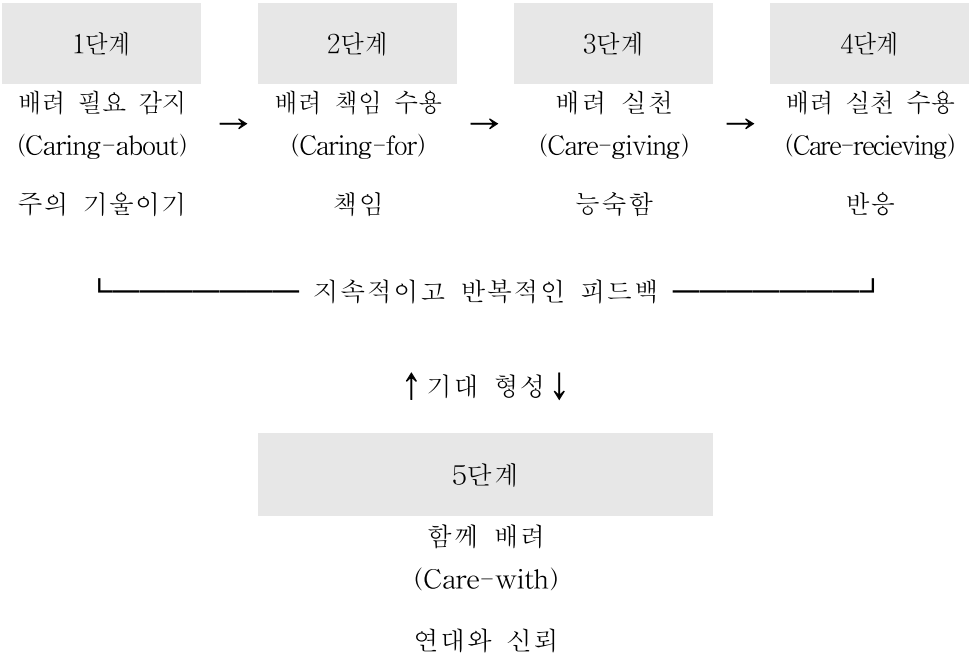
한편 이와 같은 배려 개념 정의는 배려의 실천적 의미를 담아내기에 충분한 외연을 갖지만, 그 외연이 너무나도 광범위하여 도덕·정치이론의 전개 지침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배려 개념이 광범위하게 정의될 경우, 도덕적, 정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사항을 명확히 제시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Held, 김희강·나상원 역, 2017: 70). 물론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Tronto는 지금까지 배려를 주변화하여 소홀히 여겨 온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비판에 불과하다면서 자신의 배려 개념이 갖는 넓은 외연을 옹호한다. 따라서 Held의 비판에 대한 Tronto의 재반박에 동의할 수 있다면, Tronto와 Fisher의 배려 개념은 모자녀 관계를 원형으로 간주하지 않더라도 배려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취함과 동시에, Noddings를 위시한 여성적 배려윤리가 지닌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ronto와 그의 동료 Fisher의 배려 개념은 서구 사회에 만연한 배려에 대한 이해[6]에 균열을 냄으로써 배려를 인간 삶의

6) Tronto는 배려가 정치적 영역에서 비중 있게 인식될 가능성을 차단한 두 가지 사유가 있다고 분석한다. 첫째는, 배려가 비좁고 편협한 개인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넓고 공정한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이전(pre-political)에 존재해야 할 것으로 간주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사유이다. 둘째는, 배려를 인류에 대한 거룩한 사랑으로 이상화하여 정치와 동떨어진(a-political) 개념으로 여기는 유대기독교적 사유이다(Tronto, 1996: 139-142).

필수불가결한 중심적 지위에로 격상했다. 그렇기에, Tronto와 Fisher의 배려 개념은 배려가 정치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의미한 개념으로 탈바꿈되기 위한 초석이 된다. Tronto와 Fisher는 배려를 정치적, 사회적 삶의 가운데로 옮겨놓음으로써 인간 본성과 도덕·정치이론의 주류적인 관점에 도전하고 정치적, 사회적 이상에 대한 변혁을 기하고 있다.

2) 배려의 5단계

Tronto는 분석적으로는 분리가능하지만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때로는 파편화되어 서로 충돌할 수도 있는 배려의 실천을 5단계로 분석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Tronto&Fisher, 1990: 40-46; Tronto, 1993: 105-108; Tronto, 1996: 143; Tronto, 김희강·나상원 역, 2021: 72-73, 92-96; Tronto, 2015: 3-16; Tronto, 2015b: 27-28).



[그림 2-1] Tronto 배려의 5단계

첫 번째 단계는 'Caring-about'이다. 이 단계는 배려 필요를 인식하고, 감지하고, 판단하는 단계다. 이때 Caring-about의 대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 포함되는데, 이 세상을 Caring-about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필요를 인식, 감지,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일시적일지라도 자신의 이해타산보다 배려가 필요한 대상의 처지를 진정으로 살필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도덕적 자질[7]인 '주의 기울이기(attentiveness)'가 요구된다. 주의 기울이기라는 도덕적 자질의 기준에서 보면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다른 대상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은 도덕적 실패가 된다. 그러나 Tronto는 다른 대상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 녹록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다른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도덕적인 성취에 한발짝 다가선 것이라 주장한다. 주변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목표, 야망, 삶의 계획을 잠시 미루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변 대상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돌본 이후에, 자신의 욕구, 욕망을 비워 주변 대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상태, 의지가 부재한 상태를 요구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Taking Care of', 혹은 'Caring-for'[8]인데, 이 단계는 배려 필요에 대한 책임을 짊어짐으로써 배려 대상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다. 따라서 배려 대상이 이 세상일 경우, 이

---

7) Tronto는 단계별로 요구되는 도덕적 자질을 논하면서도, 덕윤리적 접근에서 배려윤리를 이해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을 논한다. Tronto는 덕윤리적 접근에서 배려윤리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첫째, 윤리를 더 일반적인 관심사로 만들기보다 도덕적 엘리트들의 관심사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둘째, 배려관계에서 피배려자의 실천적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배려자의 실천적 역할이 지닌 중요성만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셋째, 배려관계 아래에 형성되는 권력의 역학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이는 Tronto를 위시한 2세대 배려윤리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Noddings를 위시한 1세대 배려윤리 연구자들 또한 경계하는 바이다.

8) Tronto의 저서 *Moral Boundaries*에서는 'Taking Care of'라는 표현을, 또 다른 Tronto의 저서 *Caring Democracy*에서는 'Caring for'라는 표현으로서 두 번째 단계를 명명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두 표현을 모두 싣기로 한다.

세상을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에 대한 모종의 책임을 질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자질은 '책임(responsibility)'인데,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뒤 그것을 충족시킬 책임을 맡는 것을 의미한다. Tronto는 책임을 '의무'와 비교하면서 철학적, 정치적으로 고안된 의무가 아닌 사회·문화적으로 발생한 책임을 배려의 동력으로 삼음으로써 배려의 사회·문화적 적절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Tronto는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맡아야 할 책임을 다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배려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정치적 전통에서 의무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책임의 가치를 격상시킨다.

세 번째 단계는 'Care-giving' 단계인데, 이 단계는 실질적인 배려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만약 배려의 대상이 이 세상일 경우에는, 이 세상을 위한 구체적인 일들, 이 세상을 바로잡고 유지시키는 실제적인 일들을 하는 단계가 된다. 이 단계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자질은 '능숙함(competence)'인데, 배려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노하우로 변화하는 배려 필요에 대응하여 지속적이고 밀도 있는 배려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Tronto는 배려 실천 과정에 있어 필요한 자질에 능숙함을 포함하는 것은 배려윤리를 도덕적 결과주의와 일치시키는 것과 다름 없음을 주장한다. 또한, Tronto는 관료제 정부 조직이 배려 실천을 금전적 지원과 동일시하는 것은 진정한 배려 실천이 아니며, 배려 실천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배려 실천의 최종 결과에는 관심이 없는 무심한 배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배려를 실천했다 하더라도, 배려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지속적, 계속적인 반성과 성찰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네 번째 단계는 'Care-recieving' 단계인데, 배려 필요에 따라 배려를 받은 대상이 배려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단계다. 이 때에도 배려 대상이 이 세상일 경우에는, 이 세상을 위한 배려 실천이 낳은 결과에 반응하여 또 다른 배려를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가 된다. 한편 이 단계에서 요구하는 도덕적 자질은 '반응(responsiveness)'이다. Tronto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나를 미루어 타인을 헤아려보는 입장채택을 하는 것과 타인의 요구 그 자체에 근거하여 적절한 배려적 반응을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임을 논하면서, 반응이 입장 채택보다 타인이 필요로 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음을 주장한다.

Tronto는 이와 같은 배려의 4단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드백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모두가 배려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말한다. 이는 인간의 삶에서 배려를 필요로 하는 결핍한 때와 배려를 필요로 하지 않는 풍요로운 때가 있고, 그러한 가변적 필요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 수준에서 분배함으로써 필요 충족의 균형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배려의 다섯 번째 단계인 'Care-with'의 기초가 된다. Care-with는 일반화된 수준의 배려가 아닌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민주적인 배려를 고려하기 위해서 제안된 단계이다. 따라서 Care-with는 배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식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 평등, 자유에 대한 민주적 기여와 일치해야 함을 함의한다. 한편 이 단계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자질들은 신뢰와 연대, 복수성, 의사소통, 존경과 같이 모든 시민들의 더불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 자질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Tronto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연대(Solidarity)'와 '신뢰(Trust)'인데, Tronto는 배려를 주고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타인이나 제도에 기댈 수 있다는 안정감으로부터 신뢰를 형성할 수 있으며, 배려를 주고받음에 있어 우리가 타인이나 제도와 함께한다면 이전보다 나은 배려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때 연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우리가 동료 시민들의 필요를, 동료 시민들이 우리의 필요를 배려하는 배려의 연속적, 지속적 과정을 통해서 신뢰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 모두가 정치,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서로를 배려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동반자임을 인식하여 연대감을 깊게 해야함을 말한다. Tronto는 배려의 5단계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배려를 주고받는가라는 정치적 삶에서의 기본적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고 있다. 또한,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이상에 다가설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2. Engster의 배려윤리

1) 외연을 조정한 배려 개념

Engster는 배려를 일종의 미덕으로서, 즉 배려자의 내적 특성, 심성, 동기에 초점을 두어 개념 정의(초기 Gilligan식의 접근)할 수도 있지만, 최근의 배려 이론가들은 배려를 실천과 행동을 중심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와 더불어 Engster는 실천과 행동을 중심으로 앞서 정의된 배려 개념은 모성주의적 개념 정의(Noddings, Ruddick, Held식의 접근)와 일반적 개념 정의(Tronto식의 접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말한다. 한편 Engster는 배려에 대한 모성주의적 개념 정의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적 삶에 적합한 개방, 관용, 애정을 품은 개인을 육성하는 것이 이상적인 부모 역할이라는 가정을 수용했을 때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도덕과 정치 이론의 초석으로 삼기에는 중대한 흠결이 있고, 배려에 대한 일반적 개념 정의도 배려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외연이 지나치게 넓어 도덕과 정치이론에 어떠한 전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점에서 흠결이 있음을 짚는다(Engster, 김희강·나상원 역, 2017: 51-58). 즉, Engster는 Noddings 식의 협소한 배려 개념과 Tronto 식의 광범위한 배려 개념이 도덕과 정치 이론에 어떤 함의를 갖기 위해서는 적정한 외연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Engster는 기본적으로 Tronto와 마찬가지로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 아래에서 배려 개념을 정의하되, 그 외연을 축소한 배려 개념을 제안한다. Engster가 제안한 배려 개념은 다음과 같다.

"배려는 생물학적으로 긴요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인 역량을 발달시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사회 안에서 생존, 발달, 기능할 수 있도록 직접 돕는 모든 것이다." (Engster, 2007: 28-29).

Engster의 배려 개념은 생명유지에 긴요한 생물학적 필요의 충족, 기초적 혹은 내재적 역량의 발달, 불필요한 고충과 고통의 완화라는 세 가지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Engster, 2005: 51-54) 이는 Tronto가 제안한 배려 개념에 비해 비교적 좁은 외연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령, 집 짓는 일과 같은 일을 하는 건설 노동자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 Tronto는 건설 노동자가 배려를 실천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Tronto는 건설 노동자가 집 짓는 일을 하는 목적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건설 노동자가 집 짓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가능한 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있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Engster는 건설 노동자가 표면상 배려를 실천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집 짓는 일을 하는 목적이나 의도를 살펴보았을 때 배려를 실천했다고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집 짓는 일을 하는 건설 노동자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집 짓는 일에 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 Tronto의 배려 개념에 비해서 Engster의 배려 개념은 무엇이 배려이고, 무엇이 배려가 아닌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확보한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 Tronto는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배려 개념의 외연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배려 실천으로 이동해감에 따라 배려의 의미 또한 보다 구체적인 맥락과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축소할 수 있다면서 우려(Tronto, 2015b: 27)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서 Tronto와 Engster가 배려에 대한 개념 정의를 통해 강조하고자 한 바는 배려를 취약한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며, 모든 인간의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실천이자 가치로 규정하고자 한 것(김희강, 2018a: 219)이라고 볼 수 있다.

Engster는 배려 실천이 세 가지 목적의 충족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고, 배려 실천 과정에서 세 가지 덕목이 동반될 때, 완성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 때의 세 가지 덕목은 주의 기울이기(attentiveness), 응답(responsiveness), 존중(respect)을 지칭한다(Engster, 2005: 54-55,

Engster, 김희강·나상원 역, 2017: 65-66). 배려는 배려자, 피배려자 모두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임해야 함을 전제로, 배려자는 피배려자의 의식 상태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고, 피배려자는 배려자의 배려에 적절한 응답을 보이며 배려자와 함께 배려의 실천을 조정하면서 관계를 쌓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는가 하면 Engster는 배려를 실천하는 방법에는 최소한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첫째는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거나, 타인의 기본적 역량을 함양해주거나, 타인의 고통을 완화하는 일에 임함으로써 배려자가 직접 배려하는 것이다. Engster는 이 같은 배려가 개인적 배려(personal care)의 전형이라 평가한다. Engster가 주장하는 두 번째 배려 방법은 배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 자원이나 지원을 배려자가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필수적인 자원이나 지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것을 조달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배려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배려 방법은 배려자의 심성이나 성향, 바꾸어 말하면 배려자의 선의(善意)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배려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려의 방법은 개개인의 배려자가 배려함으로써 배려 관계가 시작되는 양상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번째 배려 방법은 앞선 방법들과는 사뭇 다른 방식의 배려 방법이다. 배려를 실천하는 세 번째 방법은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거나, 타인의 기본적 역량을 함양해주거나, 타인의 고통을 완화해주어 타인이 가능한 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제도 및 정책을 통해 집단적으로 배려하는 방법(Engster, 2005: 57; Engster, 김희강·나상원 역, 2017: 73-74)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배려 제도 및 정책을 통해 집단적으로 배려한다는 것은 배려를 공적 영역의 핵심적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는 요청이자,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신뢰와 연대 속에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배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뒤집어 보면 배려 제도 및 정책을 통해 집단적으로 배려한다는 것은 배려를 개인적 영역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규정하면서, 순전히 개인,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게 배려해야 할 책임을 떠넘겨 온 관습과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주장

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이, Engster가 배려 제도 및 정책을 통해 집단적으로 배려를 실천해야 한다고 한 것은 Tronto의 Caring with, Noddings의 Caring-about, Kittay의 Doulia[9]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Engster는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 의한 제도 및 정책으로 집단적인 배려를 실천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존재함을 주장한다. 첫째는 오직 정부 혹은 정부와 같은 실체만이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모종의 기본적 필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안전과 안보, 환경과 공공재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가 사회 곳곳에서 효과적으로 충족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즉, 정부나 국가는 자칫 우리의 배려 책임이나 실천이 닿기 어려워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 우리가 배려를 했음에도 더 많은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배려를 제공할 수 있는 권위와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모든 사람이 집단적인 배려를 위한 공정한 몫에 기여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즉, 정부나 국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도덕적 의무인 타인을 배려하는 일을 모종의 이유들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정한 과세제도를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Engster, 김희강·나상원 역, 2017, 129-133).

---

9) Doulia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의존인인)아기를 낳은 (의존노동자인)산모를 도왔던 하인이나 노예를 지칭한 'Doula'의 역할을 유추적으로 확장한 원칙이다. 즉, Doulia 원칙은 우리가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려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타인-의존노동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 타인-이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이다. Kittay는 Doulia가 배려를 사적 조건으로부터 공적 개념으로 전향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또한, Kittay는 Doulia를 통해 우리가 (사회의) 일부이며 우리가 의존하는 보다 큰 사회적 구조를 지향하는 호혜성의 순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Kittay는 Doulia가 복지의 근간을 제공할 것이며, 배려자(의존노동자)가 피배려자(의존인)에 대한 배려책임을 진 것처럼 보다 큰 사회는 배려자(의존노동자)의 안녕을 책임지고 배려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줄 것이라고 역설한다(Kittay, 김희강·나상원 역, 2016: 198-202, 238-239).

2) 배려의무론

Engster는 전통적 자연법 사상이 목적론적 세계관 아래에서 생물학적 조건을 운명으로, 차이를 계층으로 번역하여 배려윤리 이론가들로부터 외면받았음을 지적한다. 전통 자연법 사상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열등하여 가사노동에나 적합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Engster는 배려윤리와 전통적 자연법 사상이 인간 존재의 사회적 본성을 강조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 사이의 관계와 같은 개인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정의론의 모델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점이 있음에 주목한다. 또한, Engster는 배려윤리와 전통적 자연법 사상이 사람들 간의 공정한 관계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인의 특정한 필요, 관심, 특성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따라 실제적이고 상황적인 도덕성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진단한다. Engster는 배려윤리의 역할은 단순히 자유주의에 기반한 정의론을 보완하는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배려윤리만의 독특한 제도정치론을 생성함으로써 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Engster는 배려윤리만의 독특한 제도정치론의 근간으로서의 배려 자연법 이론(caring natural law theory)을 제안한다(Engster, 2004: 122-123).

Engster의 배려 자연법 이론이 전통적 자연법 사상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배려 자연법 이론이 전통적 자연법 사상처럼 인간 본성과 도덕적 의무에 대한 형이상학적 정당화로 인간과 도덕을 특별한 지위에 올려놓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배려 자연법 이론은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추상적 개념에 의존하기보다 인간을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배려에 의존하는 상호주관적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에 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타인의 배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 사회 또한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배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Engster는 자연법의 근간으로 기본적인 배려의 실천을 내세우면서, 배려 자연법 이론의 제도적 원리에 기초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모든 인간의 삶은 불가피한 의존을 배태할 수

밖에 없다는 것과 세상을 유지하고 재생산함에 있어 배려가 중심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자신과 타인을 위한 가치로서의 배려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을 것(Engster, 2004: 128-133)이라고 예측한다.

이와 같은 Engster의 배려에 대한 의무론적 구상은 의존성의 어법에 따라 쓰인 배려의무론(Engster, 2005: 57-65; Engster, 김희강·나상원 역, 2017: 74-102)을 통해 보다 명료해진다. Engster는 자기이해를 따질 수 있는 이성적 사려의 가능성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의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와 공정성의 원칙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의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의 결점을 지적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배려자로서 배려할 의무는 최소화하는 반면 피배려자로서 배려받을 권리만 최대화 할 수도 있다는 것과, 배려자로서 배려해야 할 의무가 배려자와 직접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심신이 온전한 사람에게만 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에 Engster는 자율성과 목적론적 행위에 근거한 도덕이론을 원형으로 느슨하게 모델화된 Gewirth의 의무론을 인간의 의존성과 배려필요로 재구조화함으로써 그 결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Engster, 2005: 61-62; Engster, 김희강·나상원 역, 2017: 87-89).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Engster, 2005: 63-64; Engster, 김희강·나상원 역, 2017: 90-95; Engster, 2019: 110).

(1)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존, 발달, 기능, 고통 회피에 좋음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2) 모든 인간은 적어도 삶의 일부 단계에서 만큼은 자신의 생존, 발달, 기능, 고통 회피를 이루기 위해 타인의 배려에 의존한다.
(3)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적어도 암묵적으로 배려를 필수적인 좋음이라고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이 필요로 할 때 타인에게 배려를 요구할 수 있다. 즉,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러한 좋음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의존 단계에 있을 때, 우리는 좋음에 이를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타인에게 배려를 요청할 수 있다.

(4) 타인이 배려를 필요로 할 때, 심신이 온전한 인간은 그들 자신의 배려의무에 따라서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마땅히 배려해야 한다. 즉, 배려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인간이라면, 배려를 필요로 하는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은 일관된 도덕적 의무이다.

(5) 우리 모두가 타인에게 배려를 요청할 때 (4)와 같은 도덕 원칙을 따랐기 때문에, 타인이 우리 모두에게 배려를 요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항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타인을 배려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대단한 위해가 주어지지 않거나, 우리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거나, 타인에 대한 우리의 배려할 여력이 소진되지 않는다면, 타인을 배려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Engster는 의존성의 어법으로 배려의무론을 구축할 경우, 자칫 배려의무가 삶의 전 단계가 아닌 삶의 특정 단계에서 국소적으로만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Freidman의 비판과, 타인으로부터 배려 받음으로써 의존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인간은 단지 배려를 필요로 하는 타인을 배려해야 할 불완전한 의무를 지고 있다는 Miller의 비판을 수용한다. 이에 Engster는 인간은 언제든 병들거나 늙거나 장애를 입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신체적으로 취약함을, 인간은 언제든 사회 제도나 문화 규범과 같은 사회 환경에 의해 위해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함을 주장하면서, 배려의무론을 취약성의 어법에 따라 재구조화한다. 이를 통해 Engster는 모든 인간 존재는 항시적인 취약성을 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배려의무를 삶의 특정 단계에서 삶의 전 단계로 확장해야 한다는 비판과 배려의무를 불완전한 의무에서 완전한 의무에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취약성의 어법에 따라 재구조화 된 배려의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ngster, 2019: 111).

(1)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존, 발달, 기능, 고통 회피,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간섭이나 지배 없이 자신이 추구하는 프로젝트나 계획을 실행할 기회, 존중의 방식으로 대우 받음에 좋음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2) 모든 인간은 주로 인간 행동으로 인해 이러한 좋음의 일부 혹은 전부에 이르지 못하는 데에 있어 취약하며, 이 취약성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타인에게 의존한다.

(3)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적어도 암묵적, 규범적으로 다양한 해악과 손실, 필요와 질병에 대한 자신의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배려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질서정연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배려를 요청하는 일상적 행위를 통해 이 원칙에 대한 약속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4)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인간은 우리가 다양한 해악과 손실, 필요와 질병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내세워야 한다. 암묵적으로, 우리는 배려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인간이라면 모두 자신의 자기 본위적 욕구(self-interested desire)와 일치하는, 즉 다양한 해악과 손실, 필요와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으로서의 배려를 해야 함을 주장할 수 있다.

(5)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취약성을 완화하고자 암묵적으로 이와 같은 도덕 원칙을 따랐기 때문에, 타인이 자기자신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배려를 요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인식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Engster는 우리 모두가 인간 내적 요인과 인간 외적 요인에 따른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짚으며, 우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배려의 보편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제 3 절 정의와 배려의 관계

이 절에서는 배려 이론가들이 정의와 배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논함으로써, 배려 이론을 어떠한 맥락에서 공적 담론으로 전환해가고자 하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배려윤리에 대한 여성적 접근에서 배려와 정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 Gilligan, Noddings, Ruddick, Held의 입장과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서 정의와 배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 Kittay, Tronto, Engster, Robinson의 입장을 논하고자 한다.

1. 여성적 접근에서의 관계

1) 정의와 양립하면서 상보를 추구한 배려

정의와 배려 사이의 논쟁을 촉발한 배려 이론가는 Gilligan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Gilligan은 Kohlberg의 정의와 권리의 도덕성 발달론이 지닌 남성편향성에 도전하면서 배려와 책임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Gilligan은 정의와 배려 중 어느 한쪽의 도덕성을 선택해야 한다거나 정의가 배려에 혹은 배려가 정의에 우선한다고 보지 않았다. 또한 Gilligan은 자신의 이론은 도덕성 발달에서 드러나는 성차를 강조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의와 배려의 두 가지 도덕적 정향이 있음을 밝히려 한 것뿐이라는 입장(Gilligan, 1986: 210)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Noddings와 Held가 Gilligan의 주장을 강화함으로써 배려 이론의 입지를 다지려 한 나머지 배려를 모성 이데올로기의 굴레에 빠지게 한 행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 Gilligan은 성차를 떠나서 정의와 배려라는 두 가지 도덕적 정향이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Gilligan의 이론을 대표하는 『다른 목소리로』에서 Gilligan이 정의와 배려의 관계를 서술한 부분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성인발달에 대한 기존 이해와 여성발달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결합을 거쳐 비로소 인간 발달에 대한 변화된 이해와 인간 삶에 대한 더욱 생성적인 관점이 가능해질 것이다(Gilligan, 허란주 역, 1997: 281-282).

따라서 청년기를 특징짓는 정체감과 친밀성은 정의와 배려라는 상이한 도덕관을 통해 표명되지만, 행위자가 도덕적 성숙에 이르면 이들이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Gilligan, 허란주 역, 1997: 289-290).

인간발달이 정의와 배려, 권리와 책임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변증법적으로 이루어짐을 인식하는 것은, 연결된 두 개의 상이한 경험 방식이 나름대로 진실됨을 인정하는 것이다(Gilligan, 허란주 역, 1997: 304).

Gilligan은 그간 묵시적으로 배제되어 온 여성들의 발달을 인간발달에 포함함으로써 인간발달에 대한 지평을 넓힐 수 있음을 강조했을 뿐이다. 또한 남성의 도덕성 발달과 여성의 도덕성 발달이 변증법적 상호보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양립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Gilligan은 정의와 배려가 상호보완의 관계에 놓이는 도덕적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 불평등한 배려관계의 당사자 모두가 관계의 불평등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과 어떤 관계에 폭력이 개재될 때 그 폭력은 관련된 모두에게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Gilligan, 허란주 역, 1997: 304)고 덧붙임으로써 정의의 역할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Gilligan은 자신의 연구가 여성의 억압을 합리화하는 데에 사용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Gilligan은 남성의 삶과 발달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전통적인 심리학 연구들은 자신이 창조한 발명품이 아니라는 말을 남기고 있다. 종합해보면 Gilligan의 연구 결과는 단지 두가지의 서로 다른 도덕적 정향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 것이며, 인간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의만이 아니라 배려에도 정의와 같은 수준의 주목도가 필요함을 주장한 것(Gilligan, 1986: 214)이 된다.

2) 정의와 대별하면서 우선을 추구한 배려

배려와 정의 사이의 논쟁은 Gilligan이 Kohlberg의 도덕성 발달론이 여성을 배제한 채 구축되었음을 비판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이 논쟁에서 여느 배려 이론가보다 급진적 관점에서 정의와 배려의 관계를 설정한 배려 이론가는 Noddings, Ruddick, Held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이론가들은 여성성, 젠더를 배려적 사고의 인식론적 기반이라고 보면서 (Sevenhuijsen, 1998: 70), 배려가 정의를 대체하여 홀로 설 수 있다거나 (Tronto & White, 2004: 428), 배려가 정치, 사회적 제도를 재구조화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Tronto, 2006a: 428)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Noddings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나는 모호하고 불안정한 원칙의 윤리를 거부할 것이다. 원칙은 예외를 내포하고 있어 우리를 서로 간에 분리시키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소중한 원칙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인식할 때, 우리는 위험할 정도의 독선적 태도로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할 우려가 있다(Noddings, 1986: 5).

이와 같은 Noddings의 주장은 배려의 원칙이 일반적으로는 표현되지 않고 원칙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을 정의의 원칙과 동일시하는 일반적인 실수에서 기인한 것처럼 보이지만(Clement, 1996: 79), 사실상 정의를 배려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물론 Noddings의 주장 전부를 초기 저작 내용 중 어떤 일부 부분이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Noddings는 도덕교육에서 인지를 배제하면 활기를 잃어 병적인 감상에 빠지게 되고, 정의적인 요소를 배제하면 이기적이거나 무감각한 합리주의에 빠지기가 쉽다고 주장(Noddings, 1986: 171)함으로써 인지와 정의를 배려에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정창우, 2004: 337-338)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Noddings는 도덕 이론의 모든 것을 배려로 축소하려는 시도는 오류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자신은 정의를 배려로 축소할 의도가 없었음을, 정의와 배려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 정확히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Noddings, 1990: 120)을 스스로 고백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oddings의 주장에 대한 주요한 비판은 Noddings가 원칙을 거부함으로써 정의를 사실상 유기한 것(Tronto & White, 2004: 428)이라거나, Noddings는 원칙을 거부했지만 배려자 딜레마에는 정의에 대한 고려가 이미 함축되어 있다는 것[10], 배려자의 부담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11](Bubeck, 1995: 199-208)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는 Noddings가 초기 저작에서 배려가 본질적으로 비원칙적이며, 가깝거나 친밀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배려가 정의를 대체하는 환원적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주장한 것에서 비롯된 비판이다. 그러나 2절에서 살펴보았듯 Noddings는 *Starting at Home* 이후 저작에서 Caring-about의 가치를 제고하고, Caring-about이 보다 넓은 제도적 차원에서의 배려 가능성을 열어주어 정의론과 정의감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Noddings, 2002: 22, Noddings, 2010: 50)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향적 입장을 취했다. 그렇기 때문에 Noddings가 정의와 배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단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Noddings 이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초기의 저작에서 정의와 배려의 관계에 관한 주된 논지는 정의와 배려를 대별하면서 배려의 독자성을 구축하려 한 것에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며, 그러한 논지에 따른 동료들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후기의 저작들에서는 정의에 대해 이전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0) Noddings는 배려가 본질적으로 무원칙적인 것이며, 가깝고 친밀한 사람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가깝고 친밀한 사람 A와 B의 필요 중 누구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인가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에는 이미 해악 최소화의 원칙과 같은 원칙적 사고를 내포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11) Noddings는 배려자가 가중된 배려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은 윤리적 이상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며, 스스로를 돌봄으로써 다시금 배려에 임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만약에 어느 한쪽 성별, 인종, 계층 등에 배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은 일종의 분배적 정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뜻한다.

다음으로 Ruddick은 모성성에 기초한 평화의 정치학을 제안(Ruddick, 1980; Ruddick, 1983; Ruddick, 1985)함으로써 배려윤리의 공적 중요성을 제기한 첫 번째 배려 이론가라 할 수 있다. Ruddick은 Noddings의 초기 입장과 같은 방식으로 정의와 배려의 관계를 설정했다. Ruddick의 정치학은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성적 사유로부터 비롯된 모성적 배려와 보살핌, 돌봄 실천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는 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Ruddick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평화 그 자체는 평화 운동가와 어머니에게는, 연결적 사랑에 의존하는 것으로 상정될 수 있다. … 공적인 평화로움에 개입하고 있는 어머니가 집단적인 평화 중재의 노고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 … 평화 중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어머니 역할을 하는 개개의 여성과 남성이 모성적 능력을 평화 활동에로 가져오는 데 가장 적격인 사람들이다. … 어머니 역할을 통해서 그녀는 평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며 전쟁을 반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녀는 전쟁의 목표와 전략과는 상반되는 관행을 표방한다 (Ruddick, 이혜정 역, 2002: 345).

물론 Ruddick은 모성의 강조가 편협성과 지배의 논리로 이어져 자칫 군국주의적 요소들을 담지하여 정의로운 전쟁에 활용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Ruddick은 여성 저항의 정치학과 페미니스트 정치학(Ruddick, 이혜정 역, 2002: 347-377)을 제안했지만, 이것 역시 평화적인 모성의 실천을 위한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즉, Ruddick은 정의를 배제한 배려의 독자적 힘만으로 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Noddings, Ruddick과 마찬가지로 배려적 사고에 여성성, 젠더를 연관시킨 Held의 입장을 살펴보겠다. Held는 Noddings, Ruddick이 그러했던 것처럼 배려의 독자성, 독립성을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관계를 설정했으며 일관된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위해 Held는 배려가 가장 근원적, 기본적 가치라면서 배려를 드높인다.

배려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이다.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천으로서의 배려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존속할 수 없다. 타인에 대한 일정한 배려의 관심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도덕성도 있을 수 없다. 이러한 필요조건은 경험적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배려라는 도덕적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만족할 만한 도덕 이론을 갖지 못할 것이다(Held, 김희강·나상원 역, 2017: 146).

배려를 근원적, 기본적 가치로 격상시킨 Held는 정의가 사회 제도의 제 1 덕목이라는 Rawls의 주장에 정면으로 논박을 시도한다.

만약, Rawls의 정의가 사회 제도의 제 1덕목이라는 주장을 법 제도에 적용한다면, Rawls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사회 제도는 단지 법 제도, 법의 제정과 법의 집행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가족 심지어 경제 제도에 Rawls의 주장을 적용하려 한다면, 반문의 여지가 다분하다. 우리가 다른 제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정의의 가치보다는 배려의 가치에 의해 훨씬 더 많이 인도되며, 또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Held, 2015: 25-26).

이와 같은 Held의 주장은 정의의 역할을 법적 제도라는 테두리 안에 가두면서, 모든 사회 제도에 정의라는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Held가 취하고자 한 것은 정의에 우선하는 배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 윤리로서의 배려윤리가 정의윤리보다 더 광범위한 도덕적 기획이므로, 배려윤리가 정의윤리를 포함하는 구도에서 배려윤리를 전개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Engster&Hamington, 2015: 9). 즉, Held가 추구한 정의와 배려 사이의 구도는 배려가 정의보다 우선성을 취하고 있는 형국(박병춘, 2013: 173-174)이라 할 수 있다. 물론 Noddings가 직면한 수많은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에 Held는 정의가 배려로 완전히 대체되어야 한다거나,

환원되어야 한다는 Noddings식의 접근(Held, 김희강·나상원 역, 2017: 174)과는 약간 다른 결을 갖는다. 배려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별과 인종, 계층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회구조적 차별의 문제, 권력의 역학 관계에 따른 지배와 종속 그로 인한 폭력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Held, 김희강·나상원 역, 2017: 127-128). 그러나 Held의 주장은 정의를 공정성, 평등, 권리와 동일시하고, 배려를 필요, 반응, 관계와 동일시한 결과, 정의와 배려를 협소히 규정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Held처럼 정의와 배려를 협소한 개념으로 만든다면, 정의와 배려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의가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개인들에게 도덕적으로 주어진 권리의 표준을 가리키는 용어로 통용된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Held의 주장은 정의의 쓰임새를 다소 격하시킨 면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정의 이론은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 역량 접근, 자연법 또는 배려윤리에 기반하여 많은 이론가들에 의해 전개되었고, 정의는 수많은 실질적 가치와 함께할 수 있는(Engster, 2015: 25) 우산 개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배려윤리의 초기 국면에는 정의와 배려를 대별하면서 정의와 배려를 구분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정의와 배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에 정의의 모든 고려사항들을 배려윤리에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정의의 고려사항들 중 일부는 배려윤리의 일부에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Bubeck, 1995: 13)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정의와 배려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잦아들었으며, 정의와 배려 사이의 경계 또한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Engster, 2015: 25). 특히 거의 모든 현대 배려 이론가들은 배려이론 초기 국면에 정의를 적수로 여겼던 것과 달리 정의를 어떤 식으로든 배려윤리에 결합하고 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Collins, 2015: 5-6). 정의로운 사회구조가 자리 잡지 못하면 배려 책임이 온전히 이행될 수 없고,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배려의 위상을 재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Engster, 2001: 587).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배려 이론가들을 살펴보겠다.

2. 일반적 접근에서의 관계

1) 정의와 조화하면서 결합을 추구한 배려

Kittay[12)]는 정의로운 배려, 배려하는 정의를 주장한다. Kittay는 보다 따뜻한 배려를 위해서는 정의로운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고, 보다 평등한 정의를 위해서는 배려의 관점이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배려의 손길은 그것이 꽃피울 수 있는 정의로운 환경을 필요로 한다. 값싼 동정심과 착취적 요구가 만연한 배려의 맥락에서는 의존인과 의존노동자 사이의 불평등이 너무나 쉽게 지배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한편 배려하는 정의는 인간의 의존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복지가 배려나 배려 필요와 반비례하지 않는 사회를 조직할 것을, 서로 다른 필요와 능력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인간이 사회적 협력에 나설 근본적인 이유로 자리매김할 것을 추구한다. 배려하는 정의는 배려 그 자체를 정의로운 행동으로 만든다(Kittay, 2001a: 576; 2015: 287).

이는 정의가 보다 정의롭고 배려가 보다 배려롭기 위해서는 정의와 배려가 홀로 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점을 서로가 상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쳐서는 안 됨을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의와 배려는 서로 조화할 수 있으며 결합할 수 있음을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의존성과 그로 인한 불가분의 상호의존성이 지시하는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정의, 의존인과 의존노동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가 지배와 폭력으로 변하지 않는 배려를 위해서는 각각 배려와 정의가 필요함을 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12) Kittay는 인간 의존의 사실에 기반해 Rawls의 정의론을 보강할 수 있어야 함, 인간 의존에 따른 배려 필요를 정의론이 반영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했다.

다음으로 Tronto는 배려의 가치로 기존의 도덕적 전제를 파괴하거나 훼손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의 보편 도덕의 원칙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능한 모든 조건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Tronto, 1996: 149)에서 불완전하다(Tronto, 1993: 157)는 것을 지적하려 한 것임을 밝힌다. 이에 따라 Tronto는 배려윤리를 독자적인 규범으로 이해할지라도 동시에 그것을 정의의 관점과 결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Tronto는 정의가 오늘의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에서 선한 배려를 구체화하는 것이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 보고, 정의라는 개념이 배려윤리와의 연합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Jaggar&Young, 한국여성철학회 역, 2005: 95)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Tronto는 정의와 배려의 관계를 재평가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정의와 배려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주장들과 그것에서 비롯된 배려가 정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정이라고 비판한다. 이는 정의와 배려가 두 개의 서로 다른 메타윤리적 근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관점, 배려는 연민과 동정에서 출발한 특수한 것인 반면 정의는 합리성에서 출발한 보편적인 것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해야 함을 주장한 것과 같다. 다시 말해 배려에 대한 모성주의적 이해, 배려의 편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려는 필연적으로 정의와 연결되어야 하고, 정의와 연결된 배려는 필요의 문제, 배려하는 자와 배려받는 자의 사이의 균형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배려를 민주적 형태로 이끌어 수 있어야 한다는 것(Tronto, 1993: 166-171)이다. Tronto는 정의와 연결된 배려, 정의와 결합된 배려를 주장하면서 정의와 배려 모두 이전보다 풍부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위해 Tronto는 보편적 권리에 기반한 정의와 특수한 필요에 기반한 배려는 모두 결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권리에 기반한 정의의 관점은 부적절하다. 그 이유는 권리에 기반한 정의의 관점이 모든 사람이 권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편성을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권리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간과

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부 사람들만이 자기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는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 아래에 수립된 배려의 관점도 결함이 있다. 일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는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의존해 온 인간의 경험을 왜곡했으며, 필요에 대한 집단적인 책임을 망각한 잘못된 정책을 낳았기 때문이다. 대안적 접근의 시작점은 배려를 공적 가치(public value)로 인식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권리를 누림은 물론 모든 사람이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Tronto & White, 2004: 426).

Tronto는 취약한 사람들이 정의와 권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정의와 권리의 언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편적 정의와 권리를 주장하는 담론에 결함이 있음을 역설한다. 또한 누구에게나 배려 필요가 있지만 취약한 사람들에게만 배려 필요가 있는 것인 양 호도하여 상호의존적인 현실을 왜곡하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책임을 외면한 제한적 배려를 주장하는 담론에도 결함이 있음을 역설한다. 이에 Tronto는 모든 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가 있어야 함을, 모든 사람이 필요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공적인 배려에 관심을 가질 의무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Tronto는 누구에게나 평생 동안 적절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배려관계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에게나 앞서 설명한 두 가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공적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피력(Tronto & White, 2004: 449)하면서, 모든 사람이 배려하고 배려받으면서 필요를 충족하는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고대하고 있다.

Tronto는 모든 사람이 배려하고 배려받으며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정의의 전제로 삼는 사회에서는 어떤 집단적 권력에 의해 어떤 집단이 배제되거나, 평가절하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Tronto는 이러한 토대 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배려하는 영역을 넘어서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그러한 능력 아래에 민주적 권력이 정의를 구현하도록

지시할 수 있을 것(Tronto, 1995: 18)이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정의는 내용과 형식이 특정 방식으로 얽히는 과정으로서 공정한 규칙이나 공적 조항에 대한 상황적 고려에 따라서 집단적인 삶을 구조화하고자 하는 공동의 약속이 된다. 또한, 정의는 화해, 호혜, 책임 그리고 다양성과 같은 가치와 시민들이 서로의 안녕과 행복에 대한 책임을 수용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에 기반할 수 있게 된다(Sevenhuijsen, 1998). 이는 Tronto가 정의와 배려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정의와 배려를 뚜렷이 구분하거나 정의와 배려가 양립하면서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 있다는 정도에 그치면 안되고, 정의와 배려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필요에 따른 얽힘과 결합을 거치면서 재구조화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임을 알게 한다.

2) 배려와 조화하면서 융합을 추구한 정의

앞서 살펴보았지만 Engster는 인간의 의존성과 인간의 취약성에 근거하여 배려의무론을 전개했다. Engster는 자신의 저서 *The Heart of Justice*에서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공동체주의, 시장사회주의, 자연법 이론과 같이 다양한 이론들에 근거한 정의 이론들에 버금가는 대안으로 배려윤리를 하나의 정의 이론으로서 정립하려고 한다고 주장(Engster, 김희강·나상원 역, 2017: 30-31)한 바 있다. 나아가 비교적 최근 저서인 *Justice, Care, and Welfare State*에서 정의론과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위한 제도,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배려윤리가 유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Engster는 배려윤리가 개인이 스스로 합당하게 충족하기 어려운 중요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국가의 전통적 목적과 사실상 합치된다는 점, 배려윤리가 후기산업사회의 중차대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돌봄공백으로 인한 돌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배려윤리가 다양한 문화와 사회의 다양한 개인이 지지하는 가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 배려윤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널리 받아들여지기 쉬운 도덕적 직관과 일치하여 다른 도덕 이론들에 비해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가정이 상대적으로 적다(Engster, 2015: 17-18)는

장점이 있다면서 배려윤리가 정의론과 사회 제도 및 정책에 있어 풍부한 함의를 지닐 수 있음을 피력한다.

Engster는 배려 이론에 기반한 자신의 정의론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현실에 기반하여 실제 사회에 유용한 실천적, 정책적 지침을 제공하려 한 점에서 Cohen의 정의론과는 대척점에 있으며(Engster, 김희강·나상원 역, 2017: 44-47, Engster, 2015: 10), 자신의 정의론은 이상화되지 않은 정의론(Non- Ideal Theory of Justice)이라고 주장한다. Engster는 이상화된 정의론이 가질 수 있는 유용성과 일관성을 양보하면서, 이상화되지 않은 정의론을 전개하려는 세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상화된 정의론은 사회 현실과 유리되어 실제적,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점, 이상화된 정의론에 따른 실제적,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이 유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이상화된 정의론이 잠재적으로 현대 사회에 적용 가능하고 유용할지라도 그것을 제안한 이론가들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함에 있어 주저하고 있는 점(Engster, 2015: 12-13)이 그것이다.

이에 Engster는 이상화되지 않은 정의론을 통해 원초적 입장과 같은 관념 세계를 상정한 정의론보다 실제로 존재하는 어린이, 이환자, 노인, 장애인, 빈민과 그들의 필요에 근거한 정의론을, 철학적 용어로 일관성 있게 쓰여진 정의론보다 인간 삶을 정의롭게 하는 제도와 정책에 근거한 정의론을, 안락의자에서 설계한 정의론보다 사회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정의론을 설계할 것(Engster, 2015: 14-15)임을 분명히 한다. 즉, Engster는 배려하는 사회, 국가를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이론의 발상에 배려를 더하고 섞는 접근만으로는 부족(Engster, 2021: 1)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Engster는 Rawls를 필두로 한 하향식 정의론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전문적이며, 정교하다고 하더라도 정의를 요하는 삶의 최전선에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실제 삶의 맥락과 상황을 반영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찾아 이론화를 시도하는 상향식 정의론, 행동하는 정의론을 제안(Engster & Edge, 2022: 492-503)한다.

이와 같은 양상은 Robinson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Robinson은 국제관계(Robinson, 1997; 1999; 2010; 2011a, 2013, 2018), 인권과 인간안보(Robinson, 2003a; 2003b; 2006b; 2008; 2011)와 같은 지구적 차원의 국제 정치 이론이 인간 삶의 중심 요소인 배려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Robinso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배려윤리는 국가, 기관, 개인 간에 존재하는 모든 계약 관계를 대체할 수 없으며, 대체해서도 안 된다. 다만, 권리와 의무와 같은 원칙을 중심으로 한 도덕 이론들에만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그러한 도덕 이론들의 불완전성, 심오한 맥락적 부적절성을 인정하는 배려윤리의 관점을 빌린다면, 국제 관계의 근본적인 윤리적 문제들(빈곤과 개발, 폭력적 갈등, 인권, 난민과 이주, 환경, 미래세대와 관련된 문제)이 또 다른 시각에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Robinson, 1997: 130).

Robinson에 있어 정의는 관계적 관점의 배려윤리와 결코 무관치 않다. 정의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기회와 능력에 관한 문제일뿐 아니라, 서로를 악하게 대우하려는 문제와 같은 관계적 조건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Robinson에게 정의는 단지 피상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소모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더욱이 현재의 국제 사회와 그를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맥락은 정의에 관한 문제들을 다툴 필요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배려가 정의를 대체할 수 있다거나, 배려가 있기에 정의는 무용하다는 관점은 설득력이 없다. 다만 Robinson은 인간 존엄과 평등을 개인들이 가진 기본적 권리를 존중한다는 수준에서 한정짓는 자유주의적 정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Robinson, 1999: 24-25), 자유주의적 정의의 관점이 갖는 불완전성과 탈맥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배려윤리를 정의 이론에 융합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윤리와 국제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이론들이 배려윤리의 관점을 고려해야만 하고, 배려가 인간 삶의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윤리와 국제 관계의 지배적 이론들은 배려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Robinson은 최근 저서 *The Ethics of Care: A Feminist Approach to Human Security*에서 자신의 이론이 목표하는 것들을 밝히면서 이와 같은 논의 구조를 이어간다. 국가가 외부로부터 공격과 침략에 대비하여 자국의 안전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안보 이론과 그러한 안보의 궁극적 대상을 인간으로 보는 인간 안보이론의 중심에는 인간 삶의 중심 요소인 배려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궁핍함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좇는 인간 안보이론에 배려윤리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이해를 구성할 때 성별, 인종, 계급, 지정학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고,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이 일상적 안보를 유지함에 있어 배려 관계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obinson, 2011: 3-4, 44-47).

종합해보면 정의와 배려의 관계 논쟁을 불러일으킨 Gilligan은 도덕성 발달의 서로 다른 경로 중 어느 것의 우열을 가리려고 하지 않았다. 즉, 정의와 배려를 대등한 변증법적 대응 관계 속에 인식함으로써 둘 사이의 상호보완성을 발달심리학이 놓치면 안 됨을 주장했다. 그러나 Gilligan의 아이디어를 이어받은 이후의 연구자들이라 할 수 있는 Noddings, Ruddick, Held는 Gilligan이 제안한 배려 도덕성에 보다 근원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배려의 독자성, 우선성을 쟁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정의와 배려가 보다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결합됨으로써 정의와 배려를 재구성하고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Kittay, Tronto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Engster, Robinson과 같은 근래의 이론가들에 의해서 보다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정의를 표방하는 기존의 이론들이 배려의 중심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규명하고 배려의 가치를 융합한 정의의 이론을 설계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이 현대 주류 정치철학과 경제 이론이 배려의 관점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퍼뜨려 배려를 촉진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찾아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 한 지점을 논하겠다.

제 Ⅲ 장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비판과 대안

본 장은 크게 세 개의 절로 구성된다. 세 개의 절 중 앞선 두 개 절은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 서 있는 배려 이론가들이 배려의 관점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퍼뜨려 배려를 촉진하지 못하게 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비판한 지점을 논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배려윤리가 사회 전환과 사회 변혁을 요구하는 비판이론으로 자리매김한 면모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절에서는 배려윤리가 제안하려는 새로운 시민의 상(象)과 그러한 시민이 만들어 갈 사회와 국가, 지구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볼 것이다.

제 1 절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대한 비판[13)]

이 절에서는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이론가들이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아래에 축조된 Rawls의 정치철학에 대한 담대한 도전에 나선 지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유주의 담론에서 주장하는 자율과 평등, 권리와 의무 개념에 대해서 의존성과 취약성, 상호의존성, 책임 개념을 들어서 비판한 지점을 논할 것이다. 이후에는 Rawls의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가 이상화된 인간과 사회, 협소한 기본적 가치의 목록들을 손쉽게 가정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 지점을 논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배려윤리 이론가들이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대안으로 배려의 정치철학을 구성하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13) 배려윤리에 대한 여성적 접근을 대표하는 Noddings의 연구물에서도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담론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Noddings의 연구물은 자유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이후, 배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가정(home)'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Noddings, 2002; 2003). 이는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이 배려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책임과 공동체적 차원의 변혁이 필요함을 주장한 것과 달리 개인과 여성의 책임만을 강조한 원자적, 보수적 해법이다.

1. 자유주의 담론에의 도전

1) 자율과 평등 개념에 대한 비판

정의와 배려를 결합하거나, 정의에 배려를 융합시키려 한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 이론가들은 자유주의 담론 아래에서 인간, 시민, 시민사회가 이상화됨에 따라 도출된 보편적인 가정들이 배려의 관점을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이론가들은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인간과 시민, 사회를 상정한 자유주의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그 시작은 모든 인간이 자율적이며, 자율적인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가정이다.

Locke에서 Rawls에 이르는 근현대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배려를 개인적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로 치부하며, 개인의 자율성과 평등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데 정의의 논점을 맞췄다(Engster, 김희강·나상원 역, 2017: 25). 이에 따라, 자유주의는 자율적인 행위자로서의 인간 존재를 당연시하며 인간의 의존을 흠결 있는 조건이나 문제로 간주하게 되었다(Tronto, 김희강·나상원 역, 2021: 87). 그러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간 존재만을 정상적인 인간 존재로 상정한다면, 어떻게 영유아가 아동·청소년을 거쳐 성인이 되는지와 어떻게 인간이 의존적인 존재에서 자율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게(Tronto, 김희강·나상원 역, 2021: 88)된다. 또한, 불가피한 의존 상태에 있는 미성숙한 영유아에서부터, 좋은 환경에서도 기능적으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병약자, 허약하고 노쇠한 노인까지, 모두가 인간이라는 엄연한 사실(Kittay, 김희강·나상원 역, 2016: 81)조차 성공적으로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인간은 무릇 합리적, 이성적이며, 자율적, 독립적인 성숙한 존재이어야만 하지만, 이와 같은 가정은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을 포괄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실제로 Tronto는 도덕과 정치이론에 있어 자유주의 인간관이 금단의 경계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금단의 경계를 넘어설 것을 주장한다(Tronto, 1993: 9-10). 또한 이 경계가 모든 인간은 자율과 독립, 합리와 이성을 구가하고 있을 것이라 손쉽게 예단하게 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행동이자 도덕적 실천으로써 타인이나 공동체를 배려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Tronto, 1993: 111)하고 있음을 피력한다. 이는 인간이 취약하다는 것으로부터 현현하게 된 타인에 대한 자신의 의존성과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의존성, 불가피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을 수용했을 때라야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향하는 따뜻한 배려가 촉진될 수 있음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간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장한 배려 이론가들은 비판의 초점을 자유주의적 평등 개념에로 옮긴다. 이는 자유주의적 이상으로서의 평등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평등하다고 간주되는 공적 영역에만 관심을 두어 인간이 의존하는 세계를 조명하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등의 지평에 올라서기를 추구하는 새로운 평등이론의 시발점은 의존이 되어야 한다는 논지이다. 즉, 의존을 고려하지 않고 평등을 논하는 자유주의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관념에 토대를 두고 있기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선언할 수는 있겠지만, 형편없는 수준의 평등한 대우를 보장할 수 있을 뿐이며(Kittay, 김희강·나상원 역, 2016: 302),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관념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기 어려운 사회를 구축하게 할 뿐(Kittay, 김희강·나상원 역, 2016: 153-155)이라는 날선 비판을 제기한다. 이는 무수한 배려관계가 내포한 불평등을 반영하여 평등 개념을 재개념화하지 않은 채, 형식적, 추상적으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무의미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이론가 Tronto는 형식적, 추상적, 선언적인 자유주의적 평등 개념에 도전하기 위해 인간의 상호의존성, 취약성에 근거한 평등을 제안한다. 인간의 상호의존성, 취약성으로 모든 인간이 자율적이고 평등한 개별적 시민이라는 신화에 균열(Tronto, 1993: 135)을 내면서, 모든 인간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만큼은

서로 다른 취약함으로 의존과 상호의존을 경험하므로 평등하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이를 통해 자유주의적 평등의 시각에서는 배려받는 의존적인 인간을 그렇지 않은 인간에 비해 한 수 아래에 있는 열등한 존재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배려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배려 국면들을 인식할 수 있음을 전제로 취약한 상호의존적 개인들 간의 배려관계를 평등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Tronto, 1996: 149-150). 평등은 모든 인간이 배려 수혜자인 동시에 배려 주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 되어야 하고, 취약했던 어떤 인간이 자율적인 선택을 구가하는 것은 누군가의 배려에 의해 배려 필요가 충족되어 성취된 결과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Tronto, 2015b: 27).

배려윤리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자유주의적 관념은 시민의 정체성이 출발하는 지점이 될 수 없다. 또한 평등하다는 시민의 정체성은 일생동안의 일치된 배려의 실천으로 성취해내는 것(Tronto, 2015: 16)이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배려의 실천을 고려함으로써 동일성으로서의 평등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배려관계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평등으로 논의의 초점을 확장할 수 있게 한다(Sevenhuijsen, 2000: 28). 모든 배려관계는 불평등을 함축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세대를 넘어서, 어느 인간 존재의 일생을 가로질러서, 배려관계에 엮인 모든 인간을 하나로 인식함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주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게(Tronto, 2015: 14-16)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등은 모든 인간이 일생토록 성취해야 하는 정치적 목표가 되고, 정치적 목표의 성취는 실제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해소한(Tronto, 1993: 164-165) 결과가 된다.

정리하면 자유주의적 인간관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강건하기까지 하여 자율과 독립을 구가할 수 있는 성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적 인간관 아래에서는 무력하고 의존적인 영유아기 혹은 아동·청소년기의 인간, 나이가 들어 허약해진 노년기의 인간, 질병을 앓고 있어 와병 중인 인간, 선천적 혹은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가진

인간, 이 밖에도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이 비인간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자유주의적 인간관에 근거해 어떤 완성된 인간을 그리는 것은 어떤 임의의 인간에게는 배제와 차별을 의미하게 된다. 어떤 임의의 인간은 취약하거나 궁핍한 상태에 놓여있을 수 있으며, 감정적 동요에 따라 행동하는 상태에 놓여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완전한 성인의 시기에만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병들거나, 장애가 있거나, 노쇠한 시기에도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보다 배려적인 정의를 세울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 존재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주의적 인간관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우리와 같다고 기대하거나,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왔다. 반대로 우리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간을 우리와는 다른 존재로 가정해왔다. 그러나 배려의 이상 아래에서는 배려를 주고받아야 하는 양극단에 있을 때에도, 배려를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중간에 있을 때에도 모든 인간을 배려 연결망 안의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Tronto, 2015: 15-16). 이 인식이 배려 이론에서 평등을 이해하는 시작이며, 자유주의적 평등 개념을 재개념화하는 시작점이 된다. 평등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이성적이고 강건하기까지 한 성인의 필요뿐만 아니라, 무력하고 의존적인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노년기의 인간, 질병을 앓고 있어 와병 중인 인간, 선천적 혹은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가진 인간, 이 밖에도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는 모든 인간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재개념화된다.

모든 인간은 의존과 취약으로 대변될 수밖에 없는 삶의 어느 시기를 이미 경험했거나,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자율과 평등을 구가하는 삶의 어느 시기도 살아가지만, 의존과 취약에서 발생한 필요에 따라 배려관계에 놓여 구속과 불평등을 불가피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의 어느 시기도 살아가야 한다. 이를 모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존과 취약으로 인한 구속과 불평등을 직시하여 자유주의적 평등 개념의 재개념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2) 권리와 의무 개념에 대한 비판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은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권리와 의무 담론이 '책임'을 망각, 소실케 한 것을 비판하고, 책임 개념이 사실상 의무 개념 혹은 의무 개념의 동의어로서 취급(Tronto, 2012b: 304)받는 시민사회의 현실을 비판한다. 실제로 자유주의는 자율적인 권리의 소지자인 분리된 개인과 그러한 원자화 된 개인들이 이루는 사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개념으로서 의무를 제안하고 있다. 즉, 권리에 의한 사회적 분리를 완화시키고 최소한의 사회적 결속을 다지려는 충동으로부터 의무 개념이 파생된다. 이에 자유주의 담론 아래에 도덕적 주체들은 권리와 의무를 타인, 공동체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배려 이론은 인간이 좋든 나쁘든 다양한 배려 책임의 연결망 속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관계적 존재론으로 인간 존재를 위치시킨다. 그렇기에 자아는 오직 타인을 통해서 존재하며 타인과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고, 타인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즉, 배려 이론은 상호의존적인 책임을 공유하는 연결된 개인과 그러한 관계적 개인이 이루는 사회를 상정하며, 서로 간에 맺은 관계를 책임의 시작점으로 삼는다. 이에 배려 이론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배려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어떻게 배려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서로 다른 취약성과 의존성, 고통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거치면서 서로 다른 형태의 책임에서 균형을 찾는 노력이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Sevenhuijsen, 2000: 9-10)고 보고 있다.

한편 배려 이론가들은 자유주의적 권리와 의무가 보편성을 갖는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꼬집는다. 즉, 권리와 의무는 일상적으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왔고, 능력과 필요에 따라 권리와 의무에 차등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뿐임을 암시하는 많은 증거가 있음을 지적(Tronto & White, 2004: 447)한다. 물론 Tronto 역시 자유주의 담론이 이론-법리적 모델에 근거

하여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고정적 이해를 공유해주는 것은 명확한 도덕 원칙들을 지시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Tronto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고정적 이해가 도덕 원칙들이 정치·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실제 시공간에서 사회적 협의를 거쳐서 공유되고, 정제되고, 확장될 가능성을 차단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 차원에서 논해져야 하는 책임의 문제에는 침묵하게 됨을 한계로 꼬집는 것이다. 즉, 이론-법리적 모델에 근거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인간의 의존성과 취약성이 배려관계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책임을 생성하는 관계의 한 가운데에 인간을 위치시켜 관계적 책임을 논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Tronto, 2012b: 307-308) 작업이다.

또한 책임이 권리와 의무와 같이 보편주의적 가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의 도덕적인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관계에 기반한 책임이 편파적이어서 보편적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에 따른 책임은 충분한 구속력을 가지며, 충분히 광범위(Tronto, 2012b: 309-310)하다. 인간은 언제나 책임을 생성하는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으며, 어떤 사람, 어떤 집단의 삶이 끔찍하게 잘못되지 않는 한, 인간은 관계 안에 남아 있을 것이고,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관계는 책임을 생성하고, 책임을 구체화한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관계의 복잡성 속에서 생성된 모든 책임은 도덕적 삶의 토대가 된다(Tronto, 2012b: 314). 즉, 개인적 관심사에서 출발해 나는 무엇을 빚지고 있고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추상적인 답을 고찰하는 권리와 의무 개념과는 달리, 책임 개념은 문제의 당사자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협상, 재협상의 과정, 표현-협력적 모델을 거치며 도출된 결과에 근거(Tronto, 2020: 192)하여 삶의 향방을 찾게 한다. 따라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해악의 정도를 결정하는 힘은 행위자의 의도나 행위의 결과에서 나오는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에서 나오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에서 나온다. 이는 행위자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

하면서 모든 행위자에게 무엇을 의도했고 무엇을 했는지 따져보는 (Tronto, 2012b: 308) 자유주의와는 분명 다르다.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의 시작은 모든 인간이 자기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배려를 공적 가치로 개념화하는 데에 있다. 그 전제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인간은 평생 적절한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 2)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에 의미있는 배려관계에 참여하여 배려할 자격이 있다, 3) 모든 인간은 사회가 1)과 2)의 전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판단을 내리는 공적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Tronto & White, 2004: 449-450). 이는 모든 인간은 단 한명의 예외없이 배려받은 경험이 있고, 지금도 배려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배려받을 것이라는 경험적 경로를 거치듯이, 타인들의 배려 필요가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충족될 수 있도록 마땅한 수단을 제공해야 함을, 모든 인간은 배려관계를 바로잡아 배려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게 할 책임이 있음(김희강, 2016: 13-14)을 제안한 것이다. 이는 또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들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안정적으로 배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Tronto, 2001: 77; Tronto, 2015: 33) 책임에 기반한 문화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담론 아래에서 논해지는 보편적 권리와 의무 개념이 갖는 이점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균등한 권리, 의무를 누리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있었다. 그 이점은 지금까지 권리와 의무라는 이름 아래에 적어도 모든 인간이자 시민들이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도덕을 논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배려윤리 아래에 강조되고 있는 책임은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우리가 이미 빚을 졌거나 앞으로 빚을 지게 될 수없이 많은 존재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배려 이론가들이 주장한 책임이 보편적이라거나, 불편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배려 이론가들은 부분적이며 편파적일지라도 책임을 바탕으로 도덕을 최소도덕으로부터 최대도덕으로 유인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2. Rawls 이론에의 도전

1) 이상화된 인간과 사회에 대한 비판

정의 이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Rawls의 이론은 인간의 의존을 반영한 정의론이 어떤 모습일지, 정의로운 배려의 연결망이 어떤 모습일지를 그리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다(Kittay, 2001b: 47). 배려 이론가들의 입장에서 Rawls의 인간관과 사회적 협동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와 Rawls의 정의론의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의 합의당사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논하려 한다.

Rawls는 자족적 협동구조라고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인간이 태어나며, 그러한 인간을 전 생애에 걸쳐 정상적이고 협동적인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격체로서 가정한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떠한 도덕적, 지적 능력과 기술에서의 차이와 천부적 능력을 토대로 질병과 사고의 영향을 포함하는 육체적 능력과 기술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극복 가능한 수준임을 주장한다. 이미 도덕적, 지적, 그리고 육체적 능력의 면에서 보이는 차이들은 특정 기준선 위에 있으며, 공정한 기회의 평등과 차등의 원칙에 의해 지위에 대한 자격 부여와 자유경쟁이라는 사회적 실행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질병, 사고의 결과로서 일부 시민이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차이는 의료보장과 같은 입법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Rawls 이론에서 인간들은 두 가지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합당할 수 있게 되는 정의감의 능력과 합리적일 수 있게 되는 선관의 능력이 그것이다. 한편 Rawls는 이 두 가지 능력이 정치적 정의의 문제에서 완전하고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는 필요충분한 조건임을 밝혀 두고 있다(Rawls, 장동진 역, 2016: 454-455).

Rawls는 원초적 입장의 합의당사자를 설명함에 있어 앞으로 언젠가 살게 될 사람이나 과거에 언젠가 살았던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Rawls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사람을 가정하여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를 규정하지 않는다. Rawls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합의당사자를 규정하는 것이 직관을 이끌어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지침이 될 것이며 명확한 의미를 보장해줄 것이라 역설한다(Rawls, 황경식 역, 2003: 198). Rawls에게 원초적 입장의 합의당사자는 사회에 있는 시민들을 합리적, 자율적으로 대표하는 존재이고, 대표자로서 합의당사자는 원초적 입장의 제약조건 아래에서 자신이 대표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존재일 따름이다(Rawls, 장동진 역, 2016: 458).

배려 이론가들은 이와 같은 Rawls의 이론에 대해 인간 존재가 갖는 현실적 차이, 그로부터 비롯된 억압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허구적 기획일 따름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먼저 Kittay는 과연 Rawls의 이론이 사실로서 존재하는 인간의 의존을 진실로 반영하고 있는지 반문한다. 물론 Rawls가 모든 인간이 질병과 사고와 같은 외부 요인에 평등한 취약성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과연 인간의 의존이라는 특별한 취약성을 담아내고 있는가라는 비판(Kittay, 김희강·나상원 역, 2016: 163-165)을 제기한다. Kittay는 Rawls의 이상이 장애인이나 이환자와 같이 특별한 필요를 지닌 인간에 대한 배제를 당연시하는 심각히 잘못된 가정에 기반하고 있음을 꼬집는다. 즉, 어떤 인간조차도 혼자서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혹은 인생 전반에 걸쳐 온전한 기능을 오롯이 다 한다는 이상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Rawls는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진 특별한 필요의 결과를 사회보장이나 의료보장제도의 입법과 같이 간편한 금전적 방식으로 중재할 수 있음을 주장할 뿐이라는 것이다(Kittay, 김희강·나상원 역, 2016: 171-17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규범에 기초하여 대표자를 구상하는 것은 비의존적으로 기능하는 사람과 의존인을 배려하는 책임을 담당하지 않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이 선택되도록 하여서 인간과 사회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Kittay, 김희강·나상원 역, 2016: 179). 이에 따라 Kittay는 인간 가능의 모든 범주가 정상 조건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Kittay, 김희강·나상원 역, 2016: 178)면서, 인간 의존의 사실을 정의의 여건에 포함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렇게 한다면 의존인은

의존하는 동안에도 온전히 기능하는 시민으로서 대표될 수 있게 되며, 의존인은 의존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물론 Kittay는 이와 같은 경우에서조차도 원초적 입장의 합의당사자들이 의존 노동자의 파생된 의존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만한 관심이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의존 노동자가 원초적 입장의 합의당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존노동자는 의존인의 이해, 그에 대한 책임,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원초적 입장의 합의당사자들과 평등한 관계 아래에 있기 어렵다는 것(Kittay, 김희강·나상원 역, 2016: 174-176)을 포착한 것이다. 즉, Kittay는 정의 이론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호혜적인 관계에 집중한다면, 의존인은 계속해서 배제될 것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완전한 협력을 할 수 있었을 의존노동자 또한 계속해서 의존인이 겪는 박탈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음을(Kittay, 김희강·나상원 역, 2016: 154) 꼬집으면서, Rawls의 이론이 갖는 포괄성과 설득력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Kittay와 함께 Engster 또한 Rawls의 이론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충분한 기획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한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배려받을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은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의 지위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Rawls의 이론에 있어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함은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으며 물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에게 평등한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Rawls의 이론에서 사회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이 어떤 부담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행동일 뿐이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신을 포함한 원초적 입장의 계약 당사자들은 서로의 실질적인 이익을 증진해 줄 수 있는 건강하고, 아무런 제약이 없는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Engster, 2021: 3-4). 이에 Engster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현실적 가정,

어떤 인간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우며 사회적으로 협력하기 쉽지 않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여 정의론은 인간의 생존, 정의감, 좋은 삶에 대한 개념들뿐만 아니라 품위 있는 존재로서의 삶, 사회적으로 평등한 삶, 안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포함(Engster, 2021: 5)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한다.

물론 Rawls는 여성주의 이론가들의 비판을 수용하여 여성 또한 자신의 이론이 상정하는 평등한 시민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항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배려윤리의 관점에서 Rawls의 이론은 여전히 두 부류의 인간을 평등한 시민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는 바로 타인으로부터 배려받아야 하는 의존인, 의존인의 배려 필요를 충족시키는 의존노동자(Kittay, 김희강·나상원 역, 2016: 156)이다. 이에 Kittay는 사회적 협력의 가능성과 무관하게 인간 존재라는 것 그 자체로 완전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함을(Kittay, 2021: 18) 주장한다. 또한, Engster 역시도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에게 요구했던 높은 능력을 완화하고, 그의 이론에서 나타난 얇은 도덕적 전제들을 버릴 것을 요청한다(Engster, 2021: 4). 둘의 입장을 종합하면 배려윤리는 Rawls의 이론 그 자체에 파열을 내려하기보다는, Rawls가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선택한 보편적이고 이상적이라고 불리는 가정을 채택한 지점들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배려 이론가 자신들도 정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Rawls의 이론 체계에 논리적 비판을 가한다기보다, 자유주의적 세계관에 따라 그려진 보편적, 이상적 인간과 사회 아래에 그의 이론이 정립된 것을 비판한다. 이는 Rawls 뿐만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세계관에 정초를 둔 이론들에 대한 전환적, 변혁적 검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과 같은 사고실험을 통해 현실 너머의 초월의 세계에 도덕을 정초하여 불편부당성의 이상을 구축하려는 기획이 허구(Young, 김도균·조국 역, 2017, 206-275)라는 날선 비판은 비단 Rawls만을 겨냥하지는 않는다. 배려 이론가들은 그러한 동일성의 논리가 심화됨에 따라, 차이를 부정하고 차이를 억압(Young, 김도균·조국 역, 2017: 220-221)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경계한다.

2) 기본적 가치의 목록에 대한 비판

Rawls는 정의란 합의된 어떤 것일 뿐이므로 합의된 정의 그 자체의 실질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는 애매한 진술 형식으로 만족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Rawls, 황경식 역, 2003: 200). 그럼에도 불구하고 Rawls의 정의 이론에서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을 찾자면, 기본적 가치의 기초 목록을 설명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해당 가치들은 다음과 같다(Rawls, 장동진 역, 2016: 306).

a. 기본적 권리들과 자유들, (또 다시) 역시 목록에 의해 제시될 수 있다;
b. 다양한 기회들의 배경 하에서 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c. 기본구조의 정치적, 경제적 제도 내에서 책임이 있는 직책과 직위에 따르는 권한 및 특권;
d. 수입과 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e. 자존감(self-respect)의 사회적 기반들.

Kittay는 이와 같은 Rawls의 기본적 가치의 기초 목록이 과연 의존인, 그리고 의존인을 배려하는 사람에 대한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물음으로써 비판을 시작한다(Kittay, 1998: 131-140; 2001b: 47-59). Rawls의 기본적 가치의 기초 목록들에서는 의존인이 되었을 때에 배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의존인을 배려할 때 필요로 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 어떤 이가 의존인이 되었을 때 그 어떤 이에게 의존하던 의존인을 또 다른 이가 배려해 줄 것이라는 보장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Kittay, 김희강·나상원 역, 2016: 191-192). 즉, 의존에 따른 배려 필요가 사회계약의 조건들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모든 인간이 정의감과 좋은 삶에 대한 개념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의 배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Engster, 2021: 2)을 지적한 것이다. 물론 Rawls는 기본적 가치의 다섯 가지 기초 목록 외에 또 다른 가치가 필요할 경우, 기본적 가치의 기초 목록을 추가할 수 있음을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Kittay는 Rawls의 모호하고 미온적인 태도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이 의존함에 따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을 기본적 가치의 목록들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Kittay는 우리 모두가 의존인이 된다면 누군가에게 배려받기를 원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의존인에 대한 책임을 담당해야 할 때면 충분히 지원받기를 원할 것임을 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조건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의존인과 의존노동자가 질서 정연한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침해받는다면, 이러한 조건은 진정 정의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Rawls의 기본적 가치의 기초 목록에 의존으로 인해 제기된 배려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한다(Kittay, 김희강·나상원 역, 2016: 192-193). 즉, 배려는 정의의 개념을 선택할 때 합리적이고 합당한 고려 대상이어야만 한다. 또한, 의존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나 돌봄 노동을 부당하게 착취하면서 의존 노동자를 신경쓰지 않는 사회는 질서 정연한 사회라 할 수 없다. 우리의 안녕과 행복에 인간 관계가 중심에 있음을 이해하기 위해 정치적 통찰력을 재조정할 때에는 의존에 따른 배려 필요를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기본적 동기로 인식해야 한다(Kittay, 김희강·나상원 역, 2016: 197).

이에 Kittay는 우리가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배려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 우리는 돌봄 노동을 하는 다른 모든 인간이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는 Doulia의 원칙을 제안한다. Doulia의 원칙은 의존인과 그를 배려하는 의존노동자 모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실현이며,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의존노동자가 배려를 실천하면서도 사회적 협력의 혜택을 위한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제도의 확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적 의미가 있다(Kittay, 김희강·나상원 역, 2016: 200-202). 그러면서 Kittay는 배려받는 것과 배려하는 것이 기본적 가치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Rawls의 정의 이론이 정책화됨으로써 선택되어야 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단언한다. 이에 Kittay는 Rawls 이론이 인간 의존의 사실을 반영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인간의

의존으로 인한 배려관계 당사자를 질서 정연한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게 함으로써 평등주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제 3 원칙이 새로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내세운다(Kittay, 김희강·나상원 역, 2016: 208-209). Kittay가 제안한 정의의 제3원칙은 다음과 같다.

배려에 대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배려할 수 있는 각자의 능력으로부터, 그리고 배려를 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만들어주는 사회제도의 지원에서, 모두가 충분히 지속되는 관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Kittay는 의존인의 필요를 반영한 질 높은 배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의존인과의 유대 관계를 매개로 해야 한다는 것에서 발생한 의무감 때문에 대체불가능한 최소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의존노동자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원칙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Kittay, 김희강·나상원 역, 2016: 203-208). 인간의 의존을 배제한 채 도덕, 정치 이론을 구축하는 것은, 의존인을 돕는 돌봄 노동을 하는 의존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의존인의 존재를 간과(Kittay, 김희강· 나상원 역, 2016: 155)하여, 모든 인간을 포괄하지 못해 차별과 배제를 배태한 이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Rawls의 이론 안에서 계약적 사고는 정의로우면서 이상적 사회의 원리를 결정하는 홀로 선 추론자의 고립된 성찰로 묘사되었고(Young&Jaggar, 한국여성철학회 역, 2005: 106), 그 결과 불편부당성에 기반한 또 다른 사회계약 이론이 탄생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고려라고 하는 불편부당성의 관점은 사회적 이익과 부담의 평등한 분배에 대한 문제들에서 이론적인 편애를 낳았다. 이러한 접근들은 배려 이론가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며, 문화적 주변화와 같이 엄밀한 분배 부정의를 구성하지 않는 집단적 억압들 모두에 대한 고려를 배제(Young, 김도균·조국 역, 2017: 112-120)함으로써 차별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제 2 절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비판

이 절에서는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이론가들이 사회구조적 부정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도전에 나선 지점을 논할 것이다. 즉, 배려윤리 이론가들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정치적 불평등을 타파하고, 배려 민주주의라는 대안으로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려 한 맥락을 논할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그를 좇는 제도 및 정책을 혁파함으로써 배려 민주주의라는 대안적 이상 아래에서 펼쳐질 세상의 일면을 살펴볼 것이다.

1.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불평등에의 도전

1)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

그간 남성들은 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영역에서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선택을 해 왔다. 이와는 반대로, 여성들은 일관되게 배려 필요에 따른 의존관계와 돌봄 노동을 자신의 좋은 삶의 중심에 놓도록 강요받아 왔다. 최근에는 특정 성별(여성), 특정 인종(유색인종), 특정 계층(저소득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돌봄 노동에 요구되는 속성과 의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종속된 채로 사회화되고 있다. 빈곤층 여성, 유색인종 여성들은 부족한 재정과 그들에게 허용된 제한된 고용의 기회 때문에 저임금 유급 돌봄노동자로서 역할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Kittay, 김희강·나상원 역, 2016: 187-188). 언제나 배려 책임은 전통적으로 정치에서 배제되어 온 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할당되어 왔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으로 범위를 좁혀 논해보면, 가정 안에서 배려하는 자인 어머니는 배려를 제공함으로써 파생된 의존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배려의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배려 필요는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며, 어머니는 조달자인 아버지에게 사회·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이에 아버지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어머니는 학대와

폭력에 그대로 노출된다. 또한, 근본적으로 시장 중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을 함으로써 소득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즉 사회·경제구조상 자율적이고 비의존적이며 생산적인 개인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머니의 위상은 초라해진다(Kittay, 2001c: 537-541).

가정에서 배려를 담당한 사람은 배려하는 동안 소득을 올리지 못해 현재 소득이 상실될 뿐 아니라 경력단절로 인해 미래 소득이 상실되고, 근로소득과 연동된 사회 보장 소득이 상실되는 등 다차원적인 불이익을 겪게 된다. 또한, 가정에서 배려를 담당하는 사람이 시장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의 배려를 함께하기 위해 이들이 택할 수 있는 직종 및 고용의 형태는 제한적이게 된다. 이들은 시간제 노동과 비전문직 노동, 비정규직 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의 사회·경제적 보상수준은 다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된다. 배려를 담당한 자는 배려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김희강, 2020: 76). 이 와중에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와 노동 중심의 복지 제도는 배려를 비가시화한다(Folbre, 윤자영 역, 2007: 30). 기존의 경제 지표들, 예를 들어서 국가 간 경제경쟁력을 비교하는 GDP, 주식시장의 기본지표로 활용되는 종합 주가 지수 등은 공감, 연대, 사랑으로 이해되는 배려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며, 평가할 수도 없다(Folbre, 윤자영 역, 2007: 92-125). 배려를 비가시화하는 사회·경제시스템 속에서 배려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고착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경험(Folbre, 2021: 1-6)하게 되며, 배려를 저가치화하는 풍토 속에 배려 책임만을 떠안게 된다.

배려 책임의 감당으로 야기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서 멈추지 않는다. 불평등한 배려 책임의 감내로 야기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적 불평등으로 비화되고, 정치적 불평등은 다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여 불평등한 배려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는 회귀적인 악순환을 낳는다(Tronto, 2006b: 3-26). 배려 책임을 감당하는지 여부에 근거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그것으로 인한 정치적 불평등이 분명 존재하며, 이러한 불평등은 젠더, 인종, 계급 등에 기초한 불평등과 교차되어 사회의 더 큰 부정의함을 야기하고 있다(Tronto, 2017: 38). 배려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발생한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은 영향력 있는 정치적 공론장에서 상대적 배제를 빚어냄으로써 정치적 불평등을 낳는다. 즉, 배려 책임을 감당해 내는 돌봄 노동자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흔히 부유층이나 중산층만큼 대표되기 어려우며,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된 퍼스펙티브를 갖기도 어렵게(Young, 김희강·나상원 역, 2020: 228) 된다. 돌봄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낮은 임금과 대우는 돌봄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돌봄 노동자 스스로가 구조적 불평등을 타파할 수 있는 정치 집단으로 세력화되려는 것을 어렵게 한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배려 책임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야기되었고, 이는 민주정치를 통해서 정치적 불평등으로 비화됐다.

그러나 규범적 이상으로서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을 의미한다.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시민들은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에 명목상 포함되어야 할 뿐 아니라 동일한 조건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과 근심을 표출할 평등한 권리와 유효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또한, 모든 시민들은 서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서로의 제안들과 논리주장에 대해 응답하고 비판할 수 있는 평등하고 유효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Young, 김희강·나상원 역, 2020: 37). 따라서 민주주의는 배려 책임의 수용에서 기인한 정치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그 정치적 공간에서는 모든 인간이 배려 책임을 수용해야 하고, 배려 책임 할당과 관련이 있는 정치적, 제도적, 정책적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Tronto, 1998: 27). 이 과정에서 모든 인간은 배려에 관한 정치적, 제도적, 정책적 논의에 참여하여 타인과 공동체로부터 받은 배려에 화답하고, 배려 수혜자에서 배려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타인에게 배려받아 온 배려 수혜자가 배려의 주체가 되어 타인에게 또 다른 배려를 돌려줌으로써 불평등을 평등에로 옮겨 놓을 수 있게 된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고, 인생의 특정 시기에서 만큼은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적이며 실존하는 내내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배려로의 접근

을 거부당하는 것 역시 심각한 인간성 훼손이자 그 자체만으로 불평등이 된다. 물론 어느 누구도 넘치는 배려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 어떤 기본적 형태의 배려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개인적 삶에서 배려받기를 거부당한 사람, 또는 친구, 이웃, 동료, 교사, 의료인과 같은 돌봄 서비스의 제공자로부터 2차적 배려를 받지 못한 사람, 부와 기타 특전의 분배 면에서 연대성이 거의 없는 사회에 사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Lynch, 강순원 역, 2016: 323-324)당함으로써 불평등의 수렁에 빠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배려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두 가지의 양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배려의 책임을 떠안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과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불평등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배려받아야만 하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필요를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배려자나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하지 못하여 배려 필요가 있는 사람이 제대로 배려받지 못함으로써 촉발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종국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규범은 포용과 정치적 평등을 요구한다. 정치적 결과는 그 결과를 준수하거나 적응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의 형성에 일부일 때라야 도덕적 정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Young, 김희강·나상원 역, 2020: 87). 그러한 맥락에서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한 배려 책임 할당 문제, 배려 수혜 분배 문제의 해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김희강, 2016: 21). 현재의 사회, 경제, 정치 제도로는 배려를 담아내기 어렵다. 배려를 담아낼 만한 민주주의를 구축할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Tronto, 김희강·나상원 역, 2021: 58) 시점에 다다랐다. 그와 같은 변화는 배려의 가치를 주변화해온 위계질서, 배려가 배제되어 온 사회·경제·정치의 위계질서에 도전함으로써, 기존에 제안된 그 어떤 민주주의보다 정의롭고 포용적인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것이다(김희강, 2020: 60-61). 다음에서는 배려 이론가인 Tronto가 제안한 보다 배려적이면서 동시에 정의로운 민주주의의 이상을 살펴보겠다.

2) 정치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은 정치적 평등을 향한 노력이었고, 사회의 위계질서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 정치적 평등을 향한 역사를 추적해보면, 18, 19세기의 자유민주주의는 봉건적인 위계질서에 도전하면서 '자유'의 가치와 부르주아들, 시장제도를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주의였다. 한편 19, 20세기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위계질서에 도전하며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 농민, 서민들처럼 일하는 사람들, 노동 중심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주의였다(김희강, 2020: 59-74). 정치적인 평등을 향한 혁명의 수행 결과,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인들은 명목상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오늘날 평등한 투표권은 단지 정치적 평등의 최소조건일 뿐(Young, 김희강·나상원 역, 2020: 9)이다. 20세기 후반 눈에 띄는 사회 변화를 만들어낸 운동들은 정치적 포용의 기반을 탈바꿈시켰지만, 가난한 사람, 유색인종, 여성, 장애인, 신 식민화된 국가의 시민, 그리고 또 다른 배제된 집단의 지위에 대해 고찰해본다면 민주주의는 여전히 불완전하다(Tronto, 김희강·나상원 역, 2021: 267).

현재 민주주의는 권력을 가진 자가 부정의를 영속화하고 자신이 우대받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형식상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 사이의 악순환의 고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한 방법은 민주정치의 포용성을 확장하는 것이다(Young, 김희강·나상원 역, 2020: 29). 우리는 또다시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불평등, 어떤 위계질서 때문에 부정의함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세기 현재, 부정의함을 양산하는 위계질서는 배려 책임을 지면서 겪게 되는 불평등과 배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21세기 정치적 평등을 향한 진정한 노력은 배려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이상 아래에서, '배려'의 가치를 제고하고, 배려관계에 있는 모든 인간이자 시민들이 연대와 신뢰 속에서 함께 배려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제도와 정책을 꾸림으로써 사회를 재편(김희강, 2020: 74-93)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피면 배려민주주의는 시장과 복지 모두에서 배려의 불평등을 생산, 재생산하고 영구화하는 위계질서를 지적하고 도전하는 변혁적인 움직임이다. 봉건제의 위계질서에 도전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위계질서에 도전한 사회민주주의와 같이, 배려민주주의는 배려가 배제된 시장과 복지에서 비롯되어진 구조화된 위계질서에 도전함으로써 정치적 평등의 이상을 추구하려 한다(김희강, 2020: 78). 배려의 가치를 제고한다는 것은 배려를 개인적 영역에 국한된 가치로 간주하여 배려를 여성의 편협한 관심사라거나,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이 수행하는 허드렛일로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즉, 배려는 인간 삶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로 인식되어야 하며, 배려는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Tronto, 1993: 180). 배려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사회적 실천으로서 인정받아야 하고, 시민들은 상호적인 배려 책임의 수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가름하는 것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한다(Sevenhuijsen, 2000: 30).

배려관계에 있는 모든 인간이자 시민을 전제한 이유는 자유주의적 인간관과 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시민관에 갇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Tronto, 2001: 66), 일하는 시민, 배려하는 시민, 일상 속에서 의미있는 배려관계에 얽혀 있는 인간 모두에게 온전한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시민이 배려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간됨과 시민됨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가능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을 바로 잡고, 지속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 우리가 하는 종의 활동을 실천하는 시민이라면 그것이 누구든 온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Tronto, 2001: 70). 그럼 이와 같은 포용적 인간관과 시민관에 근거하여 온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인정받은 시민들에 의해 배려의 가치가 공동체에 녹아들어 통합적이고도 전체적인 배려가 가능하도록 재편된 공동체의 면모를 10개 항목(Tronto, 2010a: 166-167)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1) 어떤 이의 사회적 기회나 인생의 기회가 성별, 성적 지향, 강요된 신조에 의해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2)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타인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자유가 있다.

(3) 어떤 돌봄 노동은 친밀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4) 모든 돌봄 노동은 좋은 보수를 받아야 하며, 돌봄 노동을 하는 것이나 배려를 받는 것에 있어 계급과 계층의 구분은 없어야 한다.

(5) 배려 제도의 수립과 실천은 취약한 사람과 강건한 사람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될 것이다.

(6) 사람들은 타인의 필요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편 그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복수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져 있으며,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

(7)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배려한다는 이유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경제적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8) 표준화된 모델을 따르는 배려 제도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배려받고자 하는 사람의 감성과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을 두텁게 반영한 배려 제도를 수용할 것이다.

(9) 좋은 배려를 받았을 때 기쁨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배려를 받았을 때 좌절을 표현하는 것 또한 인정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표현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10) 돌봄 노동이 보람있고, 만족스럽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다른 일들과 같은 대우를 받기를 기대한다. 또한, 과도한 돌봄 노동의 부담을 짊어지게 됨으로써 배려관계 밖에서의 삶의 공간이 사라지는 것을 거부한다.

논의를 종합하면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받아 온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는 오히려 구조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작용을 계속하고 있다(Young, 김희강·나상원 역, 2020: 335). 그래서 민주주의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민주주의는 부정의한 조건을 바꾸고 정의를 신장시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다(Young, 김희강·나상원 역, 2020: 28). 그간 민주주의에 관한 논쟁은 공적인 삶, 정치적 삶에서 개인적 삶, 가정에서의 삶을 배제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민주주의에는 배려가 배제되어 왔다. 배려를 민주주의에 포함하면서 배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민주주의 혁명을 도모해야 한다(Tronto, 2012a: 36). 그렇게 형성된 배려민주주의의 이상 아래에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정의의 전제로 삼는 민주사회에서는 어떤 집단적 권력에 의해 어떤 집단이 배제되거나, 평가절하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정의와 배려의 요구 사항들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는 어렵겠지만, 배려 실천은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내릴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적으로 배려하는 영역을 넘어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조건 아래에서 우리는 민주적인 권력이 정의를 구현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Tronto, 1995: 18). 배려 민주주의는 배려 책임 할당에 관한 발언권을 주는 민주주의이다. 즉, 배려 민주주의 아래에서 정치적 삶에 임하는 모든 사람은 배려 책임 분배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Tronto, 2015b: 27). 또한, 배려관계에 얽힌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배려 민주주의가 배려 책임 할당을 전제하는 것이라면, 배려관계에 얽힌 모든 사람은 이 논의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Tronto, 2015b: 28). 한편 배려민주주의의 이상 아래에서 어떤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있다는 것은 배려가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달라진다. 즉, 배려를 필요로 할 때 타인으로부터 배려받을 수 있으며, 자기 스스로를 배려할 여유가 있으며, 자신의 삶에 의미를 더해주는 타인, 동물, 제도, 이상을 배려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이(Tronto, 2015: 38) 풍요로운 삶의 양식이 된다.

2.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제도 및 정책에의 도전

1)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배려 이론가들이 비판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이후 신자유주의)라 함은 모든 사회적 자원을 할당할 수단으로 시장을 신뢰하여 정부 지출을 제한하고, 정부의 첫 번째 목표를 사유재산 보호에 두면서, 사회보장제를 안전망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추구하는 사상과 의식체계를 뜻한다. 따라서 배려윤리 이론가들이 비판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이라는 깃발 아래에서 자유시장에 대한 간섭이라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부 활동의 제한을 추구한다(Tronto, 김희강, 나상원 역, 2021: 97-98). 그렇기에 신자유주의 아래에 인간은 상품의 구매자 혹은 판매자가 되고, 결국 개별 인간이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노동력밖에 없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인간은 선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자율적인 노동자이자 소비자가 된다. 또한,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사회는 개별 인간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 삶 역시 개인 자신이 책임져야 할 선택의 총합으로 여겨진다. 즉,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발달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게 되는 최소한의 배려조차 순전히 개인의 문제이자,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진다. 한편 신자유주의 아래에 정치의 목적은 시장에서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정초하게 된다(Tronto, 김희강, 나상원 역, 2021: 99-102). 그럼 배려 이론가들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어떤 맥락에서 비판하려는 것인지 살펴보겠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들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치환하려 하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는 것마저도 상품화한다. 그러나 서로를 배려하는 것은 효율성, 생산에 관한 것들로 치환하여 상품화할 수 없다. 배려는 인간적 연결이자 인류의 발전, 안녕과 존엄에 관한 과업(Cottam, 박경현·이태인 역, 2020: 56-62)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려 하고, 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을 재고하려고 하기에, 배려 역시도 상품화 및 효율성 재고의 대상이 되고 만다. 여기에 배려는 인건비가 비싸질수록 비용도 함께 커지는 서비스이다. 즉, 배려는 효율성 증진에 반하는 상품이므로 사실상 상품화 및 효율성 재고가 어려운 상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는 모든 서비스가 시장을 통해 제공될 때 가장 잘 제공될 수 있다는 핵심적 가정을 중심으로 배려를 정부로부터 떨어뜨려 민영화하고 순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놓으려 한다. 그 결과 미취학 아동과 노인, 이환자를 낮 동안 집이 아니라 시설에서 맡아 돌보는 돌봄 서비스조차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상품으로 취급되게 한다.

더해서 신자유주의는 배려를 순전히 개인 책임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배려 불평등으로 전이될 것이란 사실을 간편히 외면한다(Lynch, 강순원 역, 2016: 82-84, Tronto, 2012a: 32). 나아가 신자유주의는 배려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이지만, 배려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마치 경제력인 것처럼 혼동케 한다. 여유 있는 경제력으로 배려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한 극소수의 일부 노동자의 삶을 선망의 대상으로 추앙하면서 배려의 필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노동자의 삶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삶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이지만 단적인 예를 들면,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 저소득 일용직 노동자 모두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노동하는 데에 할애하고 있지만, 모든 노동자가 배려의 필요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경제력을 가지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분명 특정 계층이 스스로를 배려할 수 없는 계층 구조(Tronto, 2015: 25)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Tronto는 시장이 마법처럼 모든 사람들의 배려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맹신을 접어야한다고 단언하고, 민주시민은 배려를 시작하기 위해 배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배려 책임이 보편적 가치라고 불리우는 자유, 평등, 정의가 재분배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재분배(Tronto, 2015: 37)될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재편해야 함을 역설한다.

한편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시장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평등하고 개방적일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품게 한다. 그러한 기대와 함께 모든 인간의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다는 가정,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관점에서 행위하게 한다. 그러나 관념적으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우리가 보다 넓은 범위에서 배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즉,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노동자이자 소비자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부추기고, 우리 스스로가 배려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Tronto, 2015: 25-28). 또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자이자 소비자가 적절하고 필요한 정보를 평등하게 소유함으로써 시장에서 평등하게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배려 필요가 있는 모든 인간의 상황을 특징 짓지 못할 수 있다(Tronto, 2010a: 159)는 것을 간과한다.

Tronto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관념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다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모든 인간에게 배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때, 모든 인간이 배려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평등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노동자이자 소비자로서의 삶을 영위함으로써 생산 활동에 임하는 목적은 경제적 활동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려를 지원하는 데 있으며, 경제적 생산 활동을 통해 생산된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가 가능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수단(Tronto, 2015: 38)일 따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결국 빈자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면,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명제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더 큰 부는 불평등을 감소시키지 않았고, 빈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나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무한한 경제 성장과 함께 경제적 부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중독적이고 거짓된 세계관에서 배려를 바라보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러면 배려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것 혹은 경제적 딜레마를 낳는 것 이상으로 배려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Tronto, 2012a: 30). 신자유주의는 재앙적 세계관(Tronto, 김희강, 나상원 역, 2021: 99)일 뿐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팖으로써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국가, 정부와

같은 주체가 배려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함에 있어서 그 자체로 큰 장벽이 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으로 확산된 최종 결과는 각 개인과 가정이 필요로 하는 배려를 각 개인과 가정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온 과거에로의 회귀에 있다(Tronto, 2015b: 25). 자유주의를 표방한 국가는 시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함에 있어 종교라는 요소를 배제하여 시민들이 특정 종교를 가지게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졌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국가도 시민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최소화하여 국가에 배려 책임이 있다는 부담으로부터 국가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배려 책임을 시장을 통해 민영화하는 것은 시민의 배려 필요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지우는 음흉한 해법일 뿐이다(Tronto, 2001: 65).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포용 그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았다. 신자유주의 아래에 모든 집단은 다른 집단에 배타적이게 된다. 점점 더 많은 공공 서비스가 민영화되거나 진절머리 나는 것으로 인식된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력에 부득이 의존하게 되지만, 개인들의 경제력은 점차 사적인 시장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점점 더 많이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쪼들리게 된다. 부익부빈익빈으로 여전히 불신과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 즉 자유의 결핍만이 기다리고 있다. 열악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 스스로가 무가치하다는 신호가 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긴박하게 돌아간다. 타인은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가며, 시민들은 점점 화가 많아지고, 그러한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는 불신과 분노로 가득 채워진다. 정치는 점점 처벌을 위한 것이 되어간다. 이 악순환은 반복된다.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폐쇄된 공동체 안에서 폐쇄된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은 만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간다. 이에 따라 타인을 신뢰하고 타인과 연대할 수 있는 역량은 우리에게서 더욱 멀어지게(Tronto, 김희강·나상원 역, 2021: 273) 된다. 모든 인간이자 시민의 취약성과 의존성에서 파생된 배려 필요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적극적인 윤리적 책임 실현이 필요하다.

2) 신자유주의적 제도와 정책에 대한 비판

앞서서 신자유주의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 그 결과 연대와 신뢰 속에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우리의 감각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거시적인 차원(Tronto, 2015: 21)에서 살펴보았다. 다음은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가 주로 아동의 양육 및 교육의 문제에 있어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신자유주의가 아동의 보육 및 교육이라는 필요, 다시 말해 배려의 필요에 대응하는 방식과 사회복지의 필요에 대응하는 방식을 살피고자 한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와 그 사상을 따르는 정당, 그 정당이 만든 제도와 정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회민주주의적인 국가라고 불리우는 국가에서조차 인기를 끌고 있다. 한마디로 자본의 요구가 배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배려 제도와 정책을 열망하는 시민의 요구를 앞지르고 있다. 이에 신자유주의적 제도와 정책이 우선시 되는 자유민주국가의 시민들이 배려를 이해하는 방식은 배려가 단지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시혜적 조치일 뿐이라는 것이다(Tronto, 2012a: 36). 또한,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층만이 배려의 필요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 인간이라면 배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감춘다.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복지 제도 및 정책 자체의 질적 저하를 유발한다. 선별적 복지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배려 필요를 외면한다는 점, 저소득층의 배려 필요조차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노여움을 유발(Engster, 2010a: 298-300)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복지수혜자는 복지의존자로 낙인찍힌다. 복지수혜자는 어떤 노동도 없이 납세자의 세금을 축내는 국가적인 부담으로 인식된다. 나아가 게으르고 생산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비도덕적이고 병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존재, 개인적 부도덕과 부정의로 인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인식된다. 선별적 복지는 의존하지 않는 인간을 도덕적 인간의 전형으로 여기기 때문이다(김희강, 2016: 15-16). 그렇게 신자유주의의 조정안을 따르려는 국가는 자본과 노동에 대한 통제를 이전

보다 약화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또한, 국가는 자유시장이 완전히 우세를 점할 수 있도록 사회지원 프로그램의 삭감 압력을 받고 있다(Engster, 김희강·나상원 역, 2017: 207).

논의의 초점을 아동 양육과 교육의 문제로 좁히려 한다. 신자유주의적 제도와 정책의 패러다임에서는 아이를 낳아 기르고 가르치는 양육과 교육이 순전히 개인의 책임이 된다. 이에,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과 산출되는 편익을 계산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Tronto, 2001: 74)이 된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에서조차 승자독식의 논리가 적용되어,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자신의 자녀가 다른 부모의 자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게 한다(Tronto, 2015: 22).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다른 사적 프로젝트들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다른 사적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자발성이 떨어진다 할 수 있으며, 유독 여성들에게만 그것의 일차적 책임이 할당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다른 사적 프로젝트와는 달리 인간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선(善)을 낳는 과정이며, 인간의 생존과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그 자체로 인간의 도덕적인 권리를 신장시키는 일(Engster, 2010b: 236-242)이기 때문이다.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을 순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놓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와 정책 패러다임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실제로 OECD에 가입된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에게 현금성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주는 것, 유급 육아휴직과 돌봄 기관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는 것, 부모를 훈련하는 공적 프로그램을 설계 및 운영하는 것, 공교육 제도와 정책을 배려 친화적 환경에 놓일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 모두 아동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하는 유의미한 사회과학적 변인(Engster&Stensöta, 2011: 96-113; Engster&Gonzales, 2012: 227-234; Engster, 2012: 134-136; Engster, 2015: 65-77)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배려 필요가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시장이 그 사람의 배려 필요를 충족시킬 가장 좋은 수단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유연함은 필수적이다(Tronto, 2015: 39).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시장의 메커니즘과 기업들의 이윤 추구 방식을 쉽사리 거스를 수 없음을 고려했을 때 배려 제도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장의 논리를 배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Engster, 2010a: 300-303).

그러나 국가는 그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 시민들을 배려해야 할 책임을 오롯이 개인들에게 떠넘긴 채 저버릴 수는 없다. 국가의 도덕적 권위와 정당성은 그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 시민들을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Tronto et al, 2017: 208). 따라서 비록 배려가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거나 시장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배려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배려의 필요와 실천을 뒷받침해주어야 한다(Tronto, 2010a). 즉, 국가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배려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배려받을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정책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는 그러한 실질적인 제도적, 정책적 조건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할 궁극적 책임(김희강, 2016: 22)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복지는 의존자의 배려 필요뿐만 아니라 의존노동자의 배려 필요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의무(김희강, 2016: 18-19)로 인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복지는 모든 시민들의 배려관계를 지원하고 보장하는 제도 및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복지의 수혜를 받는 개인, 배려관계에 참여하는 시민의 주체성과 행위자성을 상실시키기는 것에서 복원하는 것에로 시민의 평가 초점을 옮길 수 있게 한다(Tronto, 2001). 결국, 배려받을 권리는 사실상 인간 존엄과 등가 하는 기본권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시민의 배려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작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배려는 그 자체로 인간존엄이자 인간긍정이며 배려는 자유 자체를 구성(김희강, 2018b: 25)한다. 배려의 가치를 재고함으로써 제고된 배려의 가치는 복지에 대한 관점을 바꿀 토대가 된다.

Tronto는 아이를 낳아 기르고 가르치는 것이 오직 개인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 인식되어 아이를 낳아 기르고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이 충분하게 뒷받침될 수 있다면, 아이를 낳아 기르고 가르치는 데에 따른 비용이나 편익을 이전만큼 따져보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Tronto, 2001: 74). 따라서 Tronto는 시민들에게 가치의 우선순위를 재고해 볼 것을 요청한다. 다시 말해서 시장을 우선시하는 것을 멈추고, 인간이 인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가치의 우선순위를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 그 결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서적, 관계적 배려의 필요를 바탕으로 시장, 경제, 노동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재구조화할 것을 요청한다(Tronto, 2012a: 34).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민주적 배려를 장려하는 제도와 정책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어 보다 포용적이면서 배려적인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Tronto는 시민들이 배려받기 위해 시장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에게는 기존 배려 제도 및 정책, 새로운 배려 제도 및 정책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책무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배려 제도 및 정책이 배려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순환적인 과정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배려 실천에 따른 반응을 수용하고 배려 실천 과정을 재검토하는 순환적 과정을 통해 타인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배려하는 데 익숙해진 것처럼, 배려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반복적이고 순환적 검토 과정을 거치며 집단행동과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는 데 더 능숙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국가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시민들에게 삶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실제로 우려하는 삶의 문제에 다가설 수 있게 된다. 즉, 정치가 삶의 중심인 배려에 가까워지면서 정치와 시민들 사이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시민들 역시 공적 절차와 더불어 배려 필요에 따른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배려 필요를 충족함은 물론 상호의존의 가치를 높이 평가(Tronto, 2015: 27-40)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제 3 절 함께 배려하는 공동체를 향한 대안

이 절에서는 배려윤리 이론가들이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변혁하여 연대와 신뢰 속에 함께 배려하는 포용적 세상의 도래를 고대하고 있는 바를 조명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배려 시민성과 배려적 상상력을 갖추어 함께 배려하는 시민, 시민권 개념의 재고로 이룩한 함께 배려하는 민주 사회, 촘촘한 배려 제도와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하여 함께 배려하는 국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고하여 함께 배려하는 지구 공동체의 이상을 구체화해 볼 것이다.

1. 함께 배려하는 시민과 사회

1) 배려 시민성과 함께 배려하는 시민

타인을 배려하려는 관점에서 세상을 성찰하는 것은 자기자신의 이해타산만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세상을 성찰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한다(Tronto, 1989: 113). 배려의 도덕적 요청은 시민들로 하여금 자유주의 인간관에서 파생된 이해타산을 따지는 이기적 행위자가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구축하는 이타적 행위자가 될 것을 지시하기(Tronto et al, 2017: 210) 때문이다. 즉, 배려하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시민상(象)은 시장이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자기 이해에 충실한 상인(商人)이 아니라, 타인의 배려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배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배려인(人) (김희강, 2016: 12)이다.

그러한 인간이자 시민이 취해야할 첫 번째 조치는 인간으로서의 삶과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모든 인간이자 시민이 각기 다른 수준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자 시민이 영유아기와 아동·청소년기, 노년기를 살아간다는 점에서 배려 필요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취약한 존재라는 엄연한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모든 인간이자 시민은 배려의 수혜자라는 것이 명료해진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인간이자 시민이 평생토록 배려 필요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모든 인간이자 시민은 타인의 배려 필요 또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즉, 일단 자기 자신이 배려의 수혜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모든 인간이자 시민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그들 스스로와 타인을 배려하는 데 필요한지 자각하게 된다. 한편 타인을 위한 배려를 실천하려는 인간이자 시민이 취해야 할 두 번째 전환적 조치는 그들 주변에 있는 인간이자 시민들의 배려 실천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이웃, 친구와 같이 친밀한 사람들이나 한 가족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이 최선의 배려 실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간적, 문화적 배경, 경제적 조건을 따라 이러한 차이가 심화된다면, 모든 인간이자 시민은 각자의 구체적 배려 필요가 서로 다르다는 것과 스스로를 배려함에 있어 서로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즉, 배려하는 자와 배려받는 자의 복합적인 역할을 고려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인간이자 시민은 더이상 잘못된 추상성에 기초하여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Tronto, 김희강·나상원 역, 2021: 275-276).

이와 같은 전환적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모든 인간이자 시민이 타인을 배려하려는 관점에서 세상을 성찰할 수 있다면, 모든 인간이자 시민은 그 스스로를 배려 시민성을 갖춘 존재로 자신을 탈바꿈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 배려 시민성이라고 함은, 타인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타인의 필요에 책임을 느끼고,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나 역량을 갖추어, 배려 관계망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을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Tronto, 1993: 167)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촘촘한 배려 관계망 속에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연대와 신뢰, 다원성, 존중, 의사소통처럼 모든 인간이자 시민의 더불어 삶을 가능케 하는 자질과 역량 모두 배려 시민성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배려와 배려 필요에 초점을 맞춘다면 진정한 민주시민이란 무엇이고 누구인지에 대하여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배려 필요는 각자 다를 뿐 아니라, 일생 동안 다양하게 나타난다. 모든 인간이자 시민은

어린 시절에 극도로 배려를 필요로 했고,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상당한 수준의 배려를 필요로 하게 된다. 만약 모든 인간이자 시민이 우리 모두 각자의 일생에서 다양한 배려 필요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가지게 될 것을 인식한다면,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와 평등과 불평등이 무엇인지를 재고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Tronto, 1993: 171).

한발 나아가 모든 인간이자 시민이 연대와 신뢰 속에 함께 배려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배려적 상상력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배려적 상상력은 추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배려를 주고받은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 체험을 유사한 처지에 있는 타인의 심정까지 확장해 전이시키는 도덕적, 감정적 능력을 가리킨다. 그리고 배려적 상상력은 각자가 일생토록 경험해 온 배려라는 보편적 경험에서 파생된 상상력이다. 그래서 배려적 상상력은 각자의 삶에 있어서 내가 애정을 주어 나의 애착의 대상이 되었던 내 자식, 내 부모, 내 이웃으로 특정되는 취약한 인간이자 시민들과의 관계적 경험에 기반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위협받고 억눌린 다른 구성원들에게 유대와 연대감을 갖게 되는 도덕적인 능력과 태도를 포함한다. 그렇기에 개인적이라는 이유로 백안시 되어 온 자식, 부모, 이웃에 대한 애틋한 감정도 배려라는 가치 안에서는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확장하여 나눌 수 있는 원동력, 시민적 태도를 고양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로 향하는 항행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김희강, 2021a: 48).

결국 배려시민성, 배려적 상상력과 함께 배려하는 시민은 배려하고 배려받는 배려의 관계망을 함께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책임을 기꺼이 수용하는 존재이다. 즉, 배려 관계 안에 있는 이들 모두가 그 관계를 담임함으로써 어떠한 사회적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는 조건을 함께 마련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배려하는 시민은 다른 배려하는 시민과 함께 배려하기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 구조 속에서 누가 배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배려를 책임지는 사람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하면 연대와 신뢰 속에 함께 배려함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하게 배려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존재들이라(김희강, 2021a: 51) 할 수 있다.

2) 시민권[14]의 재고와 함께 배려하는 사회

시민권 부여 및 획득의 기준은 좋은 시민이라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점을 안내함으로써 정의와 공정에 대한 가치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시민권 부여 및 획득의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언제나 어떤 집단을 포함하고 배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와 연관되었고, 그러한 결정은 언제나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규범과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치 권력을 가진 자 혹은 정치 권력을 가진 집단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시민권 개념이 항상 도덕적이라거나 정의로운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 시민권 부여 및 획득은 주로 공적 영역에서 유급 노동을 함으로써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 결과 무급 돌봄 노동을 하는 주체들은 시민권 부여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배려가 인간 삶의 근본적인 요소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시민권 개념은 배려 실천 여부에 의해서 좌우되어야만 하고,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해당 사회에서 배려를 실천하고 있다면 시민권을 부여해 온전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에 Tronto는 배려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여 배려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온전한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려 민주주의가 배려 책임 할당을 전제하는 것이라면,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Tronto, 2015b: 28). 이는 배려 책임을 맡았다는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 경제, 정치적 불평등을 평등에로 옮겨놓을 최소한의 방법이 된다. 시민권 부여 및 획득 기준으로 배려를 선택한 사회는 배려를 실천하고 있는 모든 개인과 집단의 삶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민주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14) 시민권은 'Citizenship'을 번역한 것이다. 'Citizenship'이 시민성으로 번역될 때는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성향이나 태도, 자질이나 역량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시민권, 즉 어떤 국가의 시민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와 자격을 가리킨다.

(Tronto, 2001: 66-78; Tronto, 2005a: 138-142).

한편 Tronto는 인간 삶에 있어서 배려의 중심성을 바탕으로 시민권 개념을 재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전제를 내세운다. 첫째는 모든 인간은 고도로 의존적이었던 특정한 삶의 시기를 거쳤고, 모든 인간은 취약하기 때문에 또다시 고도로 의존적인 삶의 시기를 거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모든 인간은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있어 타인에 대한 애착과 역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배려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Tronto, 2001: 71).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이자 시민이 배려가 규범과 가치에 있어 중심적인 위치에 서야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모든 인간이자 시민이 배려에 고도로 의존적인 특정한 삶의 시기들을 거친다는 점에서 하나의 집단적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모든 인간이자 시민이 배려 실천에 함께함으로써 민주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배려 필요와 배려 실천을 중심으로 시민권부여 기준을 재구조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민권 부여 및 획득의 기준을 재구조화한 배려하는 사회는 시민들이 배려함에 있어서도 동등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몫을 할당해야 하고, 시민들이 배려받음에 있어서도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 몫을 보장하는 것 모두를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Sevenhuijsen, 2000: 29). 그러한 방식으로 배려 자체에 충분한 가치를 부여하는 배려하는 사회는 배려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허용해야 하며, 누구든 배려를 필요로 한다면 배려받을 수 있음을 보장하는 사회(Tronto, 2001: 78)가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인간의 취약성과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한 배려관계와 그로 인해 촉발된 불평등을 인식함으로써 민주적 제도의 필요성(Tronto, 1996: 150)에 대해 여느 때보다 강력한 필요를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이자 시민의 품위있는 삶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배려의 중심성을 인식하고, 배려관계의 모든 당사자를 배려의 책임을 할당하는 공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배려의 책임이 민주적 방식으로 할당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실질적인 초점을 둔 배려 민주주의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Tronto, 2011b: 166-167). 물론 배려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이자 시민들의 민주적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자동 집행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배려 민주주의로서 자유 혹은 사회 민주주의를 재편한다고 하더라도, 배려관계가 주로 가정 혹은 사회 집단과 같은 작은 원 안에서 그려지는 편협주의, 배려자의 우세한 판단이나 권력이 피배려자의 실제 필요를 압도하는 가부장주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 민주주의가 갖는 이점은 편협주의와 가부장주의와 같은 문제를 직시함으로써 민주적 삶의 결함을 하나씩 메워나가는 데에 도움을 주는 데에 있다(Tronto, 2017: 38).

결국 결함을 하나씩 메워나가며 점진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배려하는 사회는 배려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자 배려 관계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이다. 배려하는 사회는 배려관계 없이 인간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없듯이, 사회도 배려 관계 없이는 존속하고 발전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한편 배려하는 사회에서 배려관계는 책임과 의무에 기초한 공감과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배려관계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연대와 신뢰가 밑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배려하는 사회는 배려가 배려의 필요에 맞게 정당하게 분배되었는지, 분배에 따른 부담과 혜택이 공정하게 분담되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목한다. 배려하는 사회에서는 배려관계가 보호되고 조성되며, 배려관계에 속한 사람들이 배제되거나 착취당하지 않으며, 배려의 책임이 공정하게 분담되고, 배려관계를 제한하거나 저해하는 환경이 정당하게 규제될 수 있다(김희강, 2018a: 208-209). 다시 말해 진정으로 포용적인 민주주의라는 대안적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의 자율성과 독립성에서 나오는 무한한 가능성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의존성과 취약성에서 나오는 유한성을 인식하여 인간 존재가 상호의존하고 있는 배려관계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변혁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보다 깊은 차원에서 도덕을 논할 수 있게 되며, 보다 광범한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게 된다.

2. 함께 배려하는 국가와 지구 공동체

1) 배려 제도 및 정책과 함께 배려하는 국가

전통적으로 누군가를 배려하고, 보살피며, 돌본다는 것은 개인적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아동보육, 건강보험, 노인요양을 비롯한 다양한 배려와 보살핌, 돌봄 정책과 제도에 대한 공적인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그것의 확대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Engster, 2010a: 303). 게다가 신자유주의는 배려 제도 및 정책이 주로 취약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일반의 인식을 강화시켰다. 그 결과 배려 제도 및 정책은 오로지 취약계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의무로서 인식되게 되었고, 취약계층이 아닌 시민들은 사후처방적 성격을 가진 배려 제도 및 정책에 대해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었다(Tronto, 2012a: 36).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는 도덕의 문제이자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다. 배려윤리는 경제 성장이라는 가치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것에 도전하고, 보다 지속가능하며 상호 번영하는 공평한 세상을 위해 장기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국가적, 초국가적 사회 제도 및 정책의 창출을 요구하기(Robinson, 2015: 306) 때문이다.

특히 여성주의가 대두된 이후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사회 진출에 성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들 또한 배려를 실천할 여력을 소진해가고 있다. 즉, 후기 산업 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특히 가정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할 만한 주체가 증발하게 되는 돌봄 공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는 사회 전반의 돌봄 위기로 일컬어지는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 배려윤리는 배려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심적이었던 기존의 질문들이 수정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즉,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분배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회 제도를 조직할 것인지를 묻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없으며, 시민들을 배려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한 시민적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개발하려면 어떻게 사회 제도를 조직해야 하는 것인지 물을 수 있어야 한다(Eichner, 2015: 88)는 것이다.

그러한 물음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배려가 인간 삶의 근본적 요소라는 것, 그리고 배려의 목적은 모든 인간이 가진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논의함으로써, 국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배려 제도 및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배려 필요의 특수성과 다원성을 고려함으로써, 배려가 필요한 주체나 집단이 원하는 방식으로 배려 제도 및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배려 필요의 편재성(ubiquity)과 배려 필요의 실질적 충족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고려함으로써, 배려 제도 및 정책의 설계 및 실행 중에 필요 해석의 정치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권력의 위계 구도를 민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인간의 삶에서 근본적이라 할 수 있는 물질적, 비물질적 배려 필요와 관련하여 연대와 신뢰 속에서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적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 제도와 정책의 과제가 된다. 다시 말해 국가가 제대로 된 배려 제도 및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시장에서 논해지는 기준들, 배려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나 효율성, 혹은 배려 실천 주체 간의 경쟁 여부가 아니다. 국가가 제대로 된 배려 제도 및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모든 인간은 취약하여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상호의존성,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른 배려 필요를 갖는다는 의미에서의 다양성과 특수성, 편재성, 그러한 배려 필요 충족을 위한 실천 과정에서 드러나는 복잡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Sevenhuijsen, 2003; 187; Tronto, 2010a: 159-162; Tronto, 2015: 34-39).

따라서 배려하는 국가는 모든 인간이자 시민이 배려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이자 시민이 자신들의 배려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제도 및 정책적 조건을 마련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역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배려하는 국가는 학대와 지배에 취약한 배려하는 자와 배려받는 자 모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배려관계가 정의

롭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가는 배려관계에서 파생된 불평등과 부정의를 교정함으로써 배려관계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김희강, 2021b: 51-52). 나아가 배려하는 국가는 모든 인간이자 시민의 삶에서 나타나는 배려 필요를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배려하는 국가는 모든 인간이자 시민 모두가 배려의 수혜자였다는 사실, 모두가 타인과 공동체로부터 배려를 받았다는 점에서 빚을 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모두가 타인과 공동체로부터 배려를 받아 쌓은 빚을 갚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는 국가다. 따라서 배려하는 국가의 모든 인간이자 시민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배려 필요를 폄하하거나 낙인찍지 않는다. 누군가를 배려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불리함에 처하지 않는다. 배려하는 국가는 배려할 권리와 배려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적 의무로서 배려 책임을 상정한다. 또한, 배려하는 국가는 민주적 과정과 조건 속에서 배려 책임의 분배를 논의할 수 있는 국가다. 이와 같이 배려하는 국가는 불평등과 불리함을 겪는 배려하는 자와 배려받는 자라는 배려관계의 당사자를 넘어 모든 인간이자 시민이 배려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배려가 배제된 사회의 부당함을 반성하면서 배려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전망할 수 있게 할 것이다(김희강, 2021b: 71; Engster, 2010a: 304-305).

모든 인간이자 시민의 유급 육아휴직 보장, 모든 인간이자 시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어떤 명백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비추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배려윤리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모두 긴밀히 상호연결되어 있는 제도 및 정책으로 인식된다. 배려윤리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모두 인간의 삶에서 현현하는 불가피한 의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제도와 정책이기 때문이다(Engster, 2010a: 296-298).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해당 정책을 비현실적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Engster, 2015: 17). 배려하는 국가의 배려 제도 및 정책은 인간의 의존성과 취약성에서 발생하는 배려 필요에 대한 국가의 응답이자 의무이자 책임이다.

2) 돌봄 노동의 가치 제고와 함께 배려하는 지구 공동체

앞서서 사회와 국가 공동체는 배려 관계에 엮여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배려 관계에 엮여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여기서 배려 관계에 엮여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라 함은 이미 국가라는 경계 안에서 시민권을 부여받은 돌봄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가라는 경계 안에서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 돌봄 노동자까지 모두를 포괄한다. 신자유주의의 맹위와 함께 돌봄 노동자의 돌봄 노동은 국가적 한계를 넘어 초국가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Tronto, 2005a: 142; Tronto, 2011b: 175).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돌봄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시정되지 않고 있어 돌봄 노동이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하나의 값싼 상품이 된 것에서 기인한다.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에 따라 상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저비용을 좇아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으로 이전한 것처럼, 사회 재생산에 필수적인 돌봄 노동 또한 저비용을 좇아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것을 이전해온다는 것이다(Tronto, 2011b: 162; Tronto, 2012a: 32-33; Tronto et al, 2017: 208).

게다가 필리핀과 같은 저개발국 정부는 자국의 노동력을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활성화된 송금 경제를 확장시키기 위해 TV를 통해 이주 돌봄 노동을 광고하고 있다. 즉, 저개발국 정부는 당장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돌봄 자원의 유실이 불러올 참혹한 결과는 깊이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돌봄 자원을 수출함에 있어 적극적인 시장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이와 같은 행태는 개인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행복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세계관에 의해 합리화, 정당화되고 있다(Tronto, 2015b: 25). 시장의 논리는 가난한 국가의 여성이 부유한 국가로 이주하여 돌봄 노동자로 일하게 함으로써 가난한 국가의 돌봄 자원이 유실되는 Global Care Chain(Parrenäs, 2001; Ehrenreich & Hochschild, 2003; Parrenäs, 2012)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저개발국이 돌봄 노동자를 선진국에 내어주는 것은 사실상 저개발국의 발전을 이끌 최고의 그리고 가장 밝은 두뇌의 유출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돌봄 노동력을 유실한 결과, 돌봄 노동자가 기존에 속해 있던 공동체는 재앙적 사태를 맞이할 것이지만, 선진국은 저개발국의 두뇌 유출에 아무런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값싼 돌봄 노동력이라는 혜택만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단적인 예로, 전 세계 의료인 중 단지 3%의 비율을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의료인이 전 세계 질병 부담의 24%와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돌봄 노동자의 국제적 이주는 분명 정의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Global Care Chain이 촉발한 돌봄 불균형은 정의롭지 못하다. 기아와 전염성 질환에 노출되어 그 누구보다 시급한 배려 필요를 가진 수많은 어린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배려받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이는 명확해진다(Tronto, 2011c: 168; Tronto, 2015b: 22-25).

나아가 Global Care Chain이 낳은 부정의함의 영향력은 저개발국과 저개발국에서 이주한 돌봄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의 삶에 그치지 않는다. 금융 위기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복지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국가는 복지 비용 지출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합법적인 이민자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한편 국가의 복지 제도 및 정책을 대신할 불법적인 돌봄 노동자 유입을 묵인해왔다. 즉,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부가 주도하여 배려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복지를 제공하려 하기보다 배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불법 이주 노동자를 직접 고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눈감아 주는 일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와 정부의 이중적 행태는 적어도 공적인 삶은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모든 시민들의 생각을 마비시켰고, 공적인 삶을 단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유인했다. 그 결과 정부와 국가가 허용한 도덕적 해이에 의해 시민들의 사고는 오염되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배려와 보살핌, 돌봄을 생각하는 것을 더 어렵게 했다(Tronto, 2002: 36-41; Tronto, 2010b: 78-84; Tronto, 2011c: 165-170; Tronto, 2015b: 25-26).

물론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배려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한다면, Global Care Chain은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간단한 시장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Global Care Chain의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문제는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배려윤리의 관점에서는 배려가 인간 삶의 근본적 요소이기 때문에, Global Care Chain은 배려 책임이 부정의하게 할당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되고, Global Care Chain은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인식된다.

모든 세계화가 반드시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세계 경제를 사회적 목적에, 구체적으로는 인간 돌봄의 목적에 맞게 복무하도록 만들 수 있다(Engster, 김희강·나상원 역, 2017: 207). 물론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은 우리가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끝없을 테지만, 위정자들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일반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국가와 기업의 부를 창출하는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는 공적 삶과 개인적 삶에 있어 우리와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배려 필요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고, 우리 삶에 미치는 직접적 악영향을 완화하는 어떤 장치를 위정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Tronto, 2005a: 143). 그 장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배려 필요가 있다는 보편성을 인식하고 이주 돌봄 노동자와 우리 사이의 공통성을 포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런 뒤에, 이주 돌봄 노동자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인정해줄 수 있는 정치, 사회적 지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도덕적 성찰을 거쳐, 이주 돌봄 노동자에게도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데에 그 장치가 있다. 또한, 그 장치는 이주 돌봄 노동자와 내국인이 연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배려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모든 인간이자 시민들의 기본적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조직해내는 데에 있다. 그래야만 배려받으며 안녕과 행복을 지킬 수 있었던 자신의 삶이 지구적 차원의 거대한 불평등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인식하고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된다(Tronto, 2011c: 169-181; Tronto, 2015b: 29).

제 Ⅳ 장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 논의의 도덕교육적 함의

본 장은 크게 세 개의 절로 구성된다. 세 개의 절은 모두 앞서 살펴본 배려 이론가들이 제기한 세상에 대한 비판과 그에 따른 대안적 세상을 비추어 그것의 도덕교육적, 교육적 함의를 추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에서는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에서는 교사 및 교사교육의 역할과 책무에의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제 1 절 도덕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함의

이 절에서는 도덕과 교육과정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도덕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와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를 중심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도덕과 교육과정을 크게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설계의 개요, 성격 및 목표들을 살피며,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이 교육과정의 형식적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대목들을 찾아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다.

1. 도덕과 교육과정의 ‘설계의 개요’ 개선

1) 공통 교육과정의 ‘설계의 개요’ 개선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서 교과의 교육과정 설계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더불어 교과와 총론의 연계성, 교육과정 구성 요소(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 등) 간의 관계, 교과 역량 등을 설명해놓고 있다. 따라서 ‘설계의 개요’는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전반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대목들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의 첫 문단 초반부다.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총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인간상인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가치와 도덕의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포용성과 주도성은 도덕과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도덕적인 인간이 지니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도덕성의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또한 창의성에는 도덕적 상상력의 함양을 통해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상상력은 창의성이 수반할 수 있는 고립성과 배타성 등의 어두운 측면을 완화시키는 도덕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부, 2022b: 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의 중점(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의 중점(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 사이에 드러난 가장 큰 차이는 '포용성', '사람', '성장'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다. 교육 중점의 변화는 사실상 교육과정 개정의 초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포용성과 주도성이 도덕과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도덕적인 인간이 지니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도덕성의 핵심적인 요소들이라고 간단히 가정한 채, 도덕적 상상력의 함양을 통해서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교적 긴 서술을 부연하는 것은 자칫 교육과정 개정의 초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게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교육 중점을 정초했던 것을 상기해 보았을 때,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창의성에 대해 유독 강조하여 서술하는 것은,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학생의 창의성 신장에는 소홀했던 것이었는지 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 이에 창의성을 강조한 만큼 포용성도 함께 강조할 수 있다면, 교육과정 개정의 초점을 살리면서도 도덕과의 기여 방식을 보다 상세하게 서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안은 다음과 같다.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총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인간상인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가치와 도덕의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한편 포용성에는 도덕적인 성향, 태도, 실천으로서의 배려, 보살핌,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려, 보살핌, 돌봄의 실천은 차별, 혐오, 배제처럼 우리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완화할 도덕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창의성에는 도덕적 상상력의 함양을 통해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덕적 상상력은 창의성이 수반할 수 있는 고립성과 배타성처럼 어두운 측면을 완화할 도덕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관점에서 포용성에 대한 강조를 서술한 것 역시도 포용성이라는 낱말이 가지는 의미를 모두 담아내기에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의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포용성에 관한 자유주의적 접근(이경원 외, 2023: 425)은 차별과 배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용성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 이에 모든 인간이자 시민의 삶에 존재하는 배려 필요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공적 책임의 강화를 주장하는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당위적 요청에 기반하여 포용성에 관한 서술을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기획일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의 첫 문단의 중반부를 이루는 문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도덕과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의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도덕과는 비판적이면서도 배려적인 사고력과 도덕판단 능력,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도덕공동체 의식, 생태위기에 공감하는 도덕적 상상력, 새로운 정보기술 사회가 요구하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윤리 등의 교육을 통해 총론이 목표로 하는 시민 역량과 생태 전환 역량, 디지털 역량의 함양에 기여하는 교과로서도 역할을 해낼 수 있다(교육부, 2022b: 3).

‘비판적이면서도 배려적인 사고력’이라고 서술함으로써 비판과 배려를 어떤 사고의 유형인 것처럼 한 데 엮어 서술한 대목은 공통 교육과정의 설계의 개요와 성격 및 목표는 물론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설계의 개요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해당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비판적인 사고와 배려적인 사고가 대립쌍을 이룸과 함께 도덕과가 지향하는 사고 유형의 주축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아가 비판적인 사고와 배려적인 사고력이라는 표현이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이 표현이 교육과정 개정의 여러 초점 중 하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와 배려적 사고를 한 데에 엮는 것은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서 보았을 때,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아 검토의 여지가 있다.

먼저 비판적인 사고력과 대립쌍을 이루는 사고의 한 유형으로서 배려적인 사고력을 굳이 분석해보자면 배려적인 사고력은 타인의 감정과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는 어떤 성향이나 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관점에서 보면, 배려는 단순히 성향과 태도의 차원에서 내면화해야 할 가치일 뿐만 아니라, 행동과 실천의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능력이자 역량이다. 즉, 배려적인 사고력이라고 서술함으로써 배려를 성향이나 태도의 차원 안에 묶어두는 것은 배려의 포괄적 의미를 담지할 수 없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만약 비판적인 사고력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배려적인 사고력을 상정한 것이라면,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 아래에 배려적인 사고력으로 정치철학과 사회, 국가, 지구공동체의 비판적 변혁을 꾀하려는 시도가 가리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즉, 비판적인 사고와 배려적인 사고가 등가적 관계 아래에서 도덕판단 능력을 구성하는 대표적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배려라는 용어에 대한 주석을 제시함으로써, 배려라는 용어를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려 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거나, 비판적인 사고력에 대응할 만한 또 다른 사고력으로 배려적인 사고력을 대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배려적인 사고력을 대신할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도덕과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의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도덕과는 비판적이면서도 포용적인 사고력과 도덕판단 능력,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도덕공동체 의식, 생태위기에 공감하는 도덕적 상상력, 새로운 정보기술 사회가 요구하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윤리 등의 교육을 통해 총론이 목표로 하는 시민 역량과 생태 전환 역량, 디지털 역량의 함양에 기여하는 교과로서도 역할을 해낼 수 있다.

미국철학회가 비판적 사고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판적 사고는 해석, 분석, 평가와 추론을 산출하려는 의도적이고 자기 규제적 판단인 동시에, 그 판단의 근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증거적, 개념적, 방법론적, 준거적, 맥락적 측면들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산출하려는 의도적이고 자기 규제적인 판단(Facione, 1990: 1-5)이라고 정의된다. 그렇다면 포용적 사고가 비판적 사고의 결과 산출된 해석, 분석, 평가와 추론, 설명이 가질 수 있는 결함이나 이질성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완해줌으로써 비판이 비판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관점이나 생각, 행동을 낳을 수 있게 한다면 포용적 사고는 창의적 사고의 발로가 되기에도 충분하다. 또한, 새로이 개정되는 교육과정에서 포용성은 하나의 개정 초점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포용성은 도덕과 교육과정 차원에서도 재차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사회 내부적인 갈등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타인 혹은 반대편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 혹은 자기 편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돌이켜보았을 때,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는 서로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서로를 포용할 때는 포용할 수 있는 사고력, 더 나아가 그러한 성향과 태도, 실천이 요청된다 할 수 있다. 결국 '비판적이면서도 포용적인 사고력'으로 비판적이면서도 배려적인 사고력의 자리를 대체하는 일은 윤리학, 철학, 교육학을 비롯한 여타의 다양한 학문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도덕과가 국가·사회적 필요에 응답하는 적실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의 첫 문단의 후반부를 이루는 문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도덕과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도덕적 인간을 길러냄으로써,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각자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총론의 지향에도 적극적으로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22b: 3).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관점에서 위 문장을 조망해보면 자율성과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도덕적 인간이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 인간이 자율성과 주도성을 발휘하기 이전, 이후에 거쳐야 하는 선결 조건들을 잊은 서술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총론 수준에서 제시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학생들 스스로 각자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유주의적 인간관에 강하게 경도된 서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적 인간관에만 근거하여 인간으로서의 지향점을 서술한다면 인간 삶의 모든 시기를 포괄할 수 없을뿐더러 인간의 위상 자체를 높게 평가하여 교육 가능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 회의감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는 서술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의존성과 취약성,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상호의존성,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Hamington&Flower, 2021)을 생각해본다면, 한 인간의 삶은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지경을 넘어선 시공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 인간의 삶은 수도 없이 많은 배려관계로 조직되어 있는 촘촘한 배려의 연결망을 통해 배려받아 왔고, 배려받고 있고, 배려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비판적 관점을 반영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동시에 도덕과는 성실과 배려, 정의와 책임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의 자율성과 주도성, 상호의존성을 모두 자각한 도덕적 인간을 길러내고자 한다. 그렇게 길러진 상호의존하는 도덕적 주체로서의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과 타인은 물론이요, 사회와 국가 공동체, 전 지구적 공동체 차원의 안녕과 행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총론의 지향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설계의 개요’ 개선

앞선 항에서 공통 교육과정의 설계의 개요를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포용성이라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초점을 보다 깊이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비판적 사고와 배려적 사고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한 이후에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도덕교육적 인간상을 설정함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인간상에 경도된 서술에 보완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짚을 수 있었다. 본 항에서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설계의 개요를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 근거하여 검토하되, 앞서 검토한 내용은 제외하고 서술하고자 한다.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서 조망해보았을 때, 유의미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설계의 개요의 대목은 인문학과 윤리 교과를 규정하는 대목이다.

‘인문학과 윤리’는 가치관계 확장법을 근간으로 인류 고전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서고금의 윤리사상 및 인문학, 자연과학의 고전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세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쟁점들을 그 고전의 내용에 비추어 탐구하고 성찰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자기 인식 및 주도성, 비판적 사고와 배려, 도덕적 정서, 협력적 의사소통, 도덕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교육부, 2022b: 27-28).

공통 교육과정의 설계의 개요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설계의 개요에서도 비판이라는 키워드와 배려라는 키워드를 하나로 묶은 서술이 등장한다. 물론 비판적 사고와 배려라고 서술했기 때문에 비판적이면서도 배려적인 사고라고 서술하여 배려를 단순히 성향이나 태도의 범주에 묶어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한,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비판적 사고와 배려를 곧바로 짝짓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를 차치하고 나면 배려가 하나의 교육 초점으로 자리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라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인식 및 주도성, 비판적 사고와 배려, 도덕적 정서, 협력적 의사소통, 도덕공동체의식이 과연 같은 층위에서 논해질 수 있는 어떤 성향이나 태도, 자질이나 역량인지에 대한 의문 부호는 쉽게 지워질 수 없다.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관점에 서있는 Tronto&Fisher와 Engster의 배려 개념 정의를 종합하여 그 의미를 정리한다면, 모든 생명이 생물학적으로 긴요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모든 생명이 기본적 역량을 발달시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생명이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고통을 피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바로 잡고, 지속시키고, 유지시키는 모든 일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기 인식 및 주도성, 비판적 사고, 도덕적 정서는 어떤 도덕적 주체가 배려를 실천하려 할 때 필요로 하게 되는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덕공동체의식은 배려를 실천하는 공동체적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석은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 안에서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을 학생들이 체득해야 할 핵심 가치로 설정해놓고 있다는 것을 반추한다면, 배려는 성실, 정의, 책임과 함께 자기인식 및 주도성, 비판적 사고, 도덕적 정서, 도덕공동체의식보다 높은 층위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핵심 가치인 배려를 낮은 층위에서 사용하여 소모하기보다는, 비판적 사고와 짝지을 수 있을 만한 포용적 사고로 배려를 대신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해보고자 한다.

'인문학과 윤리'는 가치관계 확장법을 근간으로 인류 고전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자 한다. … 이를 통해 <u>학생들이 자신의 생활세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쟁점들을 그 고전의 내용에 비추어 탐구하고 성찰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자기 인식 및 주도성, 비판적 사고와 포용적 사고, 도덕적 정서, 협력적 의사소통, 도덕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데 초점</u>을 맞춘다

2.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 개선

1) 공통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 개선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목표를 총괄 목표와 학교 급별 목표로 분류하여 제시한 바 있다. 그 중에서 총괄 목표의 세 번째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술로 도덕과 교육의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3)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개인이 시민 사회와 국가, 지구 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를 특히 삶의 의미 물음과 연관지어 찾아볼 수 있는 능력과 실천 성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부, 2015: 5).

위와 같은 목표는 도덕과교육이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개인으로 상정하고 그러한 개인들로 구성된 시민사회와 국가, 지구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개인의 삶과 연관하여 성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실천 성향을 함양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은 목표는 자유주의적 인간관에 그 근거를 두고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개인으로 손쉽게 상정했고, 교육과정 전반이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강하게 반영케 함으로써 교육내용을 설계할 때에도 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사상과 이론을 중심적으로 차용할 수 밖에 없게 했다. 그러나 초점을 학생으로 옮기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발달 및 생활 수준이 과연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개인이 살아갈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실천 성향을 기르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영유아기를 벗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 안의 배려 주체에게 의존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라는 특정 삶의 시기는 배려에 관한 학습을 함에 있어서 만큼은 삶의 그 어느 시기보다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교육목표를 서술하는 두 번째 문단에서 도덕과 교육에 임하게 될 학생을 상정함에 있어서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개인으로 학생을 그리기보다는 타인과 상호의존적으로 얽혀 살아가고 있는 학생의 삶의 공간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는 데에 주안점을 두면서, 도덕과 교육을 통해 학생이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태도와 역량을 타인과의 관계 안에 정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덕과는 또한 인간의 삶에 내재해 있는 도덕적 차원에 관한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삶의 속성에 관한 인식 및 수용, 그 타자들을 대하는 도덕적 태도와 실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교육부, 2022b: 5-6).

이처럼 타자와의 관계를 중시한 교육 목표에 관한 서술은 이전의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에 관한 서술과는 다르게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재론, 상호의존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재론을 반영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배려윤리 이론가들이 지향하는 인간 존재론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도덕과교육의 목표와 배려의 관계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배려와 보살핌, 돌봄의 실천이 충분히 연관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고, 배려윤리와 그것의 실천이 도덕과교육의 교육내용을 자유주의에의 경도에서 균형에로 이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도덕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중에서 개인적 차원의 도덕적 성찰에 관한 덕목이나 주제를 제외하고 나면, 개인의 권리나 자유보다는 공동체적 삶이나 연대에 관한 덕목이나 주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는 (황인표·강승희, 2021: 94) 하지만, 도덕과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적 덕목 함양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참여와 정의 지향의 두 목표 간의 조화를 꾀할 대안(김형렬, 2022: 180)을 찾고 있고, 배려윤리는 공동체적 삶이나 연대를 성취해내려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2)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 개선

2022 개정 도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현대사회와 윤리,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윤리문제 탐구, 네 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네 개의 과목 모두 각각의 성격 및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네 개 과목 각각의 성격 및 목표를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서 검토해보았을 때, 유의미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대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현대사회와 윤리의 목표 중 다섯 번째 항목이다.

(5) 예술 및 의식주 생활, 경제생활의 윤리 문제를 성찰하고 다문화 사회의 갈등 해결 방안을 탐구하여,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배려와 관용을 내면화한다(교육부, 2022b: 32).

앞서서도 배려는 타인을 위하려는 성향이나 태도일 뿐 아니라, 타인을 위하는 능력이자 역량이 되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와 윤리의 목표 중 다섯 번째 항목은 배려를 관용과 함께 내면화 해야 할 대상으로 서술함으로써, 배려를 성향이나 태도의 차원, 정서적 차원 안에 묶어두고 있다. 현대사회와 윤리의 성격 및 목표가 실천윤리학적인 관점으로 다양한 문제를 탐구 및 성찰함으로써 윤리적 사유와 성찰이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배려와 관용을 실천한다’는 서술로 배려의 실천성을 담보함으로써 보완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또한,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배려적 성향과 태도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적 성향과 태도의 내면화를 강조한 본래의 서술을 포괄하는 차원의 서술이 될 수 있다. 대안은 다음과 같다.

(5) 예술 및 의식주 생활, 경제생활의 윤리 문제를 성찰하고 다문화 사회의 갈등 해결 방안을 탐구하여,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배려와 관용을 실천한다.

다음으로 윤리와 사상의 성격과 목표에 각각 서술되어 있는 표현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후에 검토해보고자 한다.

윤리적 삶의 주체이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습자들은 한국 및 동·서양의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을 학습함으로써 여러 윤리적 관점들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를 탐구하고 성찰함으로써 윤리적 삶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자율적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교육부, 2022b: 47).

'윤리와 사상'은 한국 및 동·서양의 주요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에 대한 학습을 통해 다양한 윤리적 관점의 핵심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며, 윤리적 삶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탐구하고 성찰함으로써 융합적 사고 능력과 주체적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부, 2022b: 47).

위의 대목을 짚은 이유는 윤리와 사상을 학습할 학생을 윤리적 삶의 주체이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삶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만 학습의 목표를 정초한 것에 있다. 즉, 윤리적 삶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중에는 윤리적 삶의 주체로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윤리적 삶의 주체로서 관계적이고 협력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에 비해 윤리와 사상의 성격 및 목표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만 강조한 데에 있다. 또한, 교육과정 총론 수준에서 창의성과 포용성을 교육의 중점의 두 가지 초점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융합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만 학습의 목표를 정초한 것에 있다. 다시 말해 창의성이라는 교육의 중점이 교과 특성을 반영하여 융합적 사고 능력으로 구현된 것에 비해, 포용성이라는 교육의 중점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구현된 바가 없다는 데에 있다. 물론 곧 성인기로의 진입을

앞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이기 때문에, 자율성, 주체성,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강조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성인기에 입문한다 하더라도, 타인,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 내부의 도덕적 주체들과 맺는 상호의존적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인,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상호의존성을 자각함에 따라 타인과 외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강조 또한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윤리적 삶의 주체이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습자들은 한국 및 동·서양의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을 학습함으로써 여러 윤리적 관점들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를 탐구하고 성찰함으로써 윤리적 삶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자율적이면서 협력적인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윤리와 사상'은 한국 및 동·서양의 주요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에 대한 학습을 통해 다양한 윤리적 관점의 핵심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며, 윤리적 삶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탐구하고 성찰함으로써 융합적이면서 포용적인 사고 능력과 주체적이면서 협력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끝으로 인문학과 윤리는 삶의 상호성을 인식하고, 자유와 평등의 의미를 이해하여 정의의 원칙을 탐구하게 하는 것을 교과의 교육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윤리문제 탐구는 행복과 윤리, 사생활 보호, 사회적 차별 표현, 지구촌 난민 등의 문제를 탐구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것을 교과의 교육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두 교과의 경우, 다른 교과에 비해 그 역사가 짧기에 교육내용의 변동폭이 큰 편이기도 하다. 이에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이 교육내용 구성의 측면에서 기여할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다음 절에서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이 내용적 측면에서 기여할 방안을 찾고자 한다.

제 2 절 도덕과 교육내용 개선을 위한 함의

이 절에서는 도덕과 교육과정의 뼈대라 할 수 있는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한 교육내용을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서 논해보고자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내용체계와 핵심 아이디어를 다루는 첫 번째 항은 도덕과 교육과정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을 다루는 두 번째 항은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1.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와 '핵심 아이디어' 개선

1)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표' 개선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과 달리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초·중등 도덕과 교육과정을 한 데에 묶어 제시함으로써 교육내용의 학교급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와는 다르게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각각의 영역별 내용체계를 제시하다보니, 핵심 가치가 각각의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비추어지게 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서 조망했을 때 배려는 타인과의 관계 영역에만 국한된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배려는 어떤 도덕적 주체가 타인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시켜 주는 데만 국한된 가치가 아니다.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서 배려와 보살핌, 돌봄을 실천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영역을 넘어서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요청되는 도덕적, 윤리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은 배려가 정의에 앞선다거나, 배려는 정의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다면서 정의와 배려를 뚜렷이 구분하여 이분적 구도에서 관계를 설정하려는 논쟁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즉,

배려는 정의와의 결합과 융합을 추구하면서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적 수준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는 비단 배려뿐 아니라, 성실, 정의, 책임의 핵심 가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 초점은 도덕과 교육과정이 채택하고 있는 내용 구성 원리인 가치 관계 확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가치 관계 확장을 따라서 기획된 네 영역은 개념상으로는 구분되어 있으나, 네 영역의 구분은 사실 느슨하고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치 관계가 도덕적 주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고, 가치 관계 확장이 도덕적 주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가 도덕적 가치에 의해 규정되고 그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정창우, 2013: 408-410)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통 교육과정의 내용체계표는 내용체계표의 상단에 한 개의 행을 추가하여,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 모두가 각 영역에서 일정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일 필요가 있다. 다만 배려와 보살핌, 돌봄은 제아무리 촘촘한 배려 제도와 정책이 갖추어진다고 하더라도 배려 관계 주체들 사이에 주고받는 실천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타인과의 관계 영역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핵심 가치인 것은 분명하다. 이에 각 영역이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가치를 음영 처리한다면 그 의미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d>핵심
가치</td><td>성실</td><td>배려</td><td>정의</td><td>책임</td></tr>
<tr><td>핵심
아이
디어</td><td colspan="4">· 배려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기반으로 타인의 삶을 개선한다.
· 차이의 존중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이끈다.</td></tr>
<tr><td rowspan="2">범주</td><td colspan="4">학년군</td></tr>
<tr><td>3-4학년군</td><td colspan="2">5-6학년군</td><td>중학교</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r>
</table>

[표 4-1]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표 개선안

2) 도덕과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 개선

한편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과 달리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총론 수준의 요청에 따라, 단어 수준으로 제시되었던 핵심 역량으로서의 교과 역량을 삭제하고 영역별 역량을 문장으로 집약한 형태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을 설계한 연구진은 핵심 아이디어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과 영역과 역량을 연결하고 학생의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도덕과는 각 교과 학습 내용의 본질을 드러내면서도 궁극적으로 체득한 도덕함이 학생들의 일상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핵심 아이디어의 역량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이경원 외, 2023: 62-63). 그렇다면 핵심 아이디어는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보다 넓은 의미를 함축하여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공통 교육과정의 타인과의 관계 영역 내용 체계표에 제시되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 중 첫 번째 항목은 개선 필요가 분명하다. 해당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배려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기반으로 타인의 삶을 개선한다 (교육부, 2022b: 8).

위 항목의 서술이 갖는 문제는 배려의 목적이 타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는 뉘앙스를 주면서 배려의 실천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더 나은 입지를 갖춘 배려자가 피배려자를 위해서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비추어지게 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위 항목의 서술이 갖는 문제는 배려의 목적이 배려자와 피배려자의 이원적 관계에서 배려자의 배려로 피배려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게 한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배려자와 피배려자 사이의 비좁은 이원적 배려관계에서 이루어

지는 피배려자에 대한 배려자의 일방적 배려는 배려자와 피배려자 간의 권력 불균형과 불평등한 배려관계의 형성의 단초를 제공할 뿐이며, 이는 배려자와 피배려자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서 배려는 자신과 타인을 모두 포함한 모든 인간이 배태한 취약성과 의존성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배려 필요를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려는 타인의 취약성과 의존성에서 발생한 배려 필요를 자신의 배려 실천을 통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반대로 자신의 취약성과 의존성에서 발생한 배려 필요를 타인의 배려 실천을 통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의존적 책임 이행과 상호의존적 책임 이행을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바로 잡힌 제도적, 정책적 환경 모두를 포괄한다. 즉, 연대와 신뢰 속에 함께 배려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취약성과 의존성에서 기인한 배려 필요를 미루어 자신의 삶은 물론 모든 인간의 사회·공동체적 층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를 담아낸 대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 배려 실천은 타인의 배려 필요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기반으로 타인은 물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삶을 개선한다.

물론 이와 같은 대안 역시 배려가 타인의 삶을 넘어 자신의 삶, 모든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도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타인과의 관계 영역에서 제시할 핵심 아이디어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핵심 아이디어라는 교육과정 상 새로운 개념이 확산성, 의미 확장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본 연구가 제안한 대안은 배려의 넓은 외연을 핵심 아이디어가 적절히 담아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 아이디어의 하위에 놓인 내용 요소들이 배려의 넓은 외연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가 있다.

2.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개선

1) 공통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개선

Noddings는 자신의 배려 교육론을 실현할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로 ‘봉사’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 미국의 국가 차원의 연구는 봉사 학습에 참여한 대학생들 중 50% 이상이 봉사의 가장 혹은 매우 중요한 결과물로서 “내가 봉사했던 사람들이 나와 같다”라는 점을 배웠다거나, 봉사 학습에 참여한 대학생들 중 77%가 봉사의 가장 혹은 매우 중요한 성과로서 “사회적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한 배움을 얻었음(Lapsley&Power, 정창우 역, 2008: 558)을 보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 학습이 학습자로 하여금 사회정의와 공동체감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학습자의 도덕적 실천을 강화(박혜준·김윤경, 2010: 196-202)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봉사와 관련된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이 어떤 학교급에 위치하고 있는지, 봉사와 관련된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이 도덕과 교수·학습의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어떤 학습 효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있다.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줄곧 초등학교 5-6학년군 도덕에만 봉사를 구현한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을 포함해 오고 있다. 즉, 봉사 역시 다른 내용 요소나 성취기준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높아감에 따라 교육 내용적 측면에서 발전, 심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지만, 교과의 교육내용 적정화라는 거센 요구와 중학교 이후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함에 따라, 초등학교 도덕에만 봉사와 관련된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학교급 간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초등학교 도덕의 수준에서만 봉사를 학습한다고 해서 봉사 학습의 효과로 규명된 사회정의나 공동체감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는다. 초등학교 도덕의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봉사 학습은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상 사회나 공동체 안의 소외 계층이나 약자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학생 자신이 경험해 온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초등학생의 유능감과 자아 존중감 발달에 초점을 둔 것들(박혜준·김윤경, 2010: 203-209)로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학교 이후 교육과정에서도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봉사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초등학교 도덕의 수준에서 봉사에 대한 체계적 학습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이루어진다면, 봉사에 관한 학생의 인식이 배려윤리에 대한 여성적 접근이 무거운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 머물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거두어 내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는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봉사와 관련된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을 설계함에 있어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교육부, 2022b: 12)고 하더라도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려는 것은 봉사 학습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 활동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이 제시한 봉사 관련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을 봉사 실천이 아니라 돌봄 실천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이 제안한 봉사 관련 내용 요소와 그에 따른 성취기준을 재구조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6학년군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타인을 왜 돌보아야 하며,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타인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다양한 돌봄 실천 방안 탐색하기	타인을 돌보는 자세

[표 4-2] ‘봉사’ 관련 내용 요소 재구조화 방안

[6도02-01] 돌봄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타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돌봄을 실천한다.

봉사라는 어휘를 돌봄이라는 어휘로 대체함으로써 성취기준을 재구조화하려는 것은 교육내용의 재구조화 역시 동반할 수밖에 없다. 돌봄에 초점을 둔 성취기준에 따른 교육내용을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관점에서 설계한다면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도덕적 지식·이해 중심	1차시	• **인간 삶의 다양한 국면 살펴보기** -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청·장년기, 노인기, 그리고 질병이나 장애의 영향을 받는 삶의 시기를 살핌으로써 인간 존재가 지닌 의존성과 취약성 직시하기 • **돌봄과 돌봄 필요의 의미와 특징 알아보기** - 인간의 의존성과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삶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다양성, 특수성, 편재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돌봄 필요가 돌보는 주체의 돌봄 실천에 의해 충족되었기 때문임을 이해하기 • **자신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돌봄 필요 알아보기** - 아동기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가족, 친구, 사회, 국가로부터 돌봄받았거나, 돌봄받고 있음을 자각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마주하고 있는 돌봄 필요 나열하기
도덕적 과정·기능 중심	2차시	• **돌봄 실천의 4단계 익히기** - 주의 기울이기, 책임 수용하기, 돌봄 실천하기, 반응 살펴보기로 대표될 수 있는 돌봄 실천의 4단계에 대하여 알아본 뒤 실제적인 사례에 적용해보기 • **돌봄 실천 계획 세우기** - 가족이나 친구, 이웃의 삶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돌봄 필요를 감지하고,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돌봄 필요에 대한 책임을 수용함으로써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 돌봄 실천 계획 세우기 • **돌봄 실천하고 결과 정리하기** - 자신이 수립한 돌봄 실천 계획에 따라 돌봄을 실천하고, 자신이 돌봄을 실천했을 때 가족이나 친구, 이웃이 보인 반응을 정리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 실천 구상하기

도덕적 과정·기능 중심	3차시	•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삶 들여다보기** -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이환자의 삶과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돌봄 필요를 분석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파악하기 •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간을 돌보는 인간의 삶 들여다보기** -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이환자와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을 돌보는 주체(간병인, 활동보조인, 가족 등)의 삶에서 드러나는 돌봄 필요를 분석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파악하기 • **모두를 위한 돌봄 제도 및 정책 검토하고 제안하기** - 알츠하이머 환자와 발달 지체 장애인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주체의 필요를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돌봄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고 제안하기
도덕적 가치·태도 중심	4차시	• **돌봄 실천을 위한 마음 다지기** - 타인의 돌봄 필요를 감지하고,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돌봄 필요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잠시 미루는 성찰이 필요함을 자각하기 • **돌봄 제도 및 정책 설계를 위한 마음 다지기** - 아동기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 또한 삶의 어느 시기에서는 지금 현재보다 취약한 상태에 놓여 불가피한 의존 상태에 놓일 수 있음을 직시함으로써, 공동체적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돌봄 제도 및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자각하기 •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향한 마음 다지기** - 연대와 신뢰 속에 함께 돌봄으로써 모든 인간의 돌봄 필요가 충족되는 사회의 모습을 상상해 봄으로써,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향한 마음 다지기

[표 4-3] [6도02-01] 재구조화에 따른 교육내용 설계 방안

이와 같은 교육내용은 모든 인간이자 시민은 세상을 바로잡아 이끌어 가는 존재이면서, 배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Tronto, 2012a: 36)라는 존재론적 성찰에서 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타인, 제도 및 정책에 의한 배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또한, 모든 인간은 배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만 어떤 이의 삶은 다른 어떤 이의 삶에 비해 보다 더 많은 배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 보다 더 많은 배려 필요가 있는 이의 삶의 경우에는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Tronto, 2012a: 37) 한다는 도덕적, 윤리적 요청을 깊이 학습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성취기준 재구조화에 따른 교육내용의 계열을 따져보면, 선수학습은 3-4학년군 도덕의 [4도02-01][15], '[4도02-02][16] 이라 할 수 있으며, 후속 학습은 중학교 도덕의 [9도02-04][17]로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교육내용은 타인과의 관계 영역 안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 그러나,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초점은 모든 인간의 의존성과 취약성에서 비롯된 배려 필요를 충족시킬 배려관계의 안정성,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을 바로 잡을 만한 대안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초점이 있다. 이에 이 이론의 초점을 도덕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으로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간적 삶, 인간됨, 인간다움을 학습하는 데 초점이 있는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만이 아니라 시민적 삶, 시민됨, 시민다움을 학습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과의 연관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고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연관은 도덕교육이 통합과 다양성, 인간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 자유인으로서의 삶과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삶, 사적 개인과 공적 시민 사이의 건강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정창우, 2019: 106), 사람다움의 연장선에서 시민다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심성보, 2018: 276-277)는 목표에도 부합할 수 있다. 이에 다음 항에서는 현대사회와 윤리,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와의 접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15) 효, 우애의 의미와 필요성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하여 실천 계획을 세운다.
16) 친구 사이의 배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 생활에서 배려에 기반한 도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17)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에 근거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가치·덕목을 탐구하고,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2)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에의 접목 가능성

본 항에서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에 따른 교육내용 중에서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과의 접목 가능성이 있는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을 추려내어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을 접목시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의 개선이 아닌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에의 접목을 선택한 까닭은 자유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에 따른 교육내용이 가진 정합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관점에서 자유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담아낼 효과적인 질문을 생성하는 시도를 해보기 위함이다.

한편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중 일반적 접근에 기반한 배려윤리 논의와 접목 가능성이 큰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은 현대사회와 윤리의 (4) 민주시민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4) 사회사상, 인문학과 윤리의 (3) 자유와 평등에 속한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항목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전개된 시민관, 사회관, 국가관, 정의관과 관련된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통 교육과정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덕 또한 정의로운 사회, 국가와 시민의 바람직한 관계를 담아냄으로써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시민관, 사회관, 국가관, 정의관과 관련된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과의 접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속한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에의 접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탐색하려는 이유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덕의 경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시민관, 사회관, 국가관, 정의관을 학생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교육적 기획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 담론을 싣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며,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의 주류적인 관점에 근거한 시민관, 사회관, 국가관, 정의관을 깊이 학습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덕을 통해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시민관, 사회관, 국가관, 정의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고등학교 수준의 현대사회와 윤리,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에서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담론을 온전히 이해하고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사회와 윤리,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과목에서 바람직한 시민관, 사회관, 국가관, 정의관을 고찰하고 탐구하기 위해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을 도표로써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현대사회와 윤리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내용 요소 (지식·이해 차원)			
시민·사회·국가관	· 시민과 국가의 관계	· 동서양의 국가관 ·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 · 시민적 자유와 사적 삶 · 시민적 덕성과 공동선	· 자유와 평등의 의미와 근거 · 책임 있는 삶의 자세
	· 시민의 참여와 시민 불복종	· 민주주의의 지향과 대의민주주의 · 참여와 심의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	
정의관	· 분배 정의의 의미와 윤리적 쟁점들	· 자본주의의 원리와 현실 · 자본주의의 윤리적 개선과 대안	· 능력에 따른 분배와 한계 ·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위한 정의의 원칙
내용 요소에 따른 성취기준 목록			
성취기준	[12현윤04-02][18] [12현윤04-03][19]	[12윤사04-01][20] [12윤사04-02][21] [12윤사04-03][22] [12윤사04-04][23]	[12인윤03-01][24] [12인윤03-02][25]

[표 4-4] 시민관, 사회관, 국가관, 정의관에 관한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18)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시민의 정치 참여 필요성과 시민불복종의 조건 및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다.
19) 공정한 분배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20) 동·서양의 다양한 국가관을 비교·고찰하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국가의 역할과

이들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변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에 따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한 대비적 서술을 통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즉, Hobbes와 Locke, Rousseau와 같은 사회계약론자의 주장에 근거하여 국가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국가에 의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은 시민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 사회계약론자들의 지대한 영향력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의 토대가 되었으며, 그것에 기반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Rawls와 Habermas의 이론에 근거한 참여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불복종으로 교정될 수 있다는 것, Rawls와 같은 자유주의자와 Nozick과 같은 자유 지상주의자의 주장에 근거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가치나 자원을 분배할 때에는 절차적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중심적인 서술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배려 이론가들은 인간의 일상적 배려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에서부터 그들의 이론을 전개해왔고, 그 문제가 사회적 삶을 재평가하고 재조직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자원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경제 문제, 생산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정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여타의 주류 이론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Tronto, 2015a: 252).

정당성에 대한 체계적인 시각을 형성할 수 있다.

21) 시민의 자유와 권리, 공적 삶과 정치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관점을 비교·고찰하고, 시민과 공동체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할 수 있다.

22) 근대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23) 자본주의의 현실적 기여와 한계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동·서양의 사회사상적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개선 방향에 관해 탐구할 수 있다.

24) 동·서양에서 바라보는 자유와 평등의 의미와 근거를 알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의 모습을 탐구하여 책임 있는 삶의 자세를 추구할 수 있다.

25)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 및 실질적 기회균등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을 탐구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위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만약 자유주의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이론적 자원을 교과교육 차원에서 접목할 수 있다면, 자유주의적 시민관, 사회관, 국가관, 정의관에의 반성과 성찰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자유주의적 세계관에의 반성과 성찰을 일으킬 수 있는 질문들로써 교과교육 차원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 시민관
  - 모든 인간이자 시민은 진정 동등한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동등한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이자 시민의 책임은 법과 원칙에 의해 정해진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 사회관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참여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는 충분한가? 극도로 의존적이고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심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존재는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는가?

- 국가관
  - 국가가 시민에 대하여 가지는 의무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시민의 사회 보장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에 있는데, 모든 인간이자 시민이 국가가 지고 있는 의무 이행 범주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만 하는가?

- 정의관
  - 원초적 입장이나 무지의 베일과 같은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가정들에서 출발하는 Rawls의 정의론은 극도로 의존적이고 취약한 존재와 그들을 배려하는 존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현실적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는가?

제 3 절 교사와 교사교육의 책무에의 함의

이 절에서는 돌봄·교육·보육의 관계를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 기반하여 논하고 교사와 교사교육의 책무에 대해 논해보려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 항에서는 교육과 보육은 모두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 필요에 근거한 공적 제도 및 정책의 소산임 보여주어, 돌봄으로서의 교육을 이끄는 교사의 책무를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서는 돌봄으로서의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책무를 논하고자 한다.

1. 돌봄·교육·보육의 관계와 교사의 책무에의 함의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관점에서 돌봄과 교육, 그리고 보육의 적절한 관계는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교육과 교사의 책무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나라 교육과 보육의 현장에서 돌봄과 교육, 보육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형국을 살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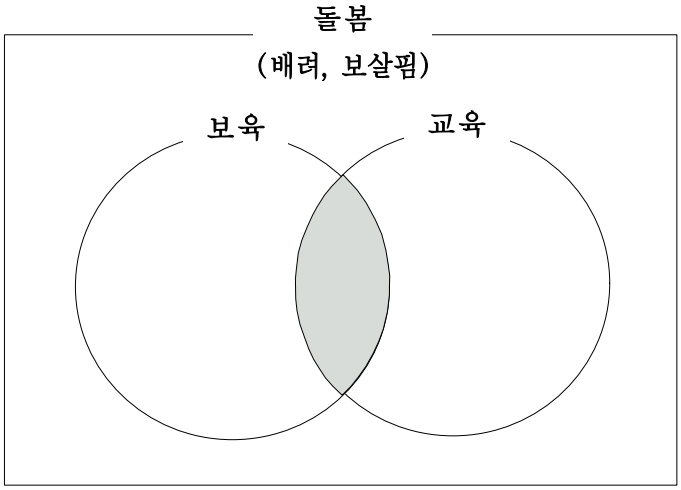
먼저 교육은 전통적으로 돌봄과 관련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주로 사적 공간인 가정에서 이루어져 온 보육과는 관련이 적은 일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Tronto, 1996: 145).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교원단체를 대표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일치된 한목소리로 돌봄교실(늘봄학교)을 학교에서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교육과 보육을 분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23a;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3a; 교사노동조합연맹, 2023) 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서 이러한 현상을 분석해보면, 공교육 개념의 등장 이후 교육이 줄곧 공적 제도와 정책의 대상이 됨에 따라, 교육이 教育에서 '教'의 기능만을 강조하게 되었고, '育'의 기능은 뒤로하게 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 교육은 教가 育을 압도해 왔으며, 사람을 길러내는 장이 아닌 인재를 양성하는 장이

되어 왔다. 그 결과 교육은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교육의 성공은 公교육과 私보육이라는 경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적 제도와 정책의 경직성을 스스로 타파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하고 있다.

반면 보육은 주로 사적 공간인 가정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보육 그 자체로 지닌 공적 함의가 간과되기 십상이었고, 그 결과 보육 문제의 공적 해법을 제안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되어 왔다(Tronto, 1996: 145).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 불안정이 상시화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개인화됨에 따라(송다영·정선영, 2013: 154-159), 보육이 사적 공간인 가정을 넘어서 국가-가정-시장 간 분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고, 보육은 공적 제도와 정책의 중요한 대상(송다영, 2012: 24)이 되었다. 그와 함께 보육은 사적 공간인 가정으로부터 다리를 건너 공적 공간에서의 의제가 되었다.

한편 보육의 공적 의제화는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서 돌봄과 교육, 보육의 관계를 그려본다고 하더라도 타당하다. 이 대목에서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이 그리는 돌봄과 교육, 보육의 관계를 밴다이어그램을 활용한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4-1] 돌봄과 교육, 그리고 보육의 관계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서 보면 교육과 보육은 모두 돌봄의 범주 안에 속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은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에 근거하여 충족되어야 할 돌봄의 일종(송다영, 2013: 105-108)이기 때문에 중첩적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교육적 보육 또는 보육적 교육의 공간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교육과 보육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교육과 보육 사이의 경계를 강화하고, 교육의 책무를 '敎'에만 국한하려고 하면서 '育'을 공유하고 있는 보육을 배제하려는 것은 돌봄과 교육, 보육의 범주를 이해하지 못한 일이 된다. 즉, 학교는 배우고 익히는 곳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유로 가정에서는 온전히 충족될 수 없었던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돌봄 지원 공간(정익중 외, 2021: 115)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교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교원들이 교직 생활을 함에 있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문제행동을 하거나 교육 활동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23b).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요 교원 정책에 대한 청년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교사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것과 심각한 교육 활동 방해를 일으키는 정서행동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고하고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3a).

이와 같은 호소를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서 해석하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문제가 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기에,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청소년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돌봄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육은 사적 공간인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므로, 보육 기관이 아닌 교육 기관인 학교는 보육과 무관하다는 명제를 앞세워 돌봄의 일부라 할 수 있는 보육과 교육을 분리하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교원들 스스로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어떤 설득력이나 정당성을 갖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보육과 교육은 모두 돌봄의 문제다.

그렇다면 돌봄 주체로서의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의 책무는 무엇일까? 교사는 학생의 돌봄 필요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기꺼이 학생을 돌보아야 할 책임을 수용하며, 돌봄을 실천함에 있어 더 능숙해지고, 돌봄을 실천했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의 돌봄을 받는 학생의 반응에 따라서 돌봄 실천을 조정할 수 있어야(Tronto, 2015: 30)함에 그의 책무가 있다. 또한, 교사가 학생의 돌봄 필요와 관련된 문제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학생의 상황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돌봄적 요소는 교사의 책무 수행의 명시적인 목표(Engster, 2020: 632)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교사의 책무는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을 잘 돌보는 것에도 있다. 교사들은 자신의 책무로 학생들로부터 고립되어 가르치기만 하는 것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 고립되어 가르치기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사들은 학생들의 돌봄 필요 앞에서 인간적 사랑과 공동체의 온기를 학생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선택하고 있다.

한편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보다 깊은 인간적 사랑과 공동체의 온기를 전해주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교사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학생을 돌보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조치들이 있다. 즉, 일선 관료가 시민들을 보다 잘 돌보기 위해서는 일선 관료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Engster, 2020: 631),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도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함은 교사들이 계속해서 요구해 온 것처럼 학급 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행정 업무 부담을 감축하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이 밖에 교사가 학생을 잘 돌보기 위해서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고려한 모든 조치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교사들의 과부하와 번아웃을 막으면서도 돌봄 주체로서의 교사의 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고, 교육 현장에서의 배려와 보살핌, 돌봄 실천의 유지와 지속을 기대할 수 있다.

2. 돌봄으로서의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책무에의 함의

Tronto는 모든 인간이자 시민들의 돌봄 필요에 대한 무한한 탐구를 통해서 추상적인 원칙들보다는 구체적인 차이들에 기반하여 모든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Tronto, 2001: 79)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교사가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역시 철학자의 내성이나 자기 성찰에서 비롯된 철학적 사고로부터 도출되는 지식으로 대체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교사가 학생을 돌보기 위해서는 학생의 입장을 교사 자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는 입장 채택의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결국 교사의 돌봄 실천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이고 특별한 돌봄 필요를 교사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여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으로부터 구성된 생생한 지식이 필요하다(Tronto, 1989: 105).

예비교사들에게는 자신과 다른 아동·청소년들의 삶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예비 교사들에게는 그들의 집과 학교를 벗어나야만 만날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물론 아동·청소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Tronto, 김희강·나상원 역, 2021: 277). 그러나 진정 어린 돌봄관계는 현대 사회를 대표하는 관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환 관계와 양립할 수 없다. 즉, 이해타산적인 개인들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시장에서 금전을 매개로 단순하게 만듦으로써 형성된 교환 관계는 진정 어린 배려 관계와 양립할 수 없다(Tronto, 1989: 107).

따라서 돌봄으로서의 교육을 실천할 교사를 양성해야 할 교사 교육은 예비교사에게 다양하고 특수한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특별한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다양한 기회는 교생 실습 기간의 확대, 실습학교의 다양화(도시가 아닌 촌락에 위치한 학교로의 실습),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장기적인 멘토링, 발달 지체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처럼 취약하고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위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낭만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실천하는 연습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또한, 돌봄을 실천하는 것이 서투르다면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돌봄을 실천함에 있어 익숙해지고, 능숙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Tronto, 2015: 30).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예비 교사들의 경험이 돌봄 실천과 돌봄 노동을 저가치화하려는 풍토를 강화할 수 있는 실천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돌봄 실천과 돌봄 노동에 따른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실천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돌봄 이후에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돌봄의 일환이라는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의 삶에서 돌봄이 가지는 중심적 지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돌봄으로서의 교육을 실천할 교사를 양성할 교사 교육은 아동·청소년이나 취약하고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들의 돌봄 필요뿐만이 아니라 예비교사 스스로의 돌봄 필요를 탐색할 시간 또한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돌봄 필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다양하고 특수한 학생의 개별적이고 특별한 돌봄 필요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가 단순히 다양하고 특수한 학생의 돌봄 필요를 자신의 돌봄 필요에 투영함으로써 학생의 돌봄 필요를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단한 수준의 자기 지식이 필요하다(Tronto, 1989: 106). 교사교육은 예비교사들이 스스로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이와 같은 배려 성향 및 태도의 함양과 배려 실천 경험의 촉진 결과 얻어진 관계적 능력은 교사를 선발할 때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학생들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함으로써 학생들과 소통하여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교사를 선발하는 데에 필수적인 자격 요건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Engster, 2020: 632). 잘 가르치는 교사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밝고, 헌신적이며, 애정 있고, 배려하는 교사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기(Cozolino, 서영조 역, 2017: 31) 때문이다.

제 V 장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 속한 이론가들이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지점과 비판에 따른 대안을 모색한 지점을 살핌으로써 그것이 갖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었다. 이에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 과정과 결과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Ⅱ장에서는 배려윤리의 태동과 발전을 주제로 배려윤리에 대한 여성적 접근에 속하는 Gilligan, Noddings, Ruddick, Held의 입장과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 속하는 Kittay, Tronto, Engster, Robinson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그 결과 배려윤리에 대한 여성적 접근과 일반적 접근에 속한 이론가들이 제안한 배려 개념 정의와 각각의 접근에 속한 이론가들이 설정한 정의와 배려의 관계를 비교·대조함으로써,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 속한 이론가들의 주장을 명료화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은 첫째, 모자녀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모성성에 근거한 여성적 성향이나 태도로서의 배려가 아닌 모든 존재의 취약성과 의존성에서 비롯된 배려 필요를 충족하려는 인간적 실천으로서의 배려로의 전환을 주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의와 배려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정의와 배려를 분명히 구분하고 대별하면서 상보나 우선을 추구하기보다는 배려와 정의를 결합시키거나 정의에 배려를 융합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두 차이는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배려의 보편성과 중심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 속한 이론가들의 비판 초점과 그에 따른 비판과 대안의 토대를 낳았다.

Ⅲ장에서는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 속한 이론가들이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비판하고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제시하려 한 대목을 논의하고자 했다.

먼저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 속한 이론가들은 모든 인간은 자율적이며 평등하다는 인간에 대한 이상화 된 관념을 모든 인간은 취약

하며 의존적이라는 구체화 된 사실로써 비판했다. 즉, 모든 인간은 취약하고 의존적이므로 모든 인간은 자율적이며 평등하다고 가정한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자율적이고 평등하다는 이상에 이를 수 없으며, 모든 인간은 자율과 의존의 상태를 일생토록 오가며 배려를 주고받음으로써 평등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 속한 이론가들은 자율적이고 평등한 모든 개인은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이지만 얕은 원칙을 상호의존하는 모든 인간은 서로의 배려 필요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편파적이지만 깊은 얽힘으로써 비판했다. 즉, 극도로 취약하고 의존적인 인간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고정된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어려우므로 권리와 의무는 차별과 배제를 배태할 수밖에 없으며, 극도로 취약하고 의존적인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위해서는 배려관계에서의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 속한 이론가들은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대표하는 Rawls가 정의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동원한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가정들이 과연 인간 의존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되물음으로써 비판했다. 이는 Rawls의 이론이 사회적으로 협력하기가 쉽지 않은 장애인이나 이환자 같은 취약하고 의존적인 인간 존재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지점을 포착한 것이며, 취약하고 의존적인 인간 존재를 위해서는 정의론이 인간 의존의 사실을 반영하여 인간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 속한 이론가들은 Rawls의 정의론에서 제시된 기본적 가치의 목록들이 과연 모든 인간이 배려를 주고받으면서 필요로 하게 되는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지를 되묻고, 의존인과 의존노동자의 필요를 반영한 Doulia의 원칙을 추가함으로써 Rawls의 정의론을 보완해야 함을 비판했다. 이 역시 Rawls의 정의론이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며 합당할 것이라는 손쉬운 가정을 지적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고, 자유주의적 인간관과 사회관 전반에의 의문을 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 속한 이론가들은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 혹은 낮은 계급에 속한

자들에게 배려 책임이 할당되어 온 사실을 짚었다. 그리고 배려 책임을 다하는 것과 함께 직업적 삶을 영위하기 쉽지 않아 배려 책임을 다하는 자들은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처지에 놓이게 된 사실도 짚었다. 나아가 불평등하고 불균형적인 배려 책임의 할당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낳았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적 공론에의 참여를 어렵게 함으로써 정치적 불평등을 낳았고, 정치적 불평등은 또 다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져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드는 양상을 짚었다. 이에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 속한 이론가들은 '배려'라는 가치를 앞세운 민주주의에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즉, 배려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배려 관계에 얽혀 있는 모든 인간이자 시민들이 연대와 신뢰 속에 함께 배려할 수 있는 사회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여, 새로운 정치 풍토와 문화의 확립을 추구했다.

한편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 속한 이론가들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에 직접 도전하기도 했다. 신자유주의가 배려를 여타의 공산품과 같이 상품화하거나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배려를 추구하여 배려를 순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한 것, 시장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하여금 배려인이 아닌 노동자 혹은 소비자로만 정체성을 형성하게 한 것, 배려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시혜적인 조치라는 인식을 확산하게 한 것이 비판의 주된 요지였다. 이에 따라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 속한 이론가들은 국가의 권위와 정당성은 그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 시민을 배려하는 것에서 나온다면서, 비록 배려가 개별 시민의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뤄진다 하더라도, 국가는 배려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여건을 마련해야 할 책임을 유기해서는 안 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들 역시도 배려 제도 및 정책의 수립과 운영의 과정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연대나 신뢰와 같은 더불어 삶을 가능케 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체득하여 배려 주체로 거듭나야 함을 주장했다.

이처럼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 속한 이론가들은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동력으로 한 현대 사회의 이면을 드러내어 비판했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중 첫째는 인간과 시민에 대한 변혁의 요청이었다. 즉, 모든 시민이자 인간이 서로 다른 수준의 취약성과 의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주의를 기울여 주변의 배려 필요를 감지하고 배려 책임을 수용하며 배려 실천에 기꺼이 임하는 인간이자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에 대한 변혁의 요청이었다. 이는 배려가 인간 삶의 근본적, 중심적 요소임을 인정하고, 배려 실천에 기꺼이 관여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온전한 시민권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국가에 대한 변혁의 요청이었다. 즉, 배려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여 모든 시민이자 인간의 취약성과 의존성에 응답함으로써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구 공동체에 대한 변혁의 요청이었다. 이는 전 지구적, 전 인류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이자 시민이 배려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성을 자각함으로써 다른 공동체의 돌봄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전하지 않는 지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Ⅳ장에서는 배려윤리에 대한 여성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압도하고 있는 세상에의 변혁을 추구한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논지를 도덕교육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설계의 개요와 성격 및 목표를 미루어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관점의 논지를 형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첫 번째 검토 초점은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모두 포용성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또한 포용성에 관한 서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검토 초점은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은 배려를 성향이나 태도로 규정하기보다는 성향이나 태도가 동반된 실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려적 사고력'이라는 서술, '배려를 내면화한다'는 서술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 검토 초점은 인간이 자율성과 주도성을 발휘하기 이전과 이후에 거칠 수 밖에 없는 상호의존하는 배려의 연결망에 관한 서술을 더해 도덕적 인간상에 관한

서술을 풍부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네 번째 검토 초점은 배려는 세상을 바로 잡고, 지속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모든 일이라는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서의 배려 개념 규정을 고려하여 배려라는 핵심 가치가 갖는 높은 층위를 반영한 서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섯 번째 검토 초점은 윤리적 삶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중에는 윤리적 삶의 주체로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윤리적 삶의 주체로서 관계적이고 협력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 서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핵심 아이디어, 내용요소에 따른 성취기준을 미루어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논지를 내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첫 번째는 배려라는 핵심 가치가 타인과의 관계 영역에 한정된 가치가 아님을 내용체계표의 구성을 통해 밝힘으로써 자신과의 관계 영역,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 자연과의 관계 영역에도 배려가 일정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배려는 타인의 삶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핵심 아이디어에 반영함으로써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공통 교육과정의 봉사활동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돌봄, 돌봄 실천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모든 인간의 취약성과 의존성에 따른 배려 필요에 대해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도모하는 교육내용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네 번째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내용적 정합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유주의적 시민관, 사회관, 국가관, 정의관에의 반성과 성찰을 일으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질문들을 제기함으로써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내용적 접합 가능성을 제안했다.

끝으로는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관점에서 돌봄·교육·보육의 관계를 그려보고, 교육과 교사, 교사교육의 책무에 대해 논해보려 했다.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관점에서, 교육과 보육은 생애주기에 따른 배려 필요가 분절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첩지대를

공유하며, 교육과 보육은 아동·청소년들의 배려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돌봄의 일종이 됨을 밝혔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기관인 학교는 돌봄을 주관하는 기관이 되며,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는 돌봄의 주체가 된다. 이에, 교육과 학교, 교사는 돌봄의 일환으로서의 교육의 책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함을 논했다. 한편 교사교육의 책무로는 예비교사들에게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아동·청소년의 삶에 대해 알아갈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서로 다른 양상의 배려 필요를 경험함으로써 배려 책임을 수용하고 배려를 실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예비교사가 스스로를 돌볼 방법을 체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논했다.

한편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한계는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논점들을 도덕과의 교육내용으로 온전히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한 도덕과 교과목의 서양윤리 및 정치철학과 관련된 서술에 대대적 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했지만,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교육내용을 온전히 제안하지는 못한 것이다.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의 논점들을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의 접목 가능성을 논하는 것에서 관련된 논의가 중단된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후속 연구를 통해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 혹은 여성주의 윤리학에 기반한 도덕교육 실천 방안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계는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 속한 이론가들의 이론에 천착한 나머지, 이들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이들 이론을 비판하는 담론을 생성하지 못한 것에 있다. 이들 이론을 다른 이론과 비교·대조함으로써 이들 이론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들 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담론을 생성한 국내 연구는 김은희(2018)의 연구가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를 통해서 배려윤리에 대한 일반적 접근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할 필요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힘에 의해 좌우되는 연약한 몸으로 짧은 생을 살아간다. 우리는 무력하고 의존적인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 또다시

무력하고 의존적인 상태로 세상을 떠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배려 필요를 충족시키려 타인에 의존해왔고, 의존하고 있으며, 의존할 것이다(Tronto, 2012a: 30).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위험은 인과 관계를 따져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성격을 가질 것이며, 그렇기에 위험은 더이상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돌발적 성격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연대와 신뢰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보살피며, 돌보면서 우리 앞의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만 한다(Tronto, 2015a: 256-267).

그러는가 하면 교육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인 OECD와 UNESCO는 각각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와 'Reimagining our Future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이라는 제목을 가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 보고서는 모두 '교육과 사회의 변혁'을 강조했고, 기존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단순한 개혁이 아닌 사회와 교육의 근본적 변혁을 촉구했다(진보교육연구소교육과정연구모임, 2022: 15-50). 이러한 변혁적 움직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앞선 교육과정과 달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기르는 데 교육의 중점을 두겠다는 것(교육부, 2022a: 4)이 그것이다.

한편 도덕과 교육의 시대적, 사회적 적절성의 제고는 중요한 문제다. 도덕적 원리는 불변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관련되는 문제 상황과 해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3: 76). 또한, 인간 존재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중 어떠한 관점을 채택하여 도덕교육을 기획할 것인가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인간의 위상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혹은 높게 평가함으로써 교육의 가능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 회의감을 증폭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정창우, 2022: 3-4). 그리고 도덕교육의 역할은 개인의 도덕성 함양뿐 아니라, 사회의 왜곡과 불의를 해소하고 사회변화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정창우, 2013: 156). 즉, 도덕교육은 사적 도덕성과 공적 도덕성, 미시적 도덕성과 거시적 도덕성이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 속에 조화(정창우: 2013: 372)를

이룰 수 있는 기획이 되어야 하며, 자기 자신을 더 인간답게 질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윤리적으로,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품, 역량을 갖춘 존재를 길러내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정창우, 2022: 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도덕교육에 관한 시대적, 사회적 요청과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와 통찰로 교육적 효과를 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 자기 자신과 세상 모두를 두루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려윤리에서 찾고자 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돌발 위기와 상시적으로 함께할 미래 사회에 개인과 공동의 웰-빙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주체적이면서 협력적인, 변혁적이면서 포용적인 인간을 기를 원동력을 배려윤리에서 찾고자 했다.

부디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측은지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기 전에(조한혜정, 2006: 91),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세상에서 되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바로 잡고, 지속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Tronto, 1993: 103) 하는 일들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배려는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존적이고 취약한 존재를 한 데 얽어내어 더불어 삶을 가능케 할 대안을 품고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교육부(2015),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교육부(2022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1]

교육부(2022b),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6]

김희강(2022), 『돌봄민주국가』, 서울: 박영사

김희강, 임현(2018), 『돌봄과 공정』, 서울: 박영사

박병기, 추병완(2017), 『윤리학과 도덕교육 1』, 고양: 인간사랑

박병춘(2002), 『배려윤리와 도덕교육』, 서울: 울력

서강식(2022), 『길리건과 나딩스의 배려윤리』, 서울: e퍼플

심성보(2014), 『민주시민을 위한 도덕교육』, 서울: 살림터

이경원 외(2023),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초등 도덕과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이나현(2008a), 『배려윤리의 내러티브 교육과정을 위한 탐색』, 파주: 한국학술정보

이나현(2008b), 『도덕교육을 향하여』, 파주: 한국학술정보

장택수(2004), 『교육연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형설

정창우(2013),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 서울: 울력

정창우(2019), 『21세기 인성교육 프레임』, 파주: 교육과학사

정창우(2022), 『변혁적 도덕 역량 증진을 위한 도덕교육론』, 파주: 교육과학사

진보교육연구소 교육과정연구모임(2022), 『대전환시대 변혁의 교육학』, 서울: 살림터

추병완(2007), 『도덕 발달과 도덕교육』, 서울: 하우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2013), 『도덕윤리과교육학개론』, 파주: 교육과학사

(2) 논문

고미숙(2004), 「배려윤리와 배려교육」, 『한국교육학연구』, 제10권 제2호

고미숙(2007), 「여성의 모성경험 분석을 통한 배려교육의 재음미」, 『도덕윤리과교육』, 제25호

고미숙(2015), 「배려받는 자의 윤리」, 『윤리연구』, 제100호

고미숙(2022), 「포스트휴머니즘과 배려윤리 교육」, 『도덕교육연구』, 제34권 제1호

권의섭(2017), 「포스트모던 시대 인성교육의 방향과 실천」, 『철학논총』, 제87집 제1권

김민영(2019), 「배려윤리와 환대」, 『대동철학』, 제89권

김민영(2020), 「배려윤리에서 배려 받는 자의 중요성」, 『대동철학』, 제93권

김민영(2022), 「배려윤리의 비판적 고찰」, 『철학연구』, 제161집

김수동(2002a), 「Noddings의 도덕교육론에 나타난 배려의 요소와 그 실천양식」, 『교육철학』, 제21집

김수동(2002b), 「배려의 교육적 개념-Noddings 도덕교육론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제22집

김수동(2003), 「배려의 교육방법-학교에서의 도덕교육에 대한 여성적 접근」, 『교육철학』, 제23집

김수동(2004a), 「Noddings의 배려를 위한 대화의 교육적 의미」, 『교육철학』, 제32집

김수동(2004b), 「Noddings의 배려를 위한 학교교육론」, 『아시아교육연구』, 제5권 제4호

김수동(2008), 「홀리스틱 교육에서 배려의 적용 가능성」, 『홀리스틱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김완순(2008), 「배려윤리의 이론적 배경」, 『윤리문화연구』, 제4호

김은정(2018), 「인성교육의 기초로서 배려윤리에 대한 재고찰」, 『교육철학』,

제67권
김은희(2018), 「취약한 존재를 위한 정의론:사회계약론, 역량접근법, 돌봄윤리의 대결」, 『철학연구』, 제122집
김하연(2021), 「나딩스의 평화교육론이 도덕과 통일교육에 갖는 함의 연구」, 『초등도덕교육』, 제71권
김형렬(2022), 「도덕과 민주시민교육의 정치학」, 『도덕윤리과교육』, 제75호
김혜진(2020), 「새로운 도덕과 교육과정의 배려윤리 요소 반영 방안」, 『도덕윤리과교육』, 제69호
김희강(2016), 「돌봄국가: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평」, 『정부학연구』, 제22권 제1호
김희강(2018a), 「돌봄과 돌봄 없는 정치이론」, 『한국정치학회보』, 제52집 2호
김희강(2018b), 「돌봄: 헌법적 가치」,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2호
김희강(2020), 「돌봄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한국여성학』, 제36권 제1호
김희강(2021a), 「돌봄과 복지」, 『정부학연구』, 제27권 제2호
김희강(2021b), 「코로나19, 돌봄부정의, 돌봄포용국가」, 『한국행정학보』, 제55권 제2호
김희강, 강문선(2010), 「돌봄의 공공윤리-에바 키테이(Eva F. Kittay) 이론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4호
노상우, 이혜은(2009), 「배려윤리가 중학교 도덕과 교육에 주는 함의」,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4권 제3호
노희정, 홍기대(2021), 「관계적 윤리와 배려의 도덕교육」, 『도덕윤리과교육』, 제73호
마경희(2010), 「돌봄의 정치적 윤리: 돌봄과 정의의 이원론을 넘어」, 『한국사회정책』, 제17집
박미랑(2013), 「여성주의적 배려윤리의 도덕교육적 의미와 가능성」, 『교육철학연구』, 제35권 4호
박병춘(1998), 「나딩스의 배려윤리와 도덕교육」, 『도덕윤리과교육』, 제9호

박병춘(1999), 「보살핌윤리(An Ethic of Care)의 도덕교육적 접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병춘(2005), 「배려윤리의 초등 도덕과교육에의 적용 방안」, 『도덕윤리과교육』, 제20호

박병춘(2010), 「배려윤리 중심의 홀리스틱 도덕교육」, 『도덕윤리과교육』, 제31호

박병춘(2013),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상호관련성 연구」, 『윤리연구』, 제93권

박보람, 신중섭(2020), 「나딩스의 평화교육 관점 고찰」, 『초등도덕교육』, 제69권

박혜준, 김윤경(2010), 「봉사학습(Service-Learning)의 도덕교육적 함의와 교사의 역할 - 나딩스의 교육이론을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제31호

송다영(2012), 「돌봄정책의 국가별 상이성과 젠더관점: 아동 보육 부문을 중심으로」, 『가족과문화』, 제24권 제3호

송다영(2013),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생애주기별 복지와 돌봄 패러다임」, 『페미니즘연구』, 제13권 제1호

송다영, 정선영(2013), 「통합적 가족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비판사회정책』, 제39권

심성보(2018), 「사람다움과 시민다움의 조화를 통한 민주적 시민교육의 모색 -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크릭 보고서를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제47호

오기성(2006), 「배려 수업 모형과 사례 연구-초등학교 도덕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제9권 제2호

이나현(1999), 「배려의 윤리와 도덕판단의 지향성」, 『교육심리연구』, 제12권 제2호

이나현(2008c), 「배려윤리의 교사양성교육 적용을 위한 탐색적 연구」, 『교육과정연구』, 제26권 제1호

이미식(2001), 「정의와 배려의 윤리에 대한 도덕교육의 함의」, 『윤리교육연구』, 창간호

이미식(2003), 「배려의 윤리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열린교육연구』, 제11권 제2호

이미식(2012), 「예비 교사들의 배려 의미 인식과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초등도덕교육』, 38권

이미식, 최용성(1999), 「정의와 배려의 윤리의 통합을 위한 연구-역할수용, 공감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12집

이미식, 최용성(2001), 「정의, 배려의 윤리와 여성주의적 의미 -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11권 제1호

이숙정(2008), 「돌봄의 학교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성윤리적 접근: 나딩스(N. Noddings)와 트론토(J. C. Tronto)의 돌봄의 윤리를 중심으로」, 『도덕교육연구』, 제20권 제1호

정익중 외(2021), 「아동과 부모의 경험을 통해 본 코로나19 이후 아동 일상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4호

정창우(2004), 「세계화 시대의 도덕교육에서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통합적 접근」, 『윤리연구』, 제56권

조성민(2010), 「정의윤리와 배려윤리 교육의 통합적 접근」, 『윤리철학교육』, 제14집

조성민(2013a), 「정의롭고 배려적인 인간 양성을 위한 도덕윤리교육」, 『윤리철학교육』, 제18집

조성민(2013b),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상보적 관계」, 『교원교육』, 제29권 제3호

조주영(2008), 「새로운 도덕 패러다임으로서의 보살핌 윤리」, 『한국여성철학』, 제9권

조현규(2007), 「仁과 배려윤리의 현대 도덕교육에의 시사」, 『교육철학』, 제31집

조한혜정(2006), 「후기 근대적 위기와 돌봄국가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차가운 근대 cold modern’에서 ‘따뜻한 근대 warm modern’으로」, 『사회과학논집』, 제37권 제1호

진미숙(2004), 「도덕교육론에서 정의-배려 논쟁 재고찰」, 『교육철학』, 제26집
차우규(2006), 「이상적인 도덕과 수업을 위한 교사의 역할」, 『윤리교육연구』, 제11집
최은경(2021), 「시론: 한국 사회 감염병의 사회성・문화성과 돌봄윤리의 함의」, 『역사비평』, 제137호
하대청(2020), 「다종적 얽힘과 돌봄: 코로나 감염병 시대 공번성을 위한 윤리」, 『안과밖: 영미문학연구』, 제49권
한일조(2016), 「배려윤리의 교육적 가능성과 한계」, 『교육철학』, 제58권
한혜정(2004), 「여성학적 관점에 의거한 배려윤리학의 실제적 의미」, 『교육과정평가연구』, 제7권 제1호
황인표, 강승희(2021),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시민성 교육 쟁점 분석에 대한 일고」, 『도덕윤리과교육』, 제70호
황지영, 강기수(2021), 「모성의 관계적 본질과 교육인간학적 의의」, 『홀리스틱교육연구』, 제25권 제3호

(3) 기타

교사노동조합연맹(2023), 「늘봄교사제 도입 발표에 대한 교사노조의 입장」, 2023.5.19., 보도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23a), 「늘봄학교를 학교에서 분리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체계를 마련하라」, 2023.5.18., 보도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23b), 「주요 교원 정책에 대한 청년교사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2023.5.10., 기자회견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23a), 「갈등 커지는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대한 입장」, 2023.02.21., 보도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23b),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2023.5.15., 보도자료

2. 국외문헌

(1) 단행본 및 번역서

A. M. Jaggar & I. M. Young, 한국여성철학회 역(2005), 『여성주의 철학 2』, 파주: 서광사

B. Ehrenreich & A. R. Hochschild(2003), *Global Wome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London: Granta Books

B. Jennings and F. Hills(2014), *Bioethics*, MI: MacMilan

C. Gilligan, 허란주 역(1997), 『다른 목소리로』, 서울: 동녘

C. Gilligan, 김아영 역(1997), 『교차로에서의 만남: 여성 심리와 여아 발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C, Hart(1998), *Doing a Literature Review*, London: Sage Publication

D. Bubeck(1995), *Care, Gender, and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 Engster(2007), *The Heart of Justice: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 Engster(2015), *Justice, Care and the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D. Engster, 김희강, 나상원 역(2017), 『돌봄: 정의의 심장 -돌봄윤리와 정치이론-』, 서울: 박영사

D. Engster & M. Hamington(2015),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 Lapsley & F. Power, 정창우 역(2008),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고양: 인간사랑

E. C. Vozzola, 정창우 역(2018), 『도덕 발달의 이론과 적용 -도덕·인성교육, 상담, 사회복지, 특수교육 분야에서-』, 서울: 울력

E. Abel & M. Nelson(1990), *Circles of Care*, Albany: SUNY PRESS

E. F. Kittay, 김희강, 나상원 역(2016), 『돌봄: 사랑의 노동 -여성, 평등, 그리고 의존에 관한 에세이-』, 서울: 박영사

F. Robinson(1999), *Globalizing Care*, New York: Routledge

F. Robinson(2011), *The Ethic of Care: A Feminist Approach to Human Security*, Pennsylvania: Temple University Press

G. Clement(1996), *Care, Autonomy, and Justice: Feminism and The Ethic of Care*, New York: Routledge

H. Cottam, 박경현, 이태인 역(2020), 『래디컬 헬프 –돌봄과 복지제도의 근본적 전환』, 서울: 착한책가게

H. Dahl & M. Keranen & A. Kovalainen(2011), *Europeanization, Care and Gender: Global Complexiti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I. M. Young, 김도균, 조국 역(2017), 『차이의 정치와 정의』, 서울: 모티브북

I. M. Young, 김희강, 나상원 역(2020), 『포용과 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J. C. Tronto(1993), *Moral Boundaries*, New York: Routledge

J. C. Tronto(2015), *Who Cares? How to Reshape a Democratic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J. C. Tronto, 김희강, 나상원 역(2021), 『돌봄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J. Rawls, 황경식 역(2003), 『정의론』, 서울: 이학사

J. Rawls, 장동진 역(2016), 『정치적 자유주의』, 파주: 동명사

K. Davis & M. Evans, J. Lorber(2006), *Handbook of Gender and Women's Studies*, Sage

K. Lynch, 강순원 역(2016), 『정동적 평등: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파주: 한울아카데미

L. Cozolino, 서영조 역(2017), 『애착 교실』, 서울: 해냄출판사

M. Barnes, T. Brannelly, L. Ward & N. Ward(2015), *Ethics of Care: Critical Advance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Bristol: Policy Press

M. Friedman(2005), *Women and Citizen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 J. Larrabee(1993), *An Ethic of Care: Feminist an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New York: Routledge

M. Hamington & D. Miller(2006), *Socializing Care*,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M. Hamington & M. Flower(2021), *Care Ethics in the Age of Precarity*, Minneapolos: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Minnesota

N. Folbre, 윤자영 역(2007), 『보이지 않는 가슴』, 서울: 또하나의문화

N. Hirschmann & U. Liebert(2001), *Women and Welfare: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N. Hirschmann & C. Di Stefano(1996), *Revisioning the Political: Feminist Reconstructions of Traditional Concepts in Western Political Theory*, Boulder, Co: Westview Press

N. Noddings(1986),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N. Noddings, 추병완・박병춘・황인표 역(2002), 『배려교육론: 인간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접근』, 서울: 다른우리

N. Noddings(2002), *Starting at Hom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N. Noddings(2003), *Happiness and Edu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tiy Press

N. Noddings, 한평수 역(2009), 『윤리와 도덕교육에 대한 여성적 접근법: 배려』, 서울: 도서출판 천지

N. Noddings(2010), *The Maternal Factor: Two Path to Morality*,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N. Noddings(2013), *A Relational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N. Noddings, 고미숙 역(2018), 『배려와 도덕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O. Hankivsky(2004), *Social Policy and the Ethic of Care*, Vancouver: UBC Press

P. Urban & L. Ward(2020), *Care Ethics, Democratic Citizenship and the Stat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R. Mahon & F. Robinson(2012), *Feminist Ethics and Social Policy: Toward a New Global Political Economy of Care*, Vancouver: UBC Press

R. Parreñas(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Redwood: Stanford University Press

S. Collins(2015), *The Core of Care Ethics*, London: Palgrave Macmillan

S. Bartky(1990), Femininity and Domination: Studies in the Phenomenology of Oppression, New York: Routledge

S. Hekman(1995), *Moral Voices, Moral Selves: Carol Gilligan and Feminist Moral Theory*, Cambridge: Blackwell Publishing

S. Hoagland(1988), *Lesbian Ethics: Toward New Value*, Palo Alto: Institute of Lesbian Studies

S. Razavi & S. Staab(2012), *Global Variations in the Political and Social Economy of Care*, New York: Routledge

S. Ruddick, 이혜정 역(2002), 『모성적 사유: 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S. Sevenhuijsen(1998), *Citizenship and the Ethics of Care: Feminist Consideration on Justice, Morality, and Politics*, London: Routledge

S. Sherwin(1992), *No Longer Patient: Feminist Ethics and Health Car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T. Knijn & S. Sevenhuijsen(1998), *Care, Citizenship, and Social Cohesion: Towards a Gender Perspective*, Utrecht: Netherlands Schools for Social and Economic Policy Research

V. Held(1995), *Justice and Care*, New York: Routledge

V. Held, 김희강, 나상원 역(2017), 『돌봄: 돌봄윤리 -개인적, 정치적, 지구적-』, 서울: 박영사

W. Kymlicka, 장동진, 장휘, 우정열, 백성욱 역(2018),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파주: 동명사

(2) 논문 및 북챕터

Brabeck, M.(1983), “Moral Judgement: Theory and Research on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In. M. J. Larrabee eds., *An Ethic of Care*, New York: Routledge

Eichner, M.(2015), “The Supportive State”, In. D. Engster & M. Hamington eds.,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87-10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Engster, D.(2001), “Mary Wollstonecraft’s Nurturing Liberalism: Between an Ethic of Justice and Car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5, No. 3

Engster, D.(2004), “Care Ethics and Natural Law Theory: Toward an Institutional Political Theory of Caring”,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6, No. 1

Engster, D.(2005). “Rethinking Care Theory: The Practice of Caring and the Obligation to Care”, *Hypatia*, Vol. 20, No. 3

Engster, D.(2010a). “Strategies for Building and Sustaining a New Care Movement”, *Journal of Women, Politics & Policy*, Vol. 31, No. 4

Engster, D.(2010b), “The Place of Parenting with a Liberal Theory of Justice: The Private Parenting Model, Parental Licenses, or Public Parenting Support?”, *Social Theory and Practice*, Vol. 36, No. 2

Engster, D.(2012). “Child Poverty and Family Policies across Eighteen Wealthy Western Democracies”, *Journal of Children and Poverty*, Vol. 18, No. 2

Engster, D.(2019). “Care Ethics, Dependency, and Vulnerability”, *Ethics and Social Welfare*, Vol 13, No. 2

Engster, D.(2020). “A Public Ethics of Care for Policy Implement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64, No. 3

Engster, D.(2021). “Just add Care and STIR? The Limits of Mainstream Liberal

Theory for Taking on Dependency Care",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Engster, D. & Stensöta, H. O.(2011). "Do Family Regimes Matter for Children's Well-Being?", *Social Politics*, Vol. 18, No. 1

Engster, D. & Gonzales, R.(2012). "Children and Justice: A Proposal for National Parent Training Classes", *Public Affairs Quarterly*, Vol. 26, No. 3

Engster, D. & Edge, E.(2022), "Street Level Bureaucracy, Casework, and Justice", *Social Theory and Practice,* Vol. 48, No. 3

Facione, A. (1990). Critical thinking: A statement of expert consensus for purpose of educational assessment and instruction.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delphi report*. ERIC Doc. No.: ED 315423

Folbre, N,(2021), "The International Labour Review and Gender Equality: The Importance of Women's Unpaid and Paid Work", *International Labour Review*, Centenary Collection, No. 3

Gilligan, C.(1986), "Reply to Critics", *Signs: Journal of Women and Culture and Society*, Vol. 11

Held, V.(2015), "Care and Justice, Still", In. D. Engster and M. Hamington eds.,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19-3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oagland, S.(1990), "Some Concerns about Nel Noddings' Caring", *Hypatia*, Vol. 5, No. 1

Kittay, E. F.(1998), "Welfare, Dependency, and a Public Ethic of Care", *Social Justice: Journal of Crime*, Vol. 25, No. 1

Kittay, E F.(2001a), "When Caring is Just and Justice is Caring: Justice and Mental Retardation", *Public Culture* ,Vol. 13, No. 3

Kittay, E F.(2001b), "From Welfare to a Public Ethic of Care", In. N. J. Hirschmann & U. Liebert eds., *Women and Welfare: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38-64,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Kittay, E. F.(2001c), "A Feminist Public Ethic of Care Meets the New Communitarian Family Policy", *Ethics*, Vol. 111, No. 3

Kittay, E. F.(2015), "Centering Justice on Dependency and Recovering Freedom", *Hypatia*, Vol. 30, No. 1

Noddings. N.(1990), "A Response", *Hypatia*, Vol. 5

Parreñas, R.(2012), "The Reproductive Labour of Migrant Workers", *Global Networks*, Vol. 12, No. 2

Robinson, F.(1997), "Globalizing Care: Ethics, Feminist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Global, Local, Political*, Vol. 22, No. 1

Robinson, F.(2003a), "Human Rights and the Global Politics of Resistance: Feminist Perspectiv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9, 161-180

Robinson, F.(2003b), "NGOs and Advancement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Philosophical and Practical Controversies",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7, No. 1

Robinson, F.(2006a), "Care, Gender and Global Social Justice: Rethinking 'Ethical Globalization'", *Journal of Global Ethics*, Vol. 2, No. 1

Robinson, F.(2008), "The Importance of Care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Human Security",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Vol. 4, No. 2

Robinson, F.(2010), "After Liberalism in World Politics? Toward an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of Care", *Ethics and Social Welfare*, Vol. 4, No. 2

Robinson, F.(2011a), "Stop Talking and Listen: Discourse Ethics and Feminist Care Ethics in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Millen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is*, Vol. 39, No. 3

Robinson, F.(2013), "Global Care Ethics: Beyond Distribution, Beyond Justice", *Journal of Global Ethics*, Vol. 9, No. 2

Robinson, F.(2015), "Care Ethics, Political Theory, and the Future of Feminism", In. D. Engster & M. Hamington eds.,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293-31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Robinson, F.(2018), "Care Eth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hallenging Rationalism in Global Ethics", *International Journal of Care and Caring*, Vol. 2, No. 3

Ruddick, S.(1980), "Maternal Thinking", *Feminist Studies*, Vol. 6, No. 2

Ruddick, S.(1983), "Pacifying the Forces Drafting Women in the Interests of Peace", *Signs*, Vol. 8, No. 3

Ruddick, S.(1985), "Maternal Work and the Practice of Peace", *Journal of Education*, Vol. 167, No.3

Sevenhuijsen, S.(2000), "Caring in the third way the relation between obligation, responsibility and care in Third Way discourse", *Critical Social Policy*, Vol. 62

Sevenhuijsen, S.(2003), "The Place of Care: The Relevance of the Feminist Ethic of Care for Social Policy", *Feminist Theory*, Vol. 4, No. 2

Tronto, J. C.(1987a), "Beyond Gender Difference to a Theory of Care",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Vol. 12, No. 4

Tronto, J. C.(1987b), "Political Science and Caring: Or, The Perils of Balkanized Social Science", *Women&Politics*, Vol. 7, No. 3

Tronto, J. C.(1989), "Women and Caring: What can Feminist Learn about Morality from Caring", In. V. Held eds., *Justice and Care*, 101-115, Boulder, CO: Westview Press

Tronto, J. C.(1995), "Caring for Democracy: A Feminist Vision", Utrecht: Universiteit voor Humanistiek

Tronto, J. C.(1996), "Care as Political Concepts", In. N. Hirschmann and C. Di Stefano eds., *Revisioning the Political: Feminist Reconstructions of Traditional Concepts in Western Political Theory*, 139-156, Boulder, Co: Westview Press

Tronto, J. C.(1998), "Politics, Plurality, and Purpose: How to investigate and Theorize Care in an Institutionalized Context", In T. Knijn & S.

Sevenhuijsen eds., *Care, Citizenship, and Social Cohesion: Towards a Gender Perspective*, Utrecht: Netherlands Schools for Social and Economic Policy Research

Tronto, J. C.(2001), "Who Cares? Public and Private Caring and the Rethinking of Citizenship", In. N. J. Hirschmann & U. Liebert eds., *Women and Welfare: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65-83,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Tronto, J. C.(2002), "The "Nanny" Question in Feminism", *Hypatia*, Vol. 17, No. 2

Tronto, J. C.(2005a), "Care as the Work of Citizens: A Modest Proposal", In. M. Friedman eds., *Women and Citizenship*, 130-14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Tronto, J. C.(2006a), "Moral Perspectives: Gender, Ethics, and Political Theory", In. K. Davis, M. Evans and J. Lorber eds., *Handbook of Gender and Women's Studies*, 417-434, Sage

Tronto, J. C.(2006b), "Vicious Circles of Privatized Caring", In. M. Hamington and D. Miller eds., *Socializing Care*, 3-26,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Tronto, J. C.(2010a), "Creating Caring Institutions: Politics, Plurality, and Purpose", *Ethics and Social Welfare*, Vol. 4, No. 2

Tronto, J. C.(2010b), " "The Sevant Problem" and Justice in Households", Firenze University Press

Tronto, J. C.(2011b), "A Feminist Democratic Ethics of Care and Global Care Workers: Citizenship and Responsibility", In. R. Mahon and F. Robinson eds., *Feminist Ethics and Social Policy: Towards a New Global Political Economy of Care*, 162-177,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Tronto, J. C.(2011c), "Privatizing Neo-Colonialism: Migrant Domestic Care Workers, Partial Citizenship and Responsibility", In. H. M. Dahl, M.

Keranen and A. Kovalainen eds., *Europeanization, Care and Gender: Global Complexities*, 165-181, Basingstoke: Palgrave McMillan

Tronto, J. C.(2012a), "Democratic Care Politics in an Age of Limits", In. S. Razavi and S. Staab eds., *Global Variations in the Political and Social Economy of Care: World Aparts*, 29-40, New York: Routledge

Tronto, J. C.(2012b), "Partially Based on Relational Responsibilities: Another Approach to Global Ethics", *Ethics and Social Welfare*, Vol. 6, No. 3

Tronto, J. C.(2014), "Ethic of Care", In B. Jennings and F. Hills eds., *Bioethics*, MI: MacMilan

Tronto, J. C.(2015a), "Theories of Care as a challenge to Weberian Paradigms in Social Science", In. D. Engster and M. Hamington eds.,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252-2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Tronto, J. C.(2015b), "Democratic Caring and Global Care Responsibilities", In. M. Barnes, T. Brannelly, L. Ward and N. Ward eds., *Ethics of Care: Critical Advance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s*, 21-30, Bristol: Policy Press

Tronto, J. C.(2017), "There is an alternative: homines curans and the limits of neoliber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Care and Caring*, Vol. 1, No. 1

Tronto, J. C.(2020), "Caring Democracy: How Should Concepts Travel?", In. P. Urban and L. Ward eds., *Care Ethics, Democratic Citizenship*, 181-197, Switzerland: Palgrave McMillan

Tronto, J. C. & Fisher, B.(1990), "Toward a Feminist Theory of Caring", In. E. Abel and M. Nelson eds., *Circles of Care*, 35-62, Albany: SUNY PRESS

Tronto, J. C. & White J. A. (2004), "Political Practices of Care: Needs and Rights'", *Ratio Juris*, Vol. 17, No. 4

Tronto, J. C. et al.(2017), "Beyond the Global Care Chain: Boundaries, Institutions and Ethics of Care", *Ethics and Social Welfare*, Vol. 11, No. 3

Abstract

A Study on the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s of Public Ethics of Care

Dong Uk GO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implication of the public ethic of care for moral education and education in general. The feminine ethic of care, which has been noted in the educational academia in Korea, was useful in criticizing that the mainstream moral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ethics are male-biased. However, the feminine ethic of care obsessed over the issue of gender bias, idealized and romanticized care and sacrificed women's liberty and equality. In this regard, public ethic of care challenged problems of parochialism and paternalism that inevitably emerge in the process of practicing ca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public ethic of care has continued to restructure the concept of care and to emphasize that care is a

universal and central element of human life.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reflect the discussion made in public ethic of care to moral education and education in general.

First, public ethic of care restructured care as human practice to meet the caring needs derived from the vulnerability and dependence of human beings. In addition, public ethic of care has tried to combine and fuse care with justice in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ustice and care. Furthermore, public ethic of care raised the need for a transformation of the liberal worldview and suggest an alternative world based on the critical point of view of whether the liberal political philosophy and neo-liberal economic system properly reflect the universality and centrality of caring.

Briefly, public ethic of care criticized the concept of autonomy and equalitiy, rights and duties, designed under the liberal notion, as a interdependence network of caring responsibilities and caring practices that respond to caring needs derived from human vulnerability and dependence of human beings. Furthermore, public ethic of care criticized that Rawls' theory of justice, which represents liberal political philosophy, is built on the premise of universal and ideal assumptions about human beings and society, and thus inevitably creates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In addition, public ethic of care criticized social structure that has left the responsibility for caring to those who have belonged to the socially,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low class n light of the ideal of caring democracy in which all human beings and citizens are caring together in solidarity and trust. Finally, public ethic of care criticized neo-liberalism, which regards care as a commodity in the market or a purely individual responsibility, which should be the practice of ethical responsibility by all citizens and the standard for the realization of ethical

responsibility by the state.

In the end, public ethic of care sought a holistic alternative to the human, citizen, society, state and global community built by liberalism. First, by recognizing that all human beings and citizens have different levels of vulnerability and dependence, we must become human beings and citizens who can engage in caring practice. First, by recognizing that all human beings and citizens have different levels of vulnerability and dependence, we must become human beings and citizens who can engage in caring practice. Second, it is necessary to become a just society by granting full citizenship to all members of society who practice care. Third, it is necessary to become a state that secures high moral legitimacy by fulfilling ethical responsibilities through tight care systems and polic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become a global community that cares for each other by stopping the predatory transfer of care resources from weak countries.

Criticism and alternatives by the public ethic of care have implications for moral education and education in general as follows. When designing curriculum of mora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catholicity more.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a description that fully considers care as a practice.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moral human image through interdependence. Fourth, it is necessary to make a description that considers the layer of care, which is one of the core values of curriculum of moral education. Fifth, it is necessary to make a description emphasizing relational and cooperative problem-solving ability. And when desinigng content of mora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at the core values of care, sincerity, justice, and responsibility are not limited to each content area.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a description that reflects the scalability that care can improve not only the lives of others but also the lives of all human beings including oneself. Third, content element and the corresponding achievement standard which is related to voluntary service needs to be reorganized around care and practice of care. Fourth, it is necessary to reflect elements that can cause reflection and introspection on the liberal view of citizen, view of society, view of state, and view of justice. Lastly, for education in general, since education is a part of care, education and teachers have the accountability not only to teach students well, but also care students well. For teacher education, which is supposed to nurture teachers, have the accountability to provide various opportunities for pre-service teachers to practice care, and various opportunities for pre-service teachers to take care of themselves.

keywords : Public Ethics of Care, Criticism of Liberalism and Alternatives, Criticism of Neoliberalism and Alternatives, Moral Education

Student Number : 2021-25194